

통권 제2호

발 간 등 록 번 호

12-1081000-000005-08

2015 통일여론

2/4분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CONTENTS



2015통일여론 (2/4분기)

제1장 개 관

I. 개 요	7
II. 통일여론의 흐름	9

제2장 통일여론 분석

I.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15
II. 조사결과	16
① 조사결과 요약	
② 조사결과 분석	

제3장 통일논의 동향

I. 국내 학계 동향	71
II. 국내 언론계 동향	86
III. 해외 동향	109

제4장 정책추진 과제

125

[부 록]

- ◇ 주요 학술회의 목록
- ◇ 국민 통일여론조사 통계표
- ◇ 국민 통일여론조사 설문지

본문에 제시된 '통일여론의 흐름'과 '통일여론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그리고 '통일논의 동향' 및 '정책추진 과제'의 설명은 발간위원회의 견해이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의견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1장 개관

I. 개요

II. 통일여론의 흐름

I. 개요

1. 발간 취지

- ❖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열망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일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삼고자 「통일여론」의 분기별 발간 기획
- ❖ 1/4분기 분석 보고서 발간(2015.4)에 이어, 2/4분기 역시 통일여론을 취합 및 분석하여 제시
- ❖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통일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과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과제
 - 이를 위해 「통일여론」은 국민 통일여론조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학계 및 언론계 동향을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정책추진 과제’ 제시

2. 주요 내용

- ❖ 「통일여론」은 분기별 실시한 국민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고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를 추가·보완하여 분석·정리함으로써, 해당 분기에 일어난 통일 관련 동향의 특징뿐 아니라 이전의 추이와 비교할 수 있는 생생한 데이터 제시
- ❖ 통일 인식, 남북관계 인식, 북한 인식, 국제관계 인식, 안보의식, 통일준비 등과 관련한 문항을 기본으로 하되, 해당 기간 내 발생한 특정 사안과 관련된 여론도 읽을 수 있도록 설문 구성
- ❖ 국내 학계와 언론계에서 다룬 통일 관련 주제와 동향뿐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 다룬 한반도 통일 관련 동향을 포함함으로써 국내외의 통일 관련 입장과 추이를 지속적으로 파악

3. 기대효과

- ❖ 「통일여론」은 국민 통일여론조사 설문지 및 통계표를 [부록]으로 제시하여, 국민들은 물론 전문가들이 분석·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 ❖ 주요 학술회의 목록 및 주제를 정리·소개함으로써 통일 관련 학계 흐름을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으며, 언론계에서 관심을 갖고 다루는 주제와 시각 및 해법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대한 해외 동향을 다룸으로써 주변 강대국의 관심 사항과 입장 추이를 파악하는 역할 수행

Ⅱ. 통일여론의 흐름

1. 국내 통일여론

- ❖ 2015년 2/4분기, 국내 통일여론의 특징은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에 대한 낙관적 전망은 소폭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
- ❖ 이런 양상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처형, 6.15 공동행사 무산 등으로 인해 남북관계의 긍정적 전망 여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측
- ❖ 이와 비슷하게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 역시 1/4분기에 비해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김정은 공포정치와 같은 북한발 부정적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
 - 특히 북한의 ‘급변사태’를 보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1/4분기 조사 때보다 15.3%p 상승
 - 20대 연령층에서 북한을 ‘적대’ 혹은 ‘경계’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
- ❖ 통일에 영향을 미칠 국가로는 1/4분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그 다음으로 ‘미국’을 꼽았으나, ‘미국’이라는 응답의 증가율과 ‘중국’이라는 응답의 증가율 추세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중국-미국이라는 순위가 굳어지는 추세
- ❖ 정부의 다양한 통일준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들은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국민 10명 중 8명(79.0%)이 통일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해 65.5%가 모른다고 응답

→ 한편 통일 미래상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 추진과 통일교육 심화가 당면 과제로 부상

❖ 전문가들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중에서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 및 억제 노력’,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통일준비 본격화’의 순으로 긍정적 평가

→ 특히 2/4분기에는 ‘통일준비 본격화’에 대한 응답이 7.7%P(10.1%→17.8%) 증가

2. 국내 학계 및 언론계 동향

❖ 2/4분기 국내 학계는 통일의 미래와 관련된 학술회의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통일 이후 양상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추진과제를 도출했으며, 동북아 다자협력 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 아울러 통일방안과 관련된 통일모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독일식 모델의 적실성을 논하면서도 중국-대만의 양안모델 역시 통일준비과정에서 참고할만한 유용한 사례라는 의견 제시

❖ 국내 언론계는 ‘통일’ 문제와 ‘북한’ 문제 관련 기사를 40:60의 분량으로 다루면서, 통일준비상태 진단 및 현실적 통일준비 노력의 필요성 제기

→ 북한 분야는 SLBM 발사로 인한 주변국들의 반응 및 대응전략과 김정은 공포정치와 관련한 기사가 많은 부분 차지

→ 이외에 북한 관련 기사는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북한의 시장화 현상,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외부 정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인민 생활 등을 북한 체제의 불안정 사태 속에서 주목

❖ 기사 유형별로는 1/4분기에 비해 통일정책과 관련한 심층보도의 빈도와 비중이 10% 이상 증가한 추세

→ 이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통일정책의 방향성, 실질적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많이 이루어진 결과

3. 해외 동향

- ❖ 2/4분기에도 해외에서는 북한 및 한반도 통일에 대한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
- ❖ 각 국가 내부의 의회 및 NGO 단체, 유엔과 유럽의회 등이 북한 인권과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 제기
- ❖ 특히 2/4분기 동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관심이 인권 문제뿐 아니라 대북 지원, 핵·미사일 이슈 등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났으며,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
 - 미국기업연구소의 이란 및 북한의 핵 문제 비교 학술회의 개최,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의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발표,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해외 북한근로자 인권 관련 회의 개최,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반도 관련 회의 및 러시아의 한반도정책 관련 회의 개최, 유럽 북한인권협회의 대북원조 관련 보고서 발표, 유럽의회 의원모임의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등이 대표적 사례
-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핵전문가들이 북한 핵무기 보유량을 약 20개로 추산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면서, 이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내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한다는 주장 피력
 - 아울러 중국 국방백서는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임을 강조하는 내용을 언급함으로써, 시진핑 정부의 북한 핵개발과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시각 표출
- ❖ 러시아-북한 경제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가 평양에서 개최됐으며, 이 자리에서는 러시아와 북한 사이의 경제적 현안을 논의하면서 전력 공급, 자원 개발,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문제 논의

2장

통일여론 분석

I.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II. 조사결과

① 조사결과 요약

② 조사결과 분석

1. 통일 인식	20
2. 남북관계 인식	31
3. 북한 인식	35
4. 국제관계 인식	42
5. 안보의식	45
6. 통일준비	48

I. 조사내용 및 조사방법

■ 이번 통일여론 분석내용은 국민 통일여론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였으며, 내용에 따라 통일 및 북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를 보완하여 종합 분석, 정리

- ❖ 조사문항은 크게 통일에 대한 인식,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 안보의식, 그리고 통일준비 등 현안에 대한 인식 등으로 구성
- ❖ 조사대상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인구 비례층화 후 무작위로 추출된 1,000명의 전국 성인남녀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3.1\%$ 포인트
- ❖ 조사방식은 여론조사업체인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2015년 5월 16일(토)부터 5월 18일(월)까지 총 3일 간,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를 통한 질문·답변의 방식으로 실시

Ⅱ. 조사결과

1 조사결과 요약

■ 통일에 대한 공감 지속 상승

- ❖ 국민의 76.7%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통일 필요성에 대해 높은 공감대 유지
- ❖ 통일 예상시기에 대해 중기적 전망(10년 · 20년 이내 39.8%) 내지 장기적 전망(30년 전후 · 불가능 40.0%)이 우세하며, 단기적 전망(5년 이내 7.7%)은 적은 것으로 조사
 - 1/4분기와 비교하여 단기적 전망 쪽으로 소폭 이동
 - 전문가(12.9%)는 일반국민(7.7%)보다 단기적 전망 우세
- ❖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실질적 통일 대박 의견에 대한 공감 정도는 61.4%로, 1/4분에 비해 3.6%p 소폭 증가,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향후 남북관계, 현상유지 속 낙관적 전망 소폭 하락

- ❖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변화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으나,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17.3%)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30.7%)이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나,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낙관적 시각을 가진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 ❖ 그러나 1/4분기에 비해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0.4%p 하락한 반면,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0%p 상승하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5.0%p 하락

- ❖ 이러한 결과는 올해 초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았으나, 3월 이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 및 우리 국민 억류 사건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하여 남북관계에 대한 긍정적 전망 여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

■ 양면적 대북 인식 및 북한 개혁·개방 기대감 하락

- ❖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았으나, ‘경계대상’(27.3%)과 ‘적대대상’(10.4%)이라는 응답도 37.7%를 차지한 결과로 볼 때 국민들의 대북 인식은 양면적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

→ 북한을 ‘적대’ 혹은 ‘경계’ 대상으로 보는 경향은 20대 연령층에서 강한 것으로 조사

- ❖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높다’(40.9%)는 의견보다는 ‘낮다’(52.9%)는 의견이 12.0%p 많으며, 1/4분기와 비교하면 ‘높다’는 의견이 5.1%p 하락(46.0%→40.9%)

- ❖ 1/4분기에 비해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낮아졌는바, 이는 북한의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에 대한 전격적 처형 등 북한발 부정적 사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

→ 이러한 정치적 사건의 영향으로 북한 ‘급변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높게 보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지난 1/4분기보다 15.3%p(전문가 1차: 43.1% → 전문가 2차: 58.4%) 높아진 것으로 조사

■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는 중국(47.7%)

- ❖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로 ‘중국’(47.7%)을, 그 다음으로 ‘미국’(39.4%)을 꼽고 있으며, ‘미국’이라는 응답의 증가율과 ‘중국’이라는 응답의 증가율 추세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중국-미국이라는 순위가 굳어지는 추세

- ❖ 전문가 역시 미국(35.6%)보다 중국(63.4%)을 우리나라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로 보고 있으며,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영향력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일반국민의 경우 ‘중국’이라는 응답이 47.7%인데 비해, 전문가는 63.4%로 15.7%p나 높게 조사
- ❖ 이는 최근 중국 주도로 설립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관한 소식과 중국의 대외활동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

■ 안보불안인식 상승, 정부의 통일준비 정책 비인식 및 활동 긍정평가

- ❖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 ‘안정적’(18.4%)이라는 평가보다 ‘불안정’(43.5%)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1/4분기와 비교하면 ‘불안정’ 의식이 4.8%p 증가(38.7%→43.5%)
- ❖ 이러한 결과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 및 위협, 나아가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등으로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바라보는 의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측
- ❖ 정부가 여러 가지 통일준비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은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
 - 국민 10명 중 8명(79.0%)이 통일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정부의 통일준비 정책에 대해 65.5%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도 70.4%가 모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중 가장 잘한 일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28.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 및 억제 노력’(22.8%),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통일준비 본격화’(17.8%) 등의 순으로 평가

→ 1/4분기와 비교할 때 ‘통일준비 본격화’라는 응답이 7.7%p(10.1%→17.8%) 증가함으로써, 정부의 통일준비 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

■ 통일준비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 및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 ❖ 우리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통일·대북정책으로는 ‘남북대화 재개’(39.5%)를 가장 많이 주문했으며,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36.8%), ‘북한주민 민생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34.3%) 등이 뒤를 이은 것으로 조사
- ❖ 통일 미래상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 추진 및 통일교육 확대 시급

■ 정부의 통일정책 및 통일방안 홍보 개선

- ❖ 정부의 통일현장 제정에 대해 찬성(67.3%)하는 의견이 높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설정하는 데는 82.4%가 동의하고 있어서 이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통일현장을 제정하는 것에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판단
 - ❖ 그러나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에 대해 ‘모른다’는 국민들이 65~70%가 되는 만큼 정부 통일방안의 내용 등을 간결하고 명료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 더불어 통일현장 제정 등 통일준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정부의 노력 역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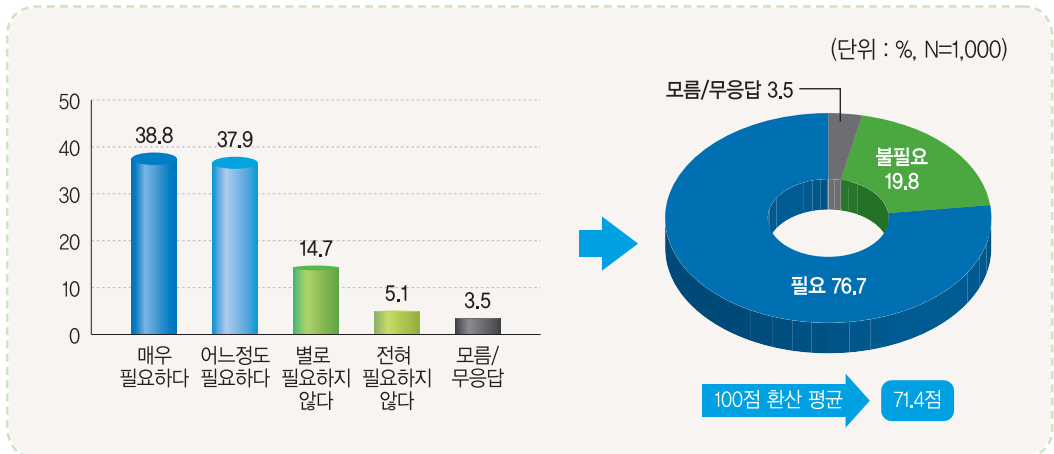
2 조사결과 분석

1. 통일 인식

1) 통일의 필요성

■ 통일 필요성 76.7% 공감

필요 76.7% > 불필요 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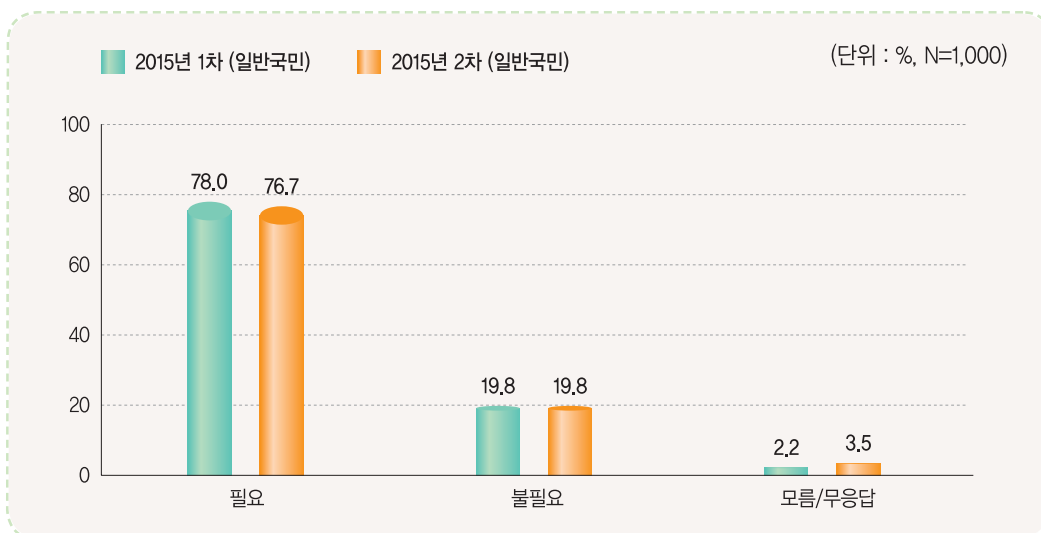
❖ 통일에 대해 76.7%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19.8%로 조사

→ '필요하다' 76.7% (매우: 38.8% + 어느 정도: 37.9%)

→ '필요하지 않다' 19.8% (전혀: 5.1% + 별로: 14.7%)

■ 추이비교 : 통일 필요성 지속

- ❖ 2015년 1차 조사¹⁾결과와 비교하면 ‘필요하다’는 응답이 1.3%p 소폭 하락하였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며, 통일 필요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공감대 유지
- ❖ 이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변함없이 동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



- ❖ 통일연구원에서 실시한 2014년 9~10월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2015년 1차 조사에서 8.7%p 상승한 이후 2차 조사에서는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 본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한 통일연구원 2014년 9~10월 조사결과 ‘필요하다’ 69.3%, ‘필요하지 않다’ 30.7%와 비교하면, 1차 조사에서는 통일 필요성 8.7%p 상승, 그러나 2차 조사에서 다시 1.3%p 하락

- ❖ 이는 2015년 초 광복·분단 70년의 역사적 계기를 맞아 남북대화와 통일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었으나, 이후 남북관계가 제대로 풀리지 않음으로써 통일의식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

1)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2015년 1차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2015년 3월 21일~23일 총 3일 간, 여론조사업체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pm 3.1\%$ 포인트

■ 변수별 차이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남성, 60대 이상, 진보적 이념성향의 응답자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 남성 81.3%, 여성 72.1%

→ 20대 65.3%, 30대 74.8%, 40대 80.7%, 50대 77.0%, 60대 이상 83.1%

→ 진보 83.9%, 중도 77.1%, 보수 72.5%

※ 1차 조사에서는 통일 필요성 응답에 대한 이념성향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진보 81.0%, 중도 80.6%, 보수 76.7%), 2차 조사에서는 이념성향별 차이 발생

❖ 특히 연령별 20대(65.3%)와 60대 이상(83.1%) 간의 차이가 크며, 20대 청년층이 통일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바,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실시 및 공감대 형성 필요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월 소득 200만원 이하(82.8%) 응답자, 통일 후 국가발전에 공감하는(89.1%) 응답자,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92.6%)이라는 응답자 등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

→ 이는 소득 최하위 계층에서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통일과 남북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들이 통일 필요성에 더 공감하고 있음을 의미

❖ 또한 북한을 긍정적인 대상(지원대상 +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와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85.8%)는 응답자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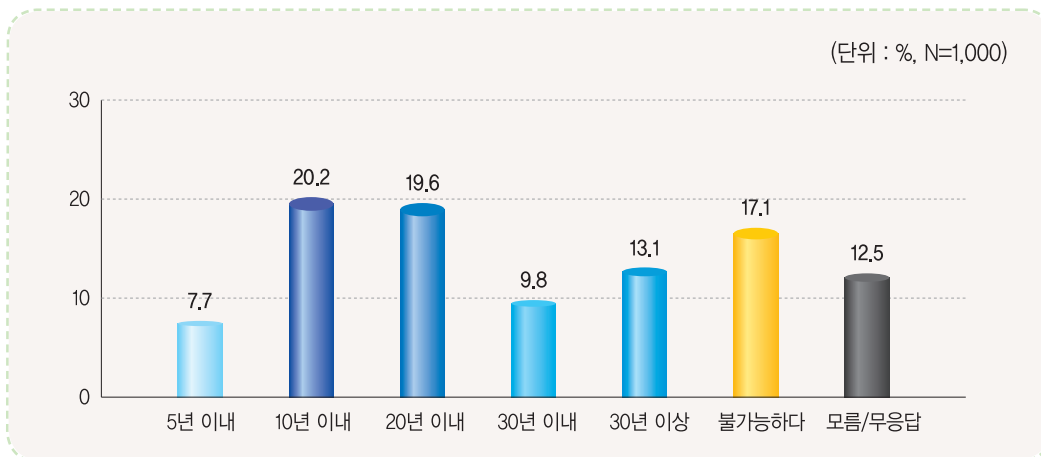
→ ‘지원대상’(82.4%), ‘협력대상’(91.5%), ‘상관없는 대상’(52.9%), ‘경계대상’(65.2%), ‘적대대상’(66.1%) 등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보는가에 따라 통일 인식에 차이 존재

→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서도 ‘높다’(85.8%), ‘낮다’(71.5%)는 평가에 따라 통일 인식이 상이

2) 통일 예상시기

■ 단기 전망 약세, 중장기적 전망 우세

5년 이내 7.7% < 10년·20년 39.8% ≒ 30년·불가능 40.0%



❖ 남북한 통일 예상시기에 대해 5년 이내에 가능할 것이라는 단기적 시각은 7.7%로 낮은 반면, 10년·20년 이내의 중기적 시각과 30년 전후로 보는 장기적 시각이 각각 39.8%, 40.0%로 높은 비중 차지

→ 단기적 시각(7.7%) : ‘5년 이내’ 7.7%

→ 중기적 시각(39.8%) : ‘10년 이내’ 20.2%, ‘20년 이내’ 19.6%

→ 장기적 시각(40.0%) : ‘30년 이내’ 9.8%, ‘30년 이상’ 13.1%,
‘불가능’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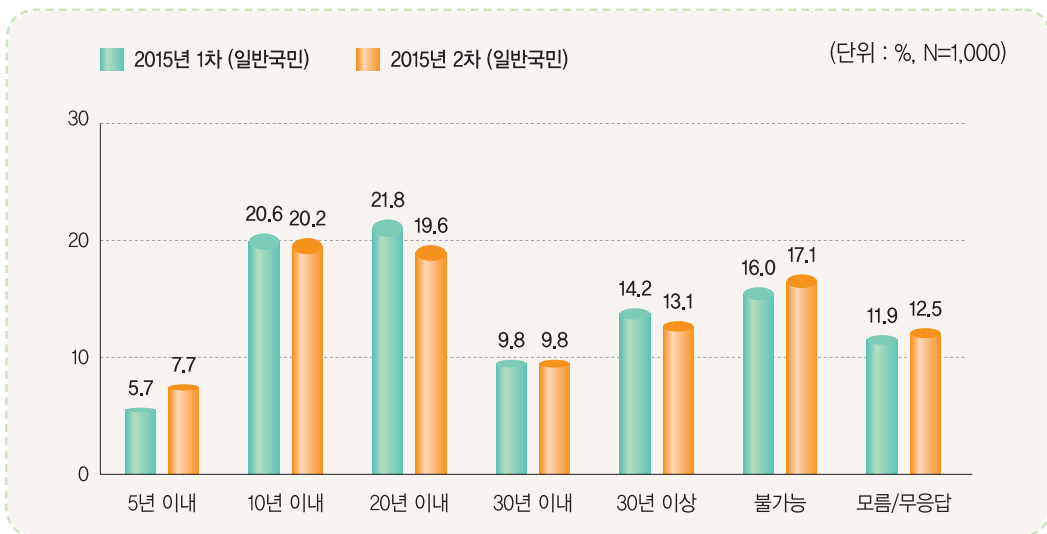
❖ 한편,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17.1%로 ‘5년 이내’(7.7%)라는 단기 예상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 종합하면 국민들은 통일이 5년 안에 실현될 것이라는 단기적 시각보다는 10년 내지 20년 이내의 중기적 전망으로 보거나, 30년 전후 혹은 불가능하다는 장기적 시각에서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추이비교 및 시사점

❖ 2015년 1차와 비교할 때 5년 이내로 보는 단기적 시각은 5.7%→7.7%로 2.0%p 높아지고, 10년·20년 이내로 보는 중기적 시각은 42.4%→39.8%로 2.6%p 낮아져 단기적 전망으로 소폭 이동하였으나 유의미한 변화는 아닌 것으로 판단

→ 장기적 시각(30년 전후·불가능)은 40.0%로 동일



❖ 이러한 결과는 국민들은 현재의 남북 분단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갑작스러운 통일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반영

❖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4년 전 조사(2011.4)²⁾와 비교하면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부정적·비관적 태도는 28.1%→17.1%로 줄고, ‘10년 이내’라는 중기적 예측이 다소 증가함으로써 지난 4년 동안 국민들의 통일인식은 긍정적·낙관적으로 변화

❖ 그럼에도 통일을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이 여전히 10% 중후반 대를

2)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2011년 1차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2011년 4월 15일~16일 총 2일 간, 여론조사업체 (주)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생각은 국가적·사회적 통일준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따라서 통일에 대한 부정적 분위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남북관계 개선 및 통일 환경 구축이 요구

■ 변수별 차이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5년 이내'의 단기적으로 통일을 전망하는 반면, 20~30대는 '30년 이상' 등 장기적으로 통일 전망

→ '5년 이내' : 20대 0%, 30대 5.1%, 40대 6.5%, 50대 7.1%,
60대 이상 17.8%

→ '30년 이상' : 20대 22.3%, 30대 25.5%, 40대 12.1%, 50대 5.9%,
60대 이상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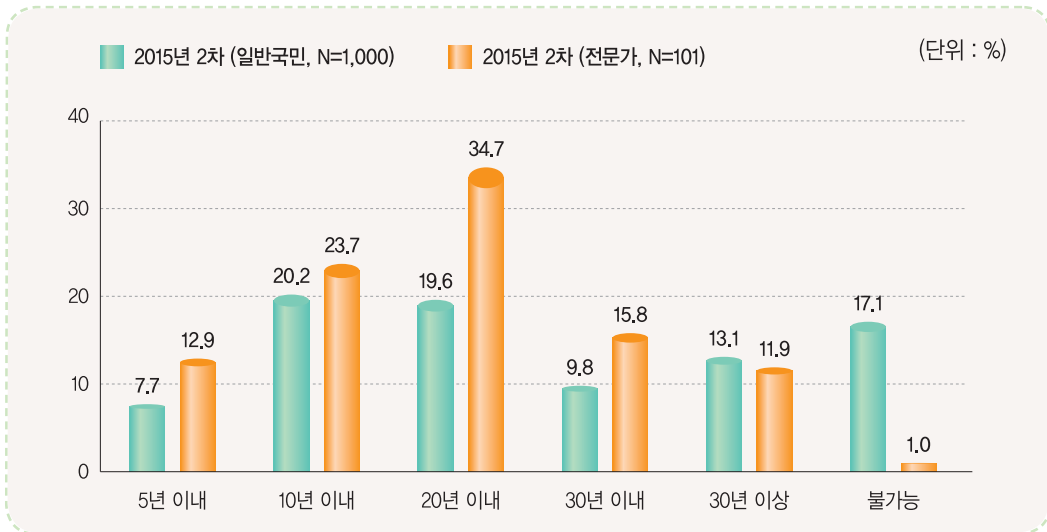
❖ '5년 이내'의 단기적 통일 전망은 중졸 이하(15.6%), 보수적(11.4%) 이념 성향, 농/임/어업(26.7%) 종사, 소득 최하위층(15.8%)의 응답자 등에서 높게 나타나며, 정보접촉경로가 인터넷/SNS(3.6%)보다는 TV/라디오(11.2%)와 신문/잡지(10.2%)인 경우에 높은 것으로 조사

■ 전문가 조사³⁾ : 중기 통일 예상

❖ 통일·북한 관련 전문가 조사에서는 '10년 이내'(23.7%) 및 '20년 이내'(34.7%)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중기적 전망이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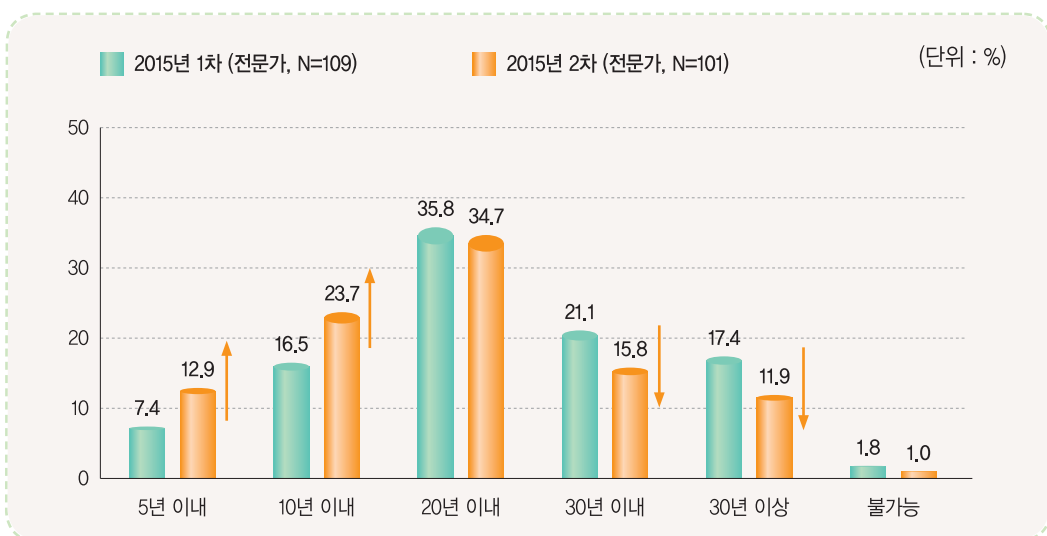
❖ 전문가 조사에서는 통일이 '불가능하다'는 견해는 거의 없고, '20년 이내'의 중기적 전망과 '5년 이내' 및 '30년 이내' 등의 단기 및 장기 전망에서 일반국민보다 높게 조사

3)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2차 전문가 조사는 2015년 6월 2일(화)부터 6월 8일(월)까지 총 7일 간, 여론조사 업체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통일·북한 관련 교수, 연구위원 등 전문가 15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그에 응답한 101명(응답률 67.3%)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신뢰수준 95%에 최대허용 표본오차 $\pm 5.57\%$ 포인트)



❖ 전문가들이 통일을 불가능하다고 보지 않는 이유는 일반국민보다 더 많은 북한 관련 정보를 접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 1차 조사와 비교해 보면 전문가들은 일반국민과 마찬가지로 ‘5년 이내’에 통일이 가능할 것이라는 단기적 전망이 7.4%→12.9%로 5.5%P 증가, ‘10년 이내’의 중기적 전망도 16.5%→23.7%로 7.2%P 증가한 반면, ‘30년 이내’라는 장기적 전망은 21.1%→15.8%로 5.3%P 감소



- ❖ 즉 전문가들은 통일시기에 대해 중기적 전망의 우세 속에서 단기 전망 여론도 형성하고 있는 바, 이는 최근 북한 체제의 불안정성 증대로 통일의 시기가 단축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 가능
- ❖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이 큰 통일방식으로 ‘독일식 통일’(66.3%)에 가장 많은 응답을 했고, ‘중국·대만식 통일’(27.7%)을 그 다음으로 꼽았으며, ‘예멘식 통일’(5.0%)과 ‘베트남식 통일’(1.0%)의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는 것으로 조사
- ❖ 전문가의 경우,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응답자일수록 통일 예상시기가 짧은 것으로 나타나, 통일 예상시기는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연관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 이는 최근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이 공식화 되면서 북한 내부에 급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향후 북한 내부 급변 사태와 그에 대한 대처방안, 우호적 통일 환경 조성 등의 철저한 준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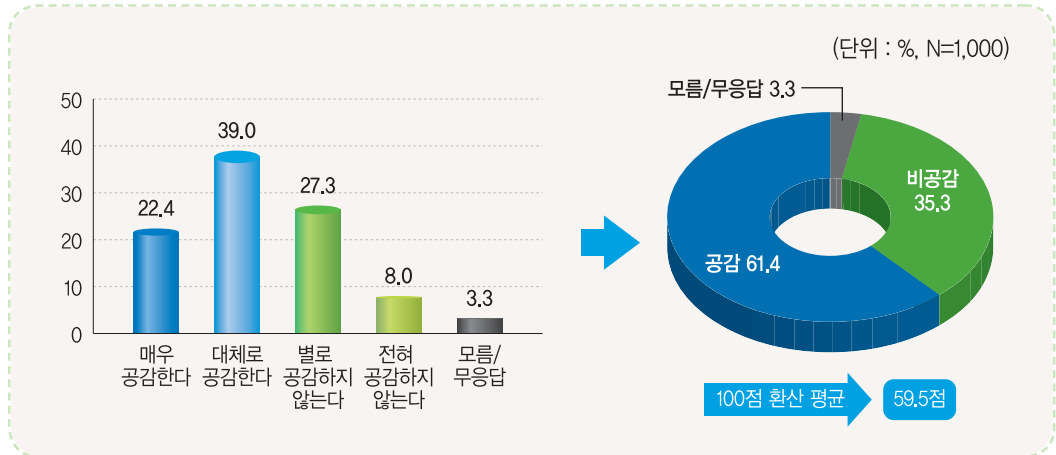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고위관료 조사(2014년 10월~2015년 1월)

- ❖ 통일 분야 전직 고위관료 1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일 가능 시기에 대해서 ‘20년 이내’라는 응답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5년 이내’ 22.8%, ‘10년 이내’ 19.4%, ‘30년 이내’ 19.4%, ‘30년 이상’ 8.3%, ‘불가능할 것’ 0.0%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
- ❖ 일반국민 조사와 비교할 때 ‘5년 이내’(22.8%)라는 단기 전망이 매우 높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은 전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
 - 즉 전직 고위관료(22.8%)는 일반국민(7.7%)이나 전문가(12.9%)에 비해 ‘5년 이내’의 단기 통일 전망을 강하게 피력

3) 통일대박 비전 공감 정도

■ 통일대박 비전 61.4% 공감

공감 61.4% > 비공감 35.3%



❖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통일대박’ 비전 공감 정도를 살펴보면 ‘공감한다’는 응답이 61.4%,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3%로 나타나, 실질적 통일대박 견해에 공감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공감한다’ 61.4% (매우: 22.4% + 대체로: 3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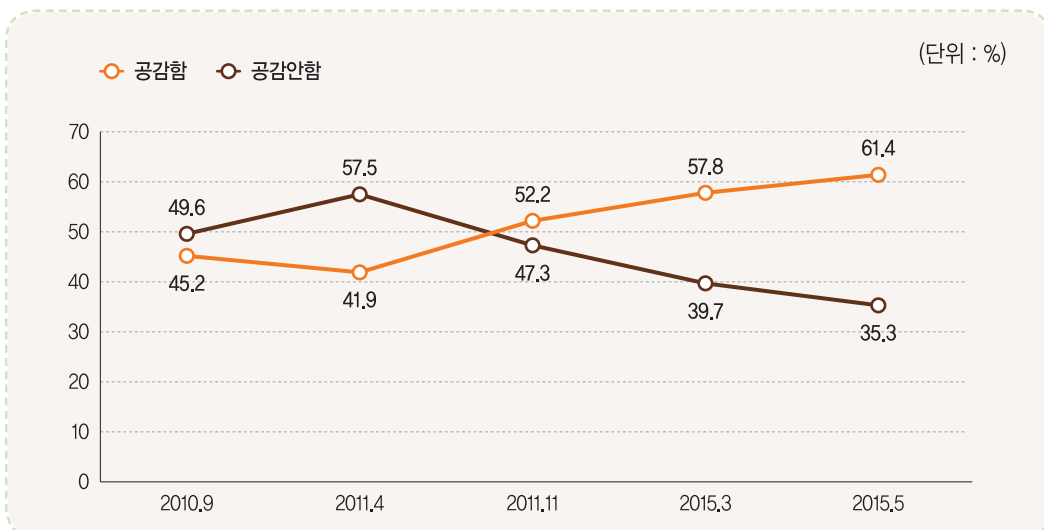
→ ‘공감하지 않는다’ 35.3% (전혀: 8.0% + 별로: 27.3%)

■ 추이비교 : 통일대박 비전 상승 추세

❖ 2015년 1차 조사와 비교할 때 3.6%p 소폭 상승하였으며, 201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

→ 2015년 1차 조사결과, 통일대박 비전 공감 정도에 대해 ‘공감한다’는 응답이 57.8%(매우: 19.7% + 대체로: 38.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7%(전혀: 8.9% + 별로: 30.8%)로 조사

→ 이에 비해 2차 조사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3.6%p 소폭 상승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p 소폭 하락



- ❖ 그럼에도 통일대박 비전에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응답자의 1/3 이상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철저한 통일준비 없이는 통일 후에 발생하는 통일비용, 사회적 갈등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각종 연구 결과 및 언론보도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 따라서 철저한 통일준비를 통해 국민들에게 통일 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명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한 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통일에 대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노력 필요

■ 변수별 차이

- ❖ 남성(69.6%)의 통일대박 비전 공감도가 높은 반면, 여성(53.3%)은 비교적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 연령별로는 20~30대 젊은층의 공감도가 낮고, 50~60대 이상은 높으며, 40대는 중간 정도

→ 20대와 30대는 각각 52.5%, 52.6%로 낮은 반면,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69.1%, 67.6%로 높은 편

→ 40대는 63.0%

❖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자(83.3%)는 그렇지 않은 응답자(‘변화 없을 것’ 50.2%, ‘나빠질 것’ 50.3%)보다 통일대박 비전에 대한 공감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조사

❖ 통일대박 비전 공감도는 북한을 협력대상(77.3%)이라고 인식하는 응답자,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72.7%)는 응답자,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인식할수록(‘안정’ 74.5%), 우리사회 통일준비가 잘 되어 있다(72.4%)는 응답자 등에서 특히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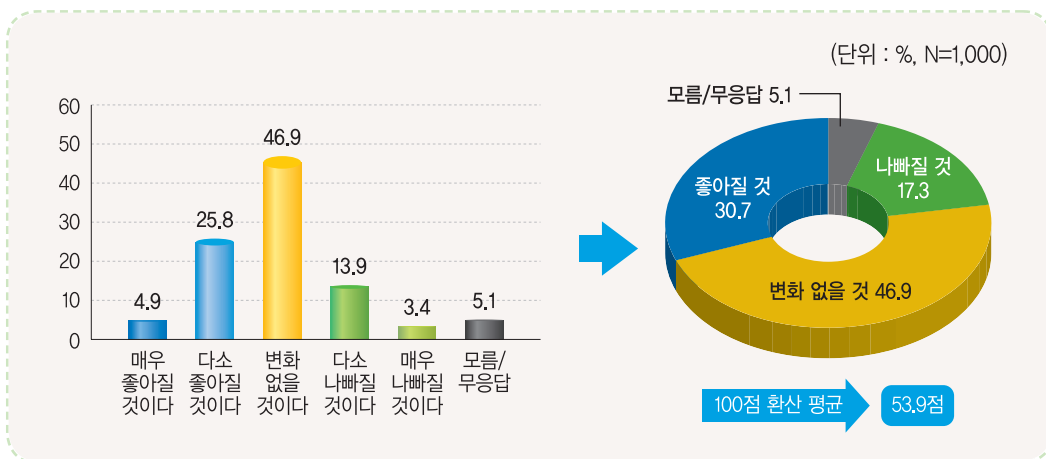
❖ 또한 ‘공감한다’는 응답은 정부 통일준비 정책을 인지(70.3%)하는 응답자,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본원칙의 통일을 찬성(66.4%)하는 응답자, 우리정부 통일방안을 인지(68.6%)하는 응답자 등에서 높게 나타나는 바, 정부의 통일정책과 노력을 잘 인지하는 사람일수록 통일이 가져올 국가 발전과 기여를 긍정적으로 전망

2. 남북관계 인식

1) 향후 남북관계 전망

■ 현상유지 속 낙관적 전망

좋아질 것 30.7% > 나빠질 것 17.3% 변화 없을 것 46.9%



※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 ‘변화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으나, ‘나빠질 것이다’는 응답(17.3%)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는 응답(30.7%)이 두 배가량 높게 나타나,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

→ ‘좋아질 것이다’ 30.7% (매우: 4.9% + 다소: 25.8%)

→ ‘나빠질 것이다’ 17.3% (매우: 3.4% + 다소: 13.9%)

※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약 3명가량만이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2/3 가량의 응답자가 ‘변화 없을 것’ 또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여, 현재의 남북관계 소강 국면에 대한 돌파구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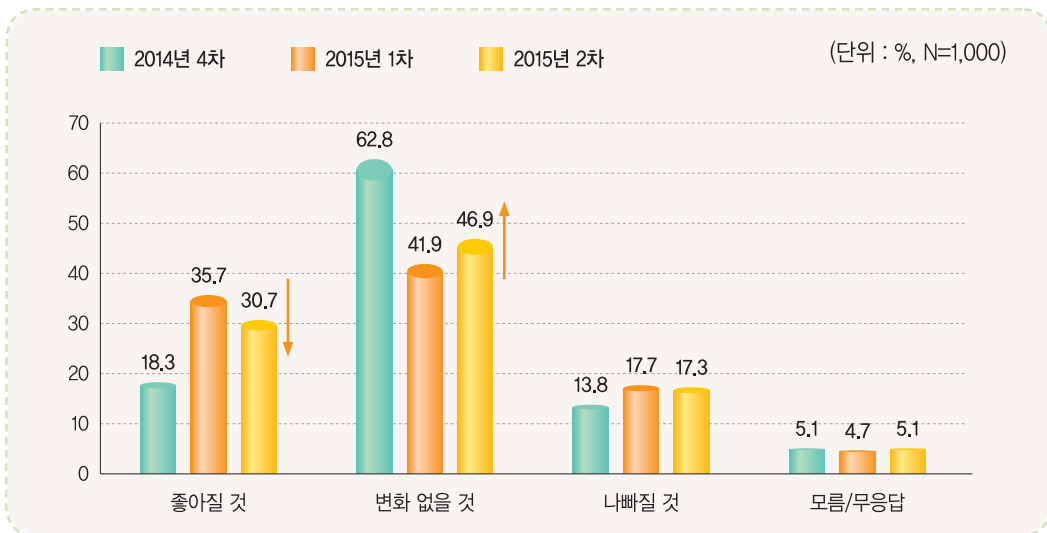
■ 추이비교 및 시사점 : 낙관적 전망 소폭 하락

❖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2014년 4차 조사⁴⁾결과와 비교하면 향후 남북관계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12.4%p 상승,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3.5%p 상승한 반면,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15.9%p 하락

→ 2014년 4차 조사에서는 ‘변화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62.8%로 가장 높았고, ‘좋아질 것이다’ 18.3%(매우: 1.6% + 다소: 16.7%), ‘나빠질 것이다’ 13.8%(매우: 2.7% + 다소: 11.1%)로 조사

❖ 2015년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5.0%p 하락, ‘나빠질 것’이라는 응답은 0.4%p 하락한 반면,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5.0%p 상승

→ 2015년 1차 조사에서는 ‘변화 없을 것이다’는 응답이 4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좋아질 것이다’ 35.7%(매우: 3.2% + 다소: 32.5%), ‘나빠질 것이다’ 17.7%(매우: 3.4% + 다소: 14.3%)로 조사



4)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2014년 4차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2014년 11월 28일~30일 총 3일 간, 여론조사 업체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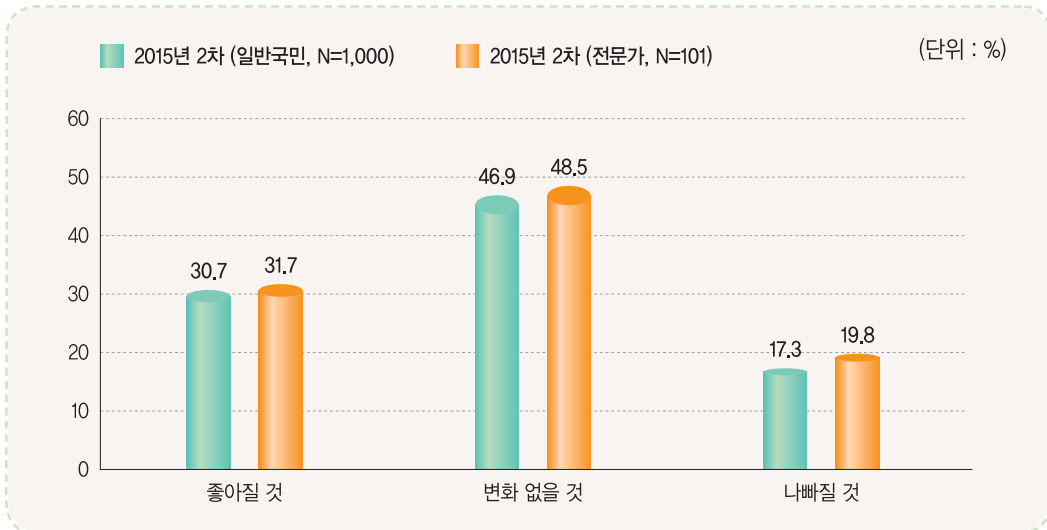
- ❖ 2014년 4차부터 2015년 2차까지의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남북 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응답이 올해(2015년) 초 크게 상승하였지만, 2차 조사에서는 소폭 하락하는 추이
- ❖ 이러한 결과는 올해 초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남북대화의 가능성이 제기됨으로써 남북관계 전망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였으나, 3월 이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 우리나라 국민의 북한 억류 사건,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각종 문제들로 인하여 향후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여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판단

■ 변수별 차이

- ❖ 젊은층일수록 향후 남북관계가 ‘변화가 없을 것’ 혹은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우세
 - ‘변화 없을 것’ : 20대 59.3% ≒ 30대 55.8% > 40대 42.5% ≒ 50대 46.6% > 60대 이상 34.1%
 - ‘좋아질 것’ : 20대 20.9% < 30대 27.5% ≒ 50대 26.4% < 40대 37.1% ≒ 60대 이상 38.8%
- ❖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진보(36.5%)에서,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은 보수(23.1%)에서, ‘변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은 중도(54.2%)에서 가장 높게 조사
- ❖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응답은 북한을 지원(42.9%) 또는 협력(45.1%) 대상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46.8%)는 응답자, 우리나라 안보 상황이 안정적(44.5%)이라는 응답자, 우리사회 통일준비가 잘 되어 있다(54.7%)는 응답자, 정부 통일방안을 인지(38.8%)하는 응답자에서 높게 조사

■ 전문가와 일반국민 견해 수렴

- ❖ 향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한 평가는 일반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
→ 즉 ‘변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이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보다 높게 조사



- ❖ 이번 2차 전문가 조사결과는 1차 조사와 큰 변화 없이 유사
- ❖ 올해로 15주년을 맞는 ‘6.15 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여 서울에서 ‘6.15 남북공동행사’ 개최를 통해서 남북관계 전환점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공동행사가 무산됨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변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

■ 현대경제연구원 전문가 조사 (2015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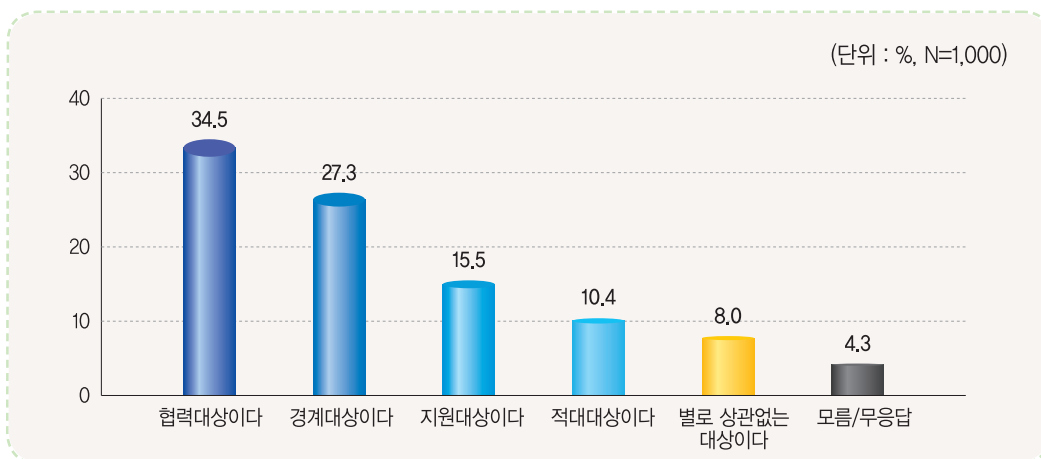
- ❖ 통일·외교·안보 전문가 6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015년 남북관계 개선 시기에 대해서 ‘8.15 광복 70주년 계기’라는 응답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독수리훈련 종료(4.24) 이후’ 18.8%, ‘6.15 15주년 이후’ 15.9% 등으로 조사
- ❖ 한편, ‘올해 안에는 힘들 것’이라는 응답은 29.0%로 조사

3. 북한 인식

1) 북한에 대한 인식

■ 협력과 경계의식의 양면성

협력대상 34.5% > 경계대상 2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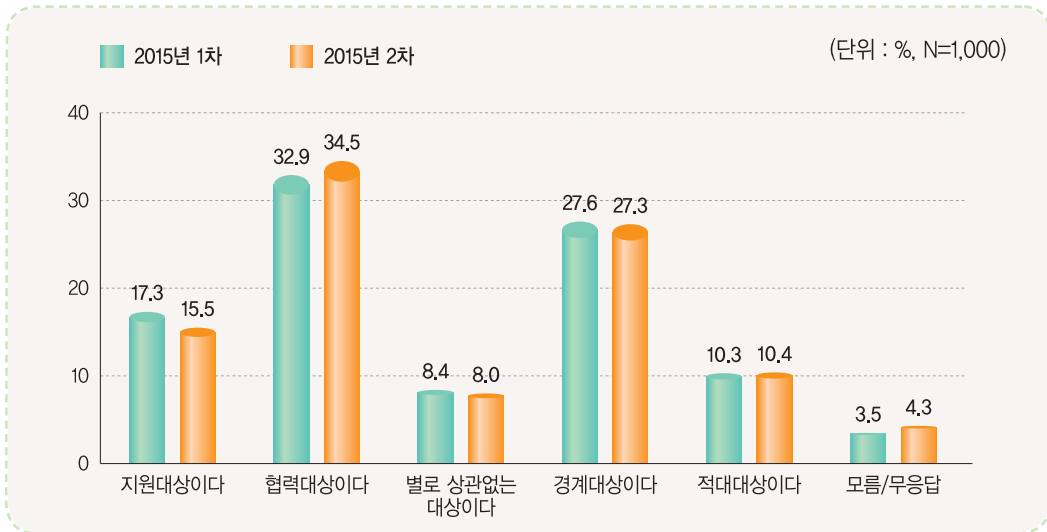


- ❖ 북한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협력대상이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경계대상이다’ 27.3%, ‘지원대상이다’ 15.5%, ‘적대대상이다’ 10.4%, ‘별로 상관없는 대상이다’ 8.0%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
- ❖ 즉 응답자 10명 중 5명가량은 북한을 긍정적 대상(‘협력대상’, ‘지원대상’)으로 인식하는 반면, 4명가량은 북한을 부정적 대상(‘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인식하고 있고, 1명가량은 우리와 상관없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 추이비교 및 시사점

- ❖ 2015년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큰 변화없이 매우 유사한 양상

→ 1차 조사결과에서도 ‘협상대상이다’는 응답이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경계대상’ 27.6%, ‘지원대상’ 17.3%, ‘적대대상’ 10.3%, ‘별로 상관없는 대상’ 8.4%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



■ 협력과 적대 : 30·40대와 20·50·60대, 진보와 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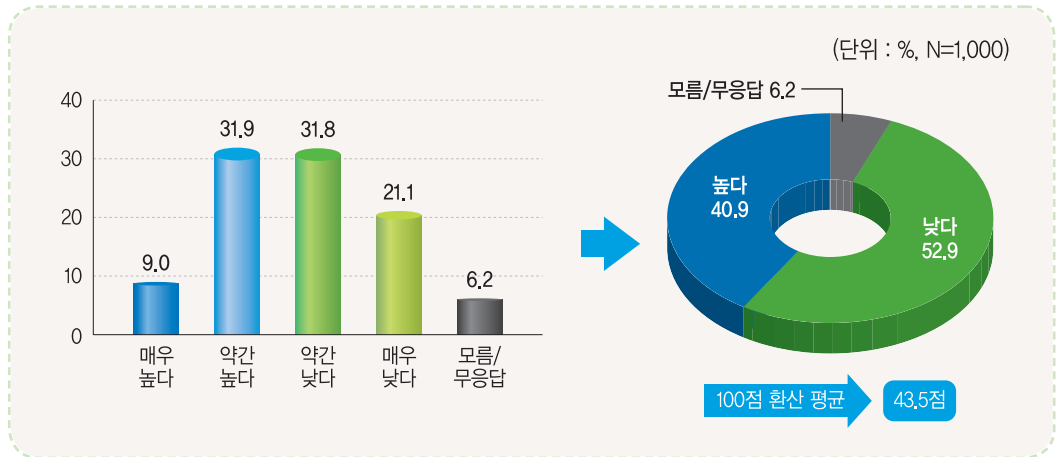
- ❖ ‘협력대상이다’는 응답은 40대(46.5%), 서울(39.5%) 및 대전/충청(42.0%) 거주,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41.5%), 진보적 이념성향일수록(진보: 46.6%), 블루칼라(41.1%) 직업군의 응답자 등에서 특히 높게 조사
- ❖ ‘경계대상이다’는 응답은 여성(30.5%), 대구/경북(34.3%) 거주자, 고졸(33.1%), 보수적 이념성향일수록(보수: 33.6%), 가사노동(31.6%)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 북한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의 이념성향과 안보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
- ❖ 즉 진보적 이념성향일수록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보수적 이념성향일수록 ‘경계대상’ 및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협력대상’ : 진보 46.6%, 중도 42.7%, 보수 19.5%
- ‘경계대상’ : 진보 20.7%, 중도 27.8%, 보수 33.6%
- ‘적대대상’ : 진보 6.4%, 중도 6.4%, 보수 17.6%
- ❖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북한이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불안정하다고 인식할수록 ‘경계대상’ 및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협력대상’ : 안정 42.2%, 보통 41.5%, 불안정 25.7%
 - ‘경계대상’ : 안정 17.4%, 보통 24.7%, 불안정 34.1%
 - ‘적대대상’ : 안정 7.3%, 보통 8.5%, 불안정 13.3%
- ❖ ‘경계대상이다’는 응답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41.3%)는 응답자, 통일이 불가능하다(37.6%)는 응답자, 통일 후 국가발전에 공감하지 않는(37.8%) 응답자, 향후 남북관계가 변화 없을 것(34.0%) 및 나빠질 것(33.8%)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2)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 북한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낮다 52.9% > 높다 40.9%



❖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낮다’는 응답(52.9%)이 ‘높다’는 응답(40.9%)보다 12.0%p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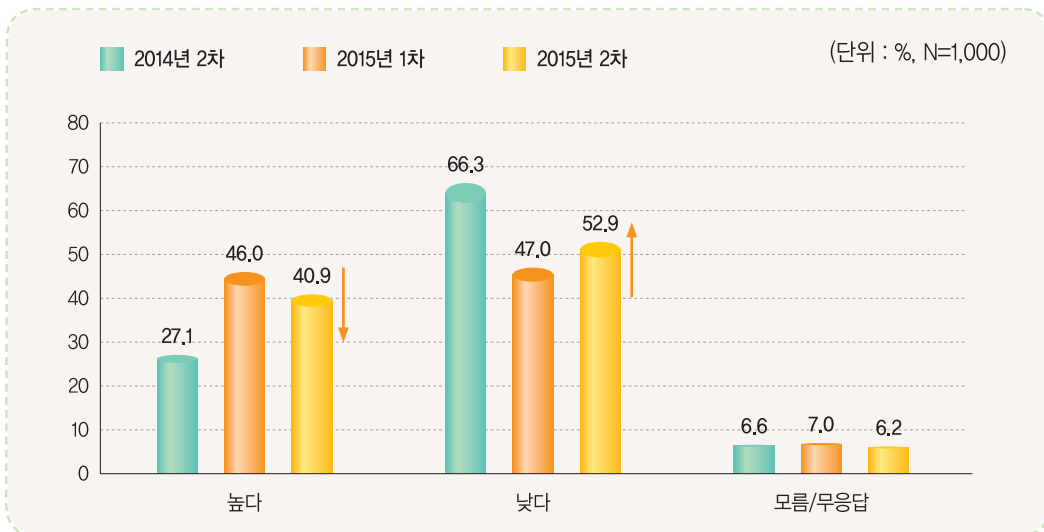
→ ‘낮다’ 52.9% (매우: 21.1% + 약간: 31.8%)

→ ‘높다’ 40.9% (매우: 9.0% + 약간: 31.9%)

■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기대감 하락

❖ 2014년 2차(2014.6)⁵⁾ 및 2015년 1차(2015.3) 조사와 비교하면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응답이 27.1%→46.0%→40.9%로 급상승 후 다시 5.1%p 하락한 반면, ‘낮다’는 응답은 66.3%→47.0%→52.9%로 큰 폭의 하락 후 5.9%p 상승

5) 민주평통에서 실시한 2014년 2차 국민 통일여론조사는 2014년 6월 10일~12일 총 3일 간, 여론조사 업체(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



- ❖ 이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개혁·개방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낮아졌음을 알 수 있는 결과
- ❖ 1년 전인 2014년 2차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상당한 정도 상승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15년 5월 13일 북한의 인민무력부장(국방부장관) 현영철에 대한 전격적인 처형 등 북한발 부정적 사건으로 인해 북한 체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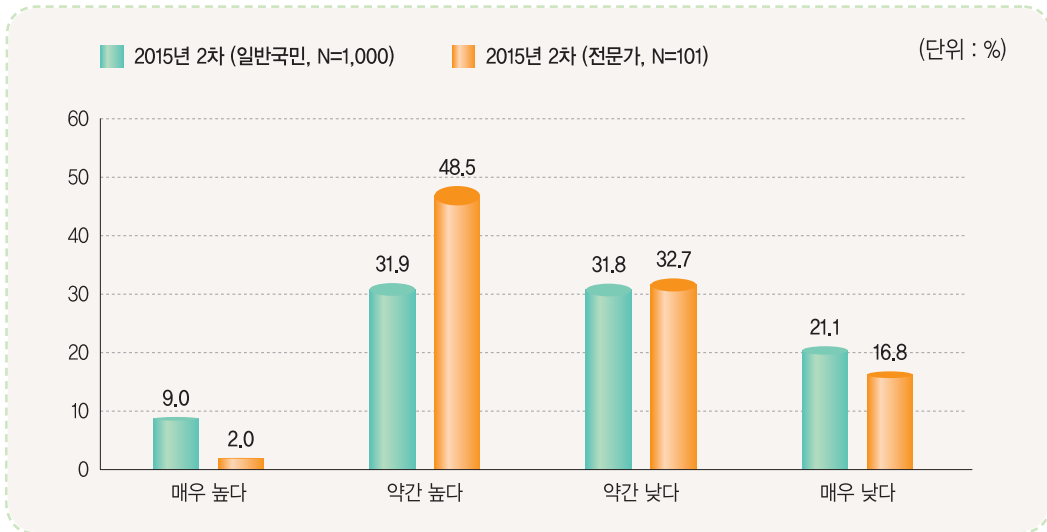
■ 변수별 차이

- ❖ 30대(48.4%) 및 40대(45.9%)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대전/충청(50.4%) 거주자,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45.4%), 진보적 이념성향일수록(진보: 47.7%)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 20대 38.7%, 30대 48.4%, 40대 45.9%, 50대 42.9%, 60대 이상 29.9%
 - 중졸 이하 27.2%, 고졸 38.3%, 대재 이상 45.4%
 - 진보 47.7%, 중도 42.9%, 보수 36.2%

■ 전문가 조사

❖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높다’(50.5%)와 ‘낮다’(49.5%)로 엇갈렸으며, 이러한 평가는 일반국민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

→ 일반국민의 경우, ‘높다’ 40.9%, ‘낮다’ 52.9%



❖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해 볼 때 ‘높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48.6%→50.5%)하였으나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 경제적 고립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개혁·개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개혁·개방의 모습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

❖ 한편, 전문가를 대상으로 북한의 향후 변화와 관련하여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가능성이 ‘낮다’(41.6%)는 쪽 보다는 ‘높다’(58.4%)는 쪽의 평가 우세

→ ‘높다’ 58.4% (매우: 18.8%, 약간: 3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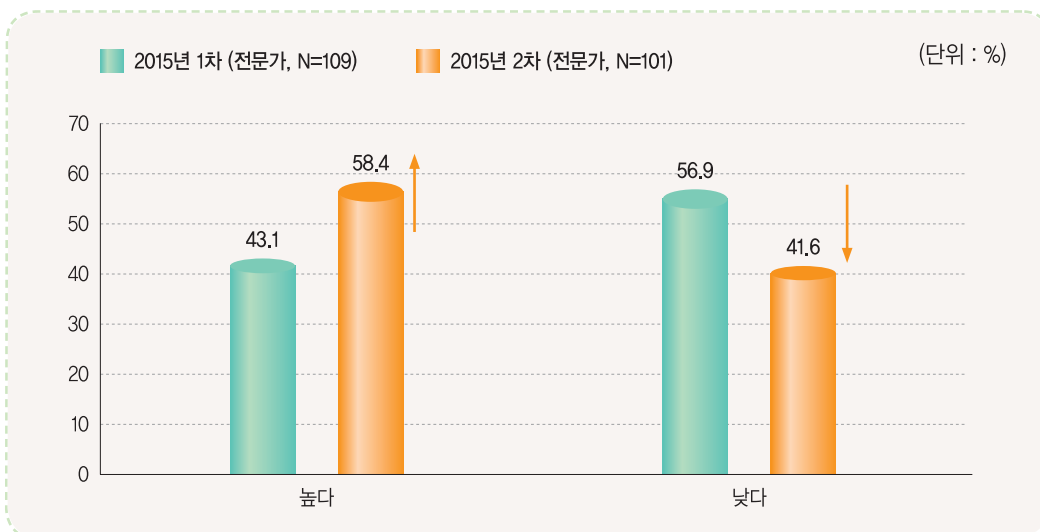
→ ‘낮다’ 41.6% (매우: 12.9%, 약간: 28.7%)

❖ 1차 조사와 비교하여 이번 2차 조사결과에서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뒤바뀐 것으로 조사

❖ 1차 조사에서는 ‘낮다’는 쪽의 평가가 우세한 반면, 2차 조사에서는 ‘높다’는 쪽의 평가가 우세

→ 1차 조사(전문가) : ‘높다’ 43.1% < ‘낮다’ 56.9%

→ 2차 조사(전문가) : ‘높다’ 58.4% > ‘낮다’ 41.6%



❖ 2차 조사에서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이 15.3%p(43.1% → 58.4%) 증가하였으며, 이는 조사시점 당시 현영철 처형과 같은 북한 고위층의 숙청사태가 발생하는 등 북한사회 내부의 불안정성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

■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 및 국가보훈처, 한국정치학회, 조선일보 주관 조사 (2015년 4월)

❖ 통일 · 외교 · 안보 · 정치 분야 전문가 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북한의 시장경제 체제 도입 전망에 대해서 ‘사회주의 유지하는 선에서 부분 도입’이라는 응답이 7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성공 못 할 것’ 20%, ‘사회주의 체제로 환원할 것’ 10% 등으로 조사

4. 국제관계 인식

1) 통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나라

■ 중국 >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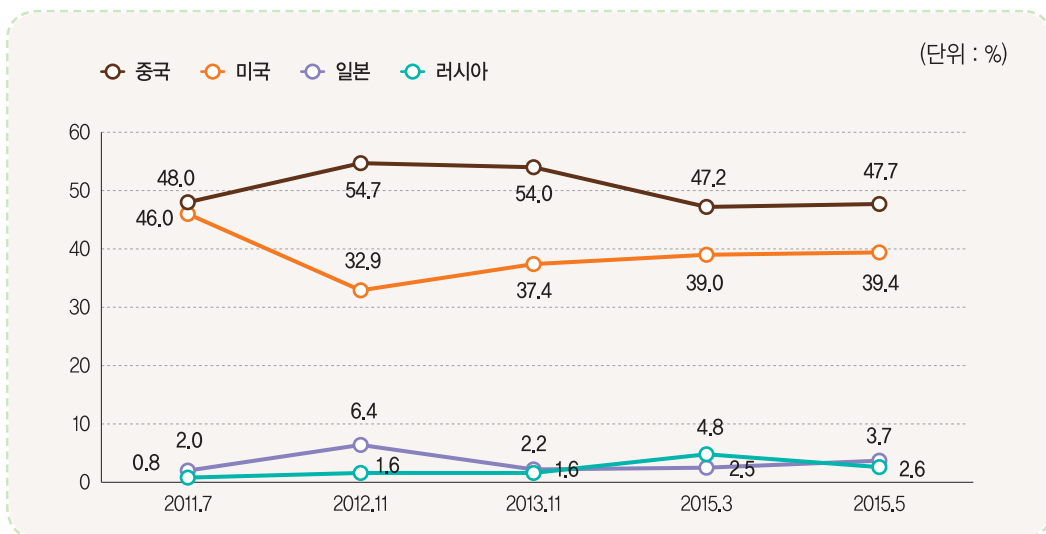
중국 47.7% > 미국 39.4%



- ❖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는 ‘중국’이라는 응답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미국’이라는 응답 39.4%, ‘일본’ 3.7%, ‘러시아’ 2.6%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
- ❖ 이러한 결과는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시아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중국과 미국이 우리나라의 통일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

■ 추이분석 : 중국·미국 영향력 유지

- ❖ ‘중국’을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로 보고 있으나, 2015년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미국’이라는 응답의 증가율과 ‘중국’이라는 응답의 증가율 추세가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 중국-미국이라는 순위가 굳어지는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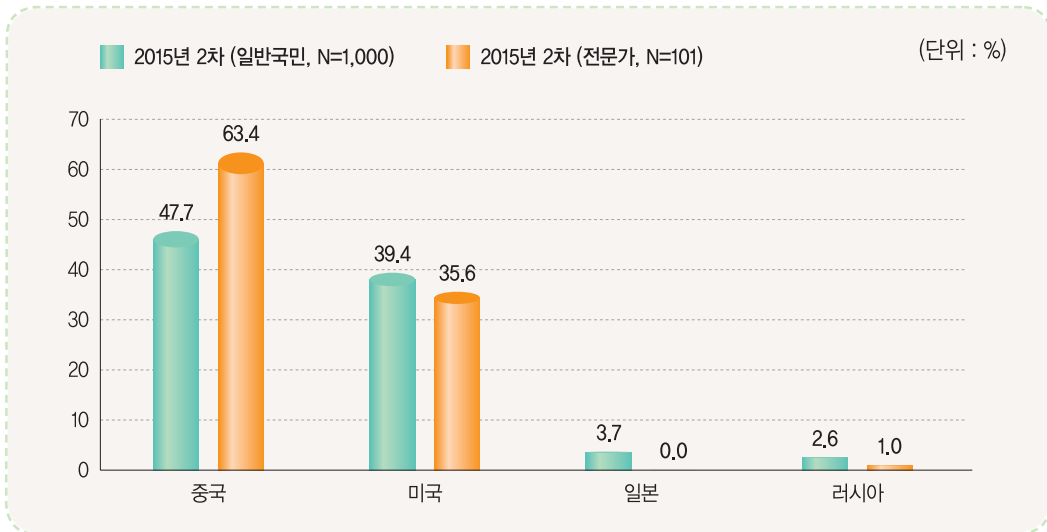
- ❖ ‘중국’ 영향력의 하락세가 멈춘 것은 최근 중국 주도로 설립한 AIIB(아시아 인프라투자은행)에 관한 소식과 중국의 대외활동으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증대할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

■ 변수별 차이

- ❖ ‘중국’이라는 응답은 남성(54.3%), 40대(60.5%) 및 50대(55.7%), 고졸(52.6%), 자영업(61.5%) 및 화이트칼라(52.3%) 직업군의 응답자 등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
- ❖ ‘미국’이라는 응답은 여성(43.0%), 20대(57.4%) 및 30대(48.8%), 대재 이상(43.5%), 학생(53.6%)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전문가 조사

- ❖ 전문가 역시 중국(63.4%)이 우리나라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로 보았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35.6%)을 선택



❖ 그러나 전문가들은 일반국민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국의 영향력을 더 크게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

→ 일반국민은 ‘중국’이라는 응답이 47.7%인데 비해, 전문가들은 63.4%로 15.7%p나 높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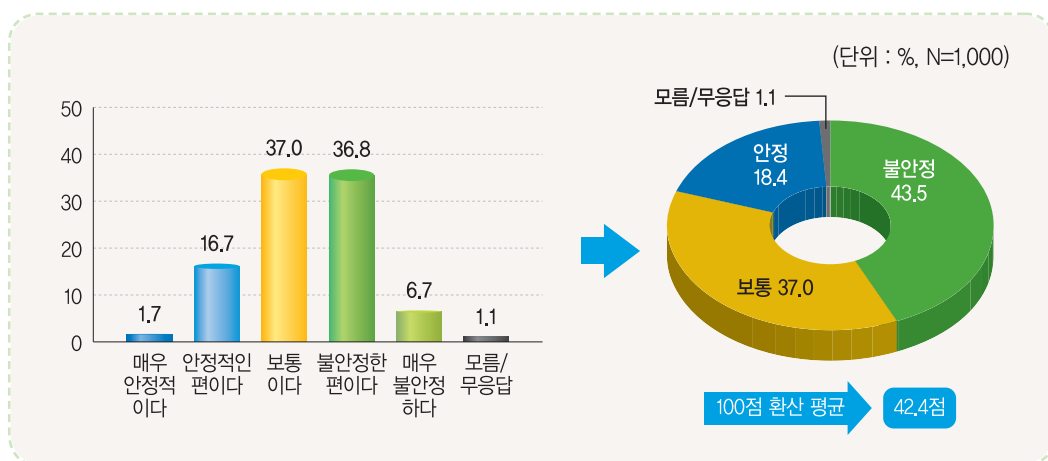
❖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전문가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다소 증대(58.7% → 63.4%)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40.4% → 35.6%)한 것으로 판단

5. 안보의식

1) 안보상황 인식

■ 안보불안인식

불안정 43.5% > 안정 18.4%



❖ 우리나라 안보 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다’는 응답이 18.4%,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43.5%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4명가량은 우리나라 안보가 불안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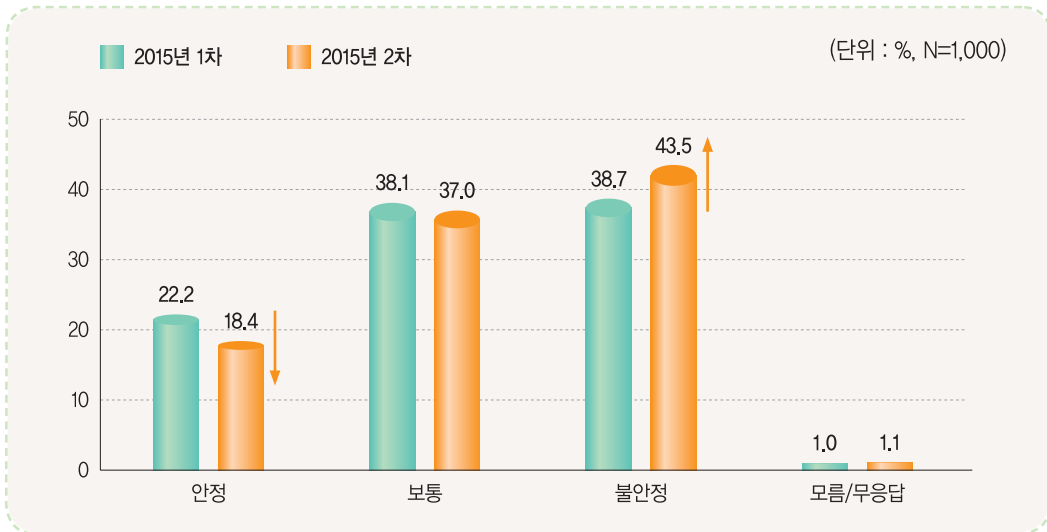
→ 안정 18.4% (매우: 1.7% + 안정적인 편: 16.7%)

→ 불안정 43.5% (매우: 6.7% + 불안정한 편: 36.8%)

→ 보통 37.0%

■ 추이비교 및 시사점

❖ 2015년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안보 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다’는 응답은 3.8%p 감소(22.2%→18.4%)한 반면,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4.8%p 증가(38.7%→43.5%)



-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사드(THAAD) 배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반발 및 위협, 나아가 최근 북한의 SLBM 시험발사 등으로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불안정하게 바라보는 의식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추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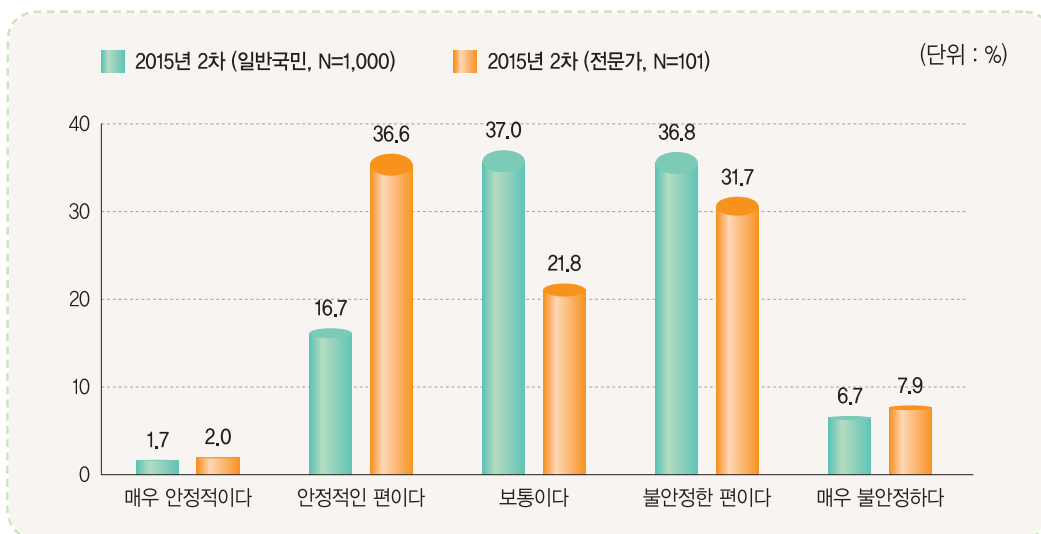
■ 변수별 차이

- ❖ 안보 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다’는 응답은 대재 이상(21.6%), 진보적 이념 성향(22.0%), 학생(26.0%) 응답자 등에서 높고, ‘불안정하다’는 응답은 고졸(48.7%), 보수적 이념성향(49.4%) 응답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
- ❖ ‘안정적이다’는 응답은 통일이 필요하다(20.2%)는 응답자, 통일 후 국가 발전에 공감하는(22.3%) 응답자,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26.6%)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북한을 지원대상(23.3%) 및 협력대상(22.5%)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북한 개혁·개방 가능성이 높다(23.6%)는 응답자, 우리 사회 통일준비가 잘 되어 있다(39.2%)는 응답자, 정부의 통일준비 정책을 인지(25.3%)하는 응답자 등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

■ 전문가 조사

❖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우리나라 안보 상황은 ‘안정’ 38.6%, ‘불안정’ 39.6%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일반국민과 비교하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더 안정적인 것으로 인식

→ 일반국민은 ‘안정’ 18.4%, ‘불안정’ 43.5%



❖ 전문가들의 의견은 1차 조사결과와 큰 차이 없는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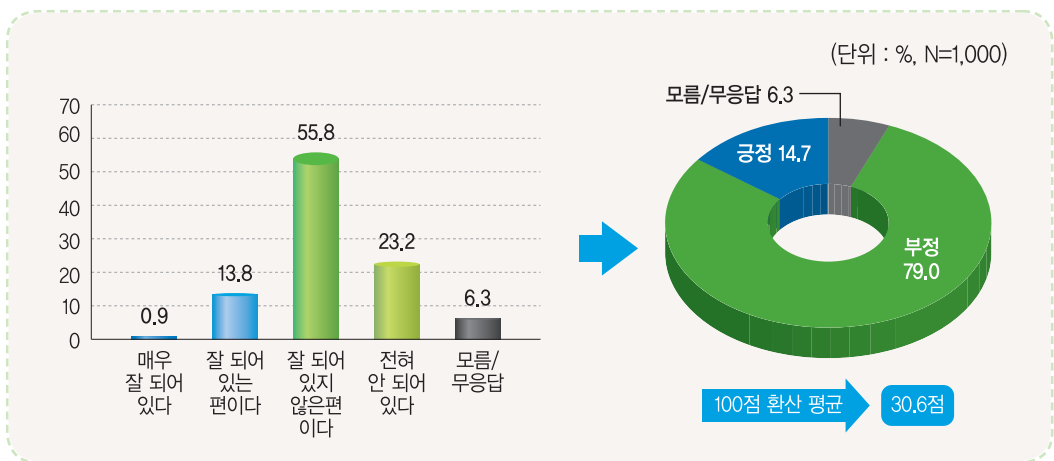
→ ‘안정’으로 보는 인식이 35.8%→38.6%, ‘불안정’으로 보는 인식은 37.6%→39.6%로 큰 변화 없는 것으로 조사

6. 통일준비

1) 우리사회의 통일준비 평가

■ 통일준비 상황, 아직 미흡하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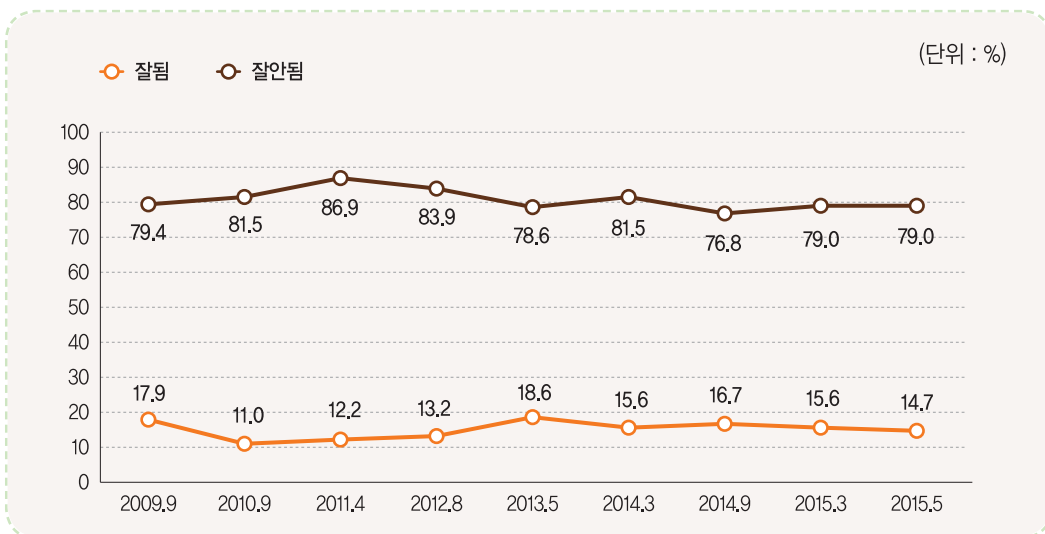
부정 79.0% > 긍정 14.7%



※ 우리사회 통일준비에 대해서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79.0%(전혀: 23.2% + 잘 되어 있지 않은 편: 55.8%), ‘잘 되어 있다’는 응답이 14.7%(매우: 0.9% + 잘 되어 있는 편: 13.8%)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8명 가량은 통일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 통일준비 상황에 대해 미흡하다는 평가 지속

※ 민주평통 통일여론조사가 시작된 이후 통일준비 상황에 대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평가가 5~6년 동안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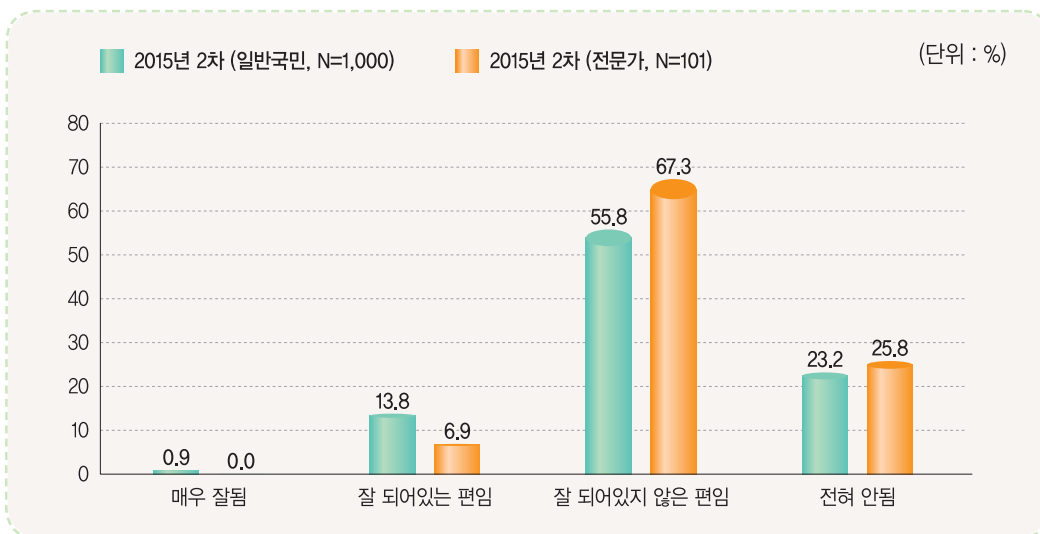
- ❖ 정부 차원에서 통일준비를 본격화한 2014년 이후에도 우리사회의 통일 준비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미흡하다는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통일준비 활동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며, 우리사회의 통일에 대한 우려와 북한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일시에 일어나기 쉽지 않음을 시사
- ❖ 이는 정부의 통일준비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층에서 우리사회 통일준비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에서도 확인 가능
 - ↳ 정부의 통일준비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 중에 우리사회 통일 준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84.1%로 높은 반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0.2%로 낮은 편
- ❖ 따라서 향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준비 활동과 정책 홍보를 포함한 통일기반 구축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성 제기

■ 변수별 차이

- ❖ 통일준비가 ‘잘 되어 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25.8%), 학력이 낮을수록(중졸 이하: 31.8%), 보수적 이념성향일수록(보수: 17.7%), 대구/경북(22.8%) 및 강원/제주(25.2%) 거주 응답자 등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 ❖ 또한 월 소득이 낮을수록(200만원 이하: 24.7%), TV/라디오(21.2%)를 통한 정보 접촉자, 통일 후 국가발전에 공감하는(17.3%) 응답자,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26.2%)으로 보는 응답자, 안보 상황을 안정적(31.4%)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정부 통일준비 정책을 인지(23.0%)하고 있는 응답자 등에서 특히 우세

■ 전문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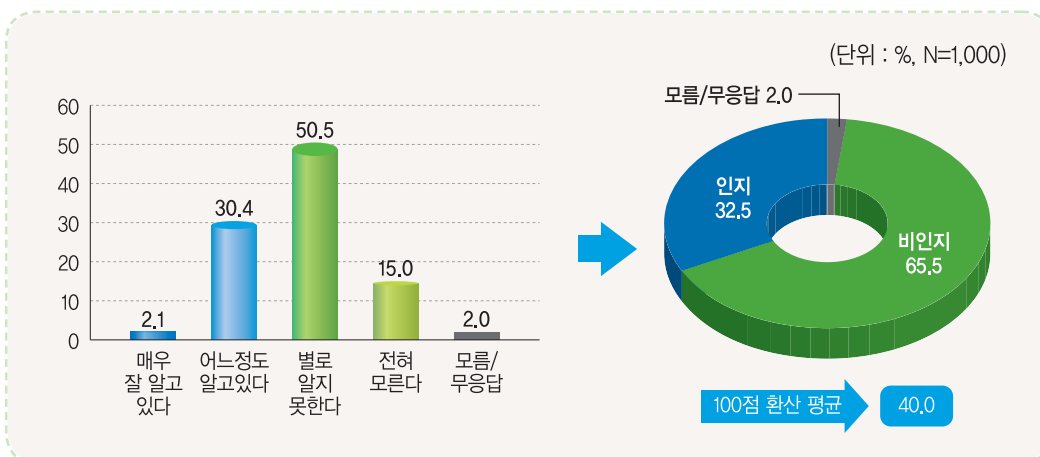
- ❖ 전문가 역시 우리사회 통일준비에 대해 잘 되어 있지 않다(93.1%)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
- ❖ 이러한 전문가들의 상황 인식은 일반국민에 비해 우리사회의 통일준비 상황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
 - 전문가 : ‘잘 되어 있지 않다’ 93.1%, ‘잘 되어 있다’ 6.9%
 - 일반국민 : ‘잘 되어 있지 않다’ 79.0%, ‘잘 되어 있다’ 14.7%
- ❖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우리사회 통일준비 평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큰 변화 없는 것으로 조사



2) 정부 통일준비 정책 인지 정도

■ 비인지 우세

비인지 65.5% > 인지 32.5%



❖ 정부의 통일준비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모른다’는 응답이 65.5%(전혀: 15.0% + 별로: 50.5%)로 ‘알고 있다’는 응답 32.5%(매우: 2.1% + 어느 정도: 30.4%)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의 통일준비가 미흡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과 유사한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

→ 정부가 여러 가지 통일준비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국민들은 자세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

❖ 정부의 통일준비 정책에 대해서 ‘모른다’는 응답은 젊은층(20대 70.7%, 30대 71.8%) 및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75.2%)고 보는 응답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이는 통일에 대한 관심 정도가 통일준비 정책 인지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귀결

■ 변수별 차이

❖ 정부의 통일정책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43.7%), 60대 이상(38.5%), 진보적 이념성향(39.1%), 자영업(42.8%)에 종사하는 응답자, 통일이 필요하다(35.7%)는 응답자, 통일 후 국가발전에 공감(37.2%)하는 응답자, 향후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39.1%)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등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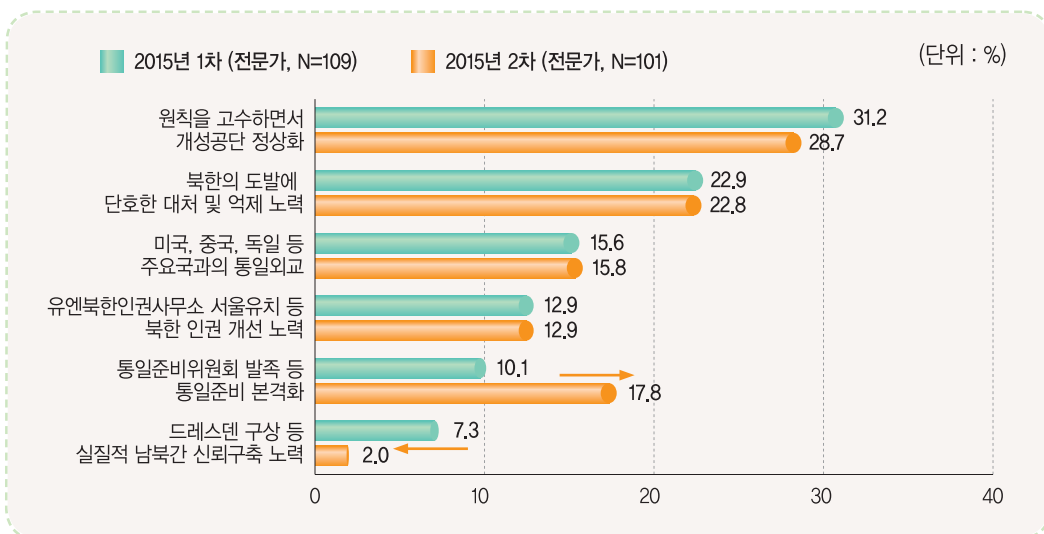
→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76.6%), 20대(70.7%) 및 30대(71.8%), 중도 이념성향(69.0%), 블루칼라(71.7%) 및 가사(77.1%) 직업군의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전문가 조사 : 정부의 통일준비 긍정 평가

❖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중 가장 잘한 일로 ‘원칙을 고수하면서 개성공단 정상화’(28.7%)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북한의 도발에 단호한 대처 및 억제 노력’(22.8%),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통일준비 본격화’(17.8%) 등의 순으로 평가

→ 그 외 ‘유엔북한인권사무소 서울유치 등 북한 인권 개선 노력’(12.9%), ‘드레스덴 구상 등 실질적 남북간 신뢰구축 노력’(2.0%)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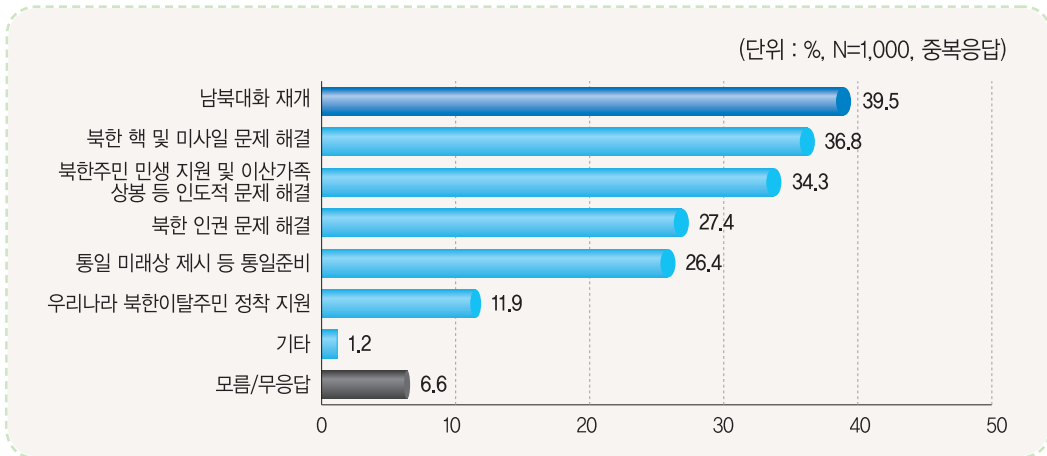
- ❖ 전문가 대상 1차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평가는 31.2%→28.7%로 소폭 감소한 반면, ‘통일준비 본격화’는 10.1%→17.8%로 7.7%p 증가



- ❖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한 평가가 소폭 감소한 데는 2015년 3월 개성공단 임금인상에 대한 북한의 요구가 아직 최종 타결되지 못한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
- ❖ 또한 ‘통일준비 본격화’에 대한 평가가 증가한 데는 통일박람회 준비 등 통일 관련 행사 참여가 활발해지고 통일준비위원회의 공론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부의 통일준비 활동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

3)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남북대화 재개 39.5% ≥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 36.8%
≥ 북한주민 민생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34.3%



❖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우리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해 질문한 결과, ‘남북대화 재개’라는 응답이 39.5%,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 36.8%, ‘북한주민 민생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34.3%로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조사

→ 그 다음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 27.4%, ‘통일 미래상 제시 등 통일 준비’ 26.4%, ‘우리나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11.9% 등의 순으로 조사

❖ ‘남북대화 재개’라는 응답(39.5%)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중국 및 일본 등 주변정세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여 통일에 대비하고 준비하기 위해서 남북교류와 남북관계 개선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

❖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장애물이 되고 있는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36.8%)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

→ 이는 최근 이란 핵협상 타결로 인하여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된 것으로 추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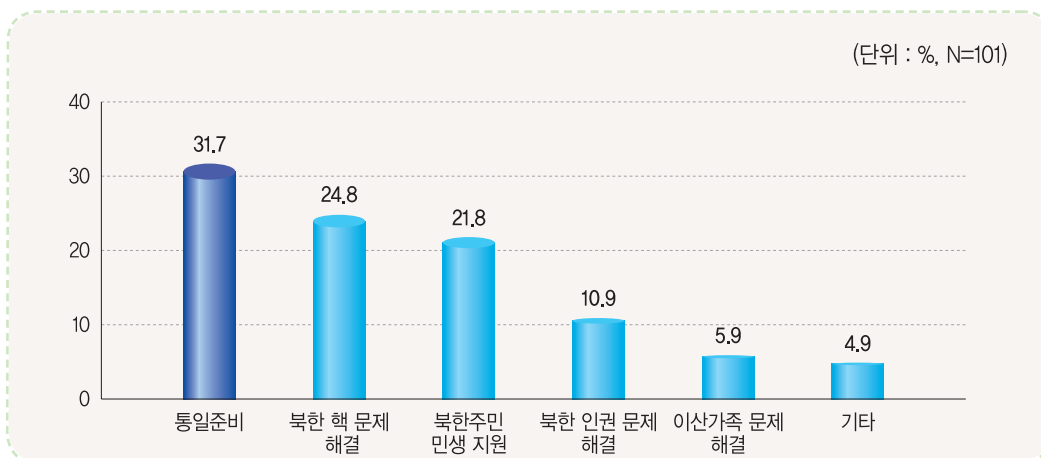
- ❖ 한편, 북한주민의 민생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도 남북 대화와 북핵·미사일 문제 못지않게 중요(34.3%)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보건의료 및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 지원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정부 대북정책의 중심적 과제로 추진 필요

■ 남북대화 선호 변인 : 대전/충청, 고학력, 진보·중도, 화이트칼라

- ❖ 정부가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남북대화 재개’라는 응답은 대전/충청(50.1%) 지역에서, 고학력일수록(중졸 이하: 33.0%, 고졸: 38.4%, 대재 이상: 41.9%), 진보적 성향일수록(진보: 46.6%, 중도: 43.6%, 보수: 32.2%), 화이트칼라(45.4%) 직업군의 응답자에서 높은 것으로 조사
- ❖ 반면,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이라는 응답은 여성(39.9%), 부산/울산/경남(42.9%) 거주, 고졸(43.8%), 보수적 이념성향(44.6%)의 응답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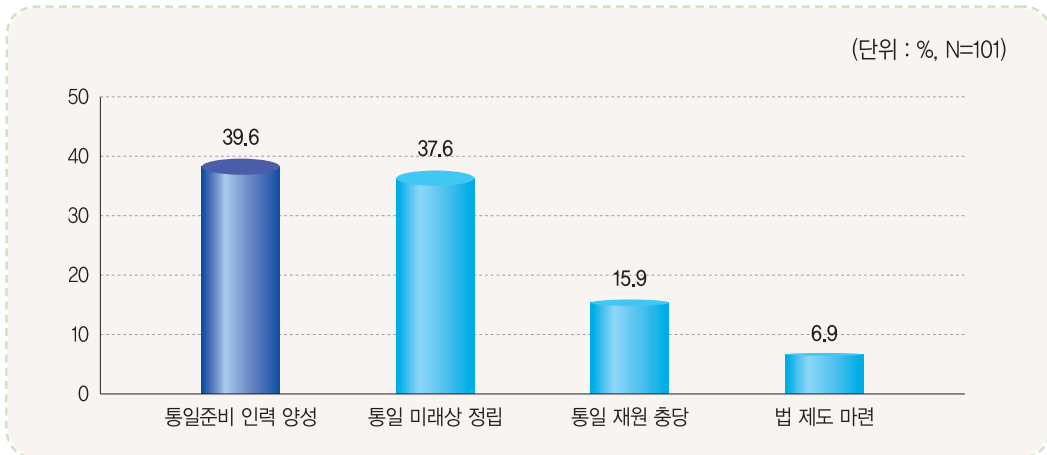
■ 전문가 조사

- ❖ 전문가 조사는 일반국민 조사와 선택지가 다르게 구성되어 있어 직접적 비교는 어려우나, ‘통일준비’(31.7%)의 응답이 가장 많고, ‘북한 핵 문제 해결’(24.8%), ‘북한주민 민생 지원’(21.8%), ‘북한 인권 문제 해결’(10.9%), ‘이산가족 문제 해결’(5.9%) 등의 순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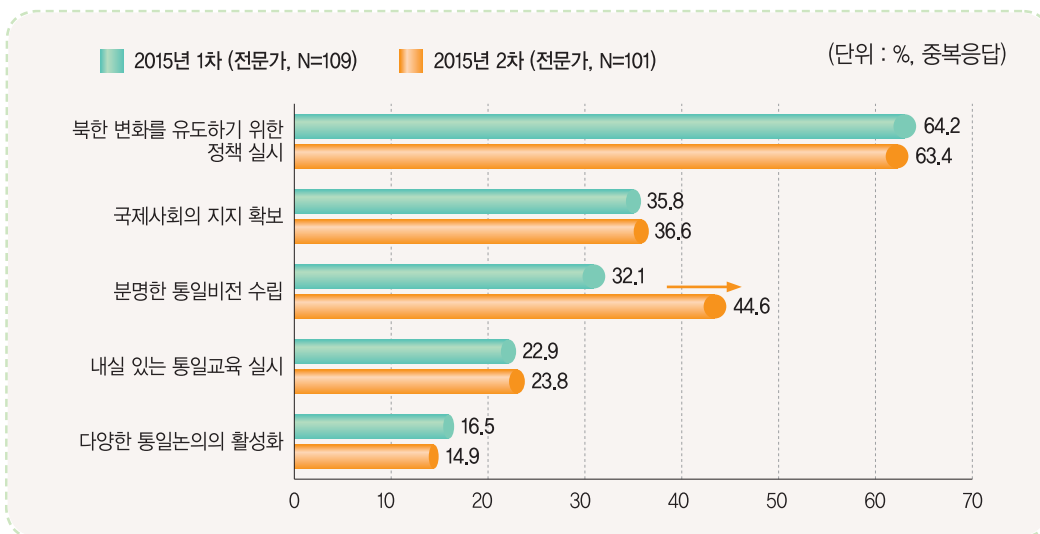


- ❖ 또한 전문가들은 통일준비과정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①통일 준비 인력 양성(39.6%), ②통일 미래상 정립(37.6%), ③통일 자원 충당(15.9%), ④법제도 마련(6.9%)의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내부적으로는 인력 양성과 미래상 정립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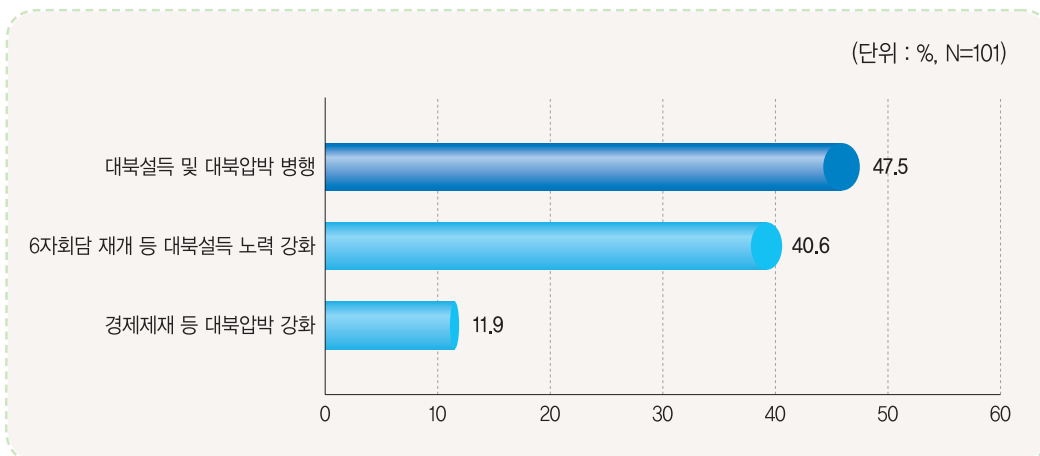
→ 이는 1차 조사와 큰 변화 없는 결과



- ❖ 전문가들은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북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 실시’(63.4%)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분명한 통일비전 수립’(44.6%),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36.6%), ‘내실 있는 통일교육 실시’(23.8%), ‘다양한 통일논의의 활성화’(14.9%) 등의 순으로 언급
- ❖ 2015년 1차 전문가 조사결과와 비교해 보면 ‘분명한 통일비전 수립’이라는 응답이 12.5%p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명확한 통일비전 수립에 대한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음을 시사



❖ 또한 전문가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 ‘대북설득 및 대북압박 병행’(47.5%)을 1순위로 주문하였으며, ‘6자 회담 재개 등 대북설득 노력 강화’(40.6%), ‘경제제재 등 대북압박 강화’(11.9%) 등 전반적으로 압박보다는 설득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 그러나 이러한 정책주문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가능성은 낮게 평가

→ 전문가의 경우, 6자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낮다’(70.3%)고 평가

→ 6자회담의 개최 가능성 ‘높다’는 응답은 29.7%

❖ 전문가들은 개성공단사업에 대해 북한이 향후 ‘현 상황을 유지’(64.3%)하려 하겠지만, 현재보다 ‘위축’(4.0%)시키려고 하기보다는 ‘활성화’(31.7%)시키려고 할 것으로 평가

→ 이러한 평가를 고려하면 남북관계 개선 및 돌파의 공간으로 개성공단 활용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해석 가능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2014년 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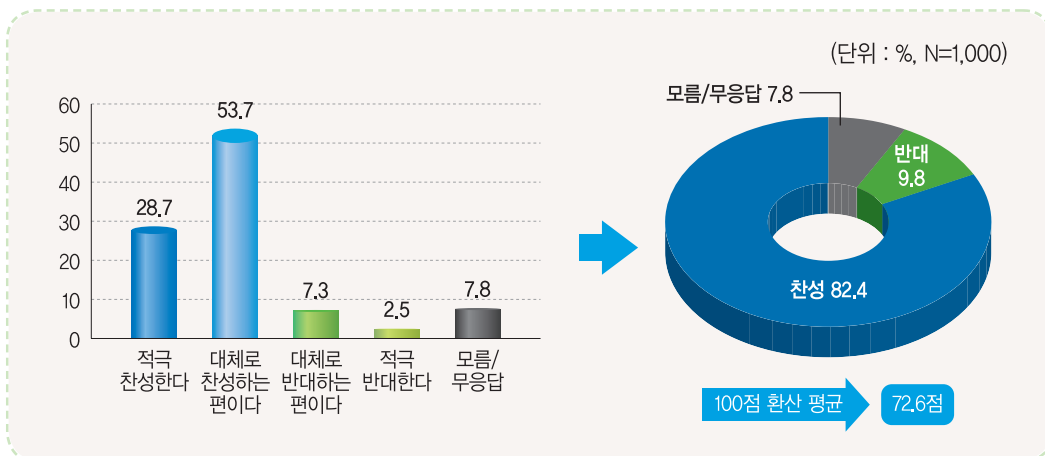
❖ 전국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최우선시 해야 할 바람직한 대북정책에 대해서 ‘북한 개혁/개방, 인권개선’이라는 응답이 31.3%, ‘남북교류협력, 대북지원’ 19.8%, ‘북핵 중단 국제협력’ 18.5%, ‘적극적 통일 정책, 자원준비’ 16.3%, ‘평화협정체결’ 14.2% 등으로 조사

■ KBS 남북교류협력단 국민통일의식조사 (2014년 8월)

❖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일을 위해 남한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이라는 응답이 40.3%, ‘이산가족 왕래 및 고향 방문’ 40.0%, ‘문화 교류 및 인적 교류’ 37.4%, ‘남한의 경제성장’ 21.3%, ‘군사적 신뢰 구축’ 19.4%, ‘남북정상회담’ 13.9% 등의 순으로 응답

4)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기본원칙의 통일추진 찬반

찬성 82.4% > 반대 9.8%



-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원칙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82.4%(적극: 28.7% + 대체로: 53.7%)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9.8%(적극: 2.5% + 대체로: 7.3%)로 매우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 ❖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이 통일한국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

■ 변수별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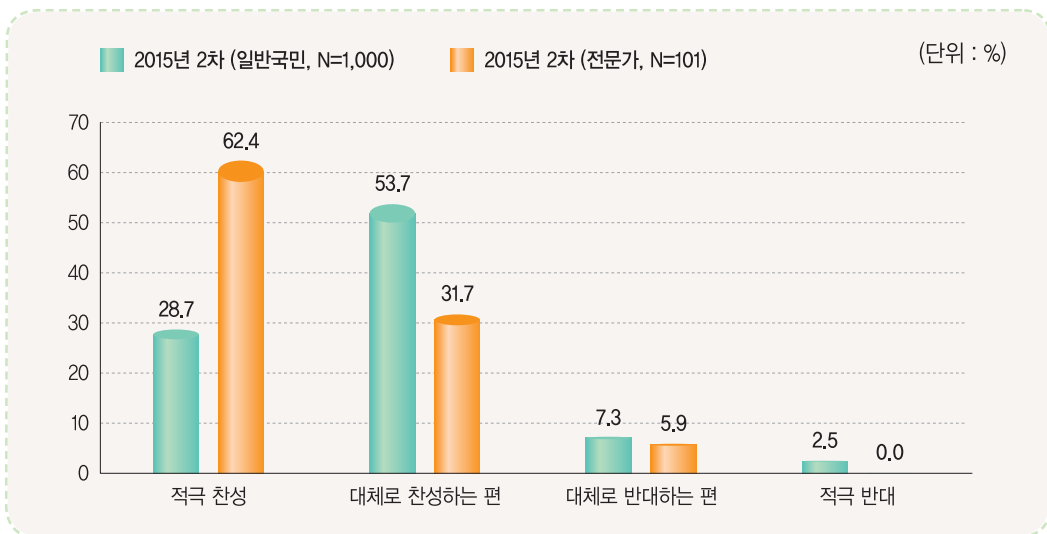
-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원칙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남성(86.8%),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86.1%), 농/임/어업(85.5%) 및 자영업(87.8%) 그리고 화이트칼라(88.6%)에 종사하는 응답자 등에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
- ❖ ‘반대한다’는 응답은 여성(11.7%), 연령이 낮을수록(20대: 14.8%)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 전문가 조사

❖ 전문가들은 일반국민에 비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본원칙에 입각한 통일 추진을 찬성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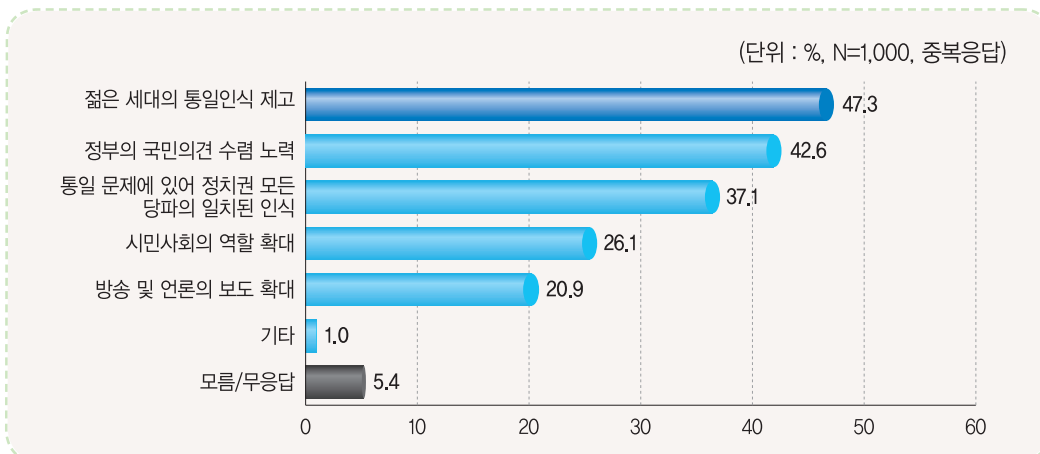
→ 일반국민 응답자의 82.4%가 찬성한데 비해, 전문가의 경우 94.1%가 찬성하고 있어, 전문가 응답이 11.7%p나 높은 것으로 조사

→ 찬성의 강도에 있어서도 일반국민은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53.7%)는데 다수가 동의한 반면, 전문가들은 ‘적극 찬성한다’(62.4%)는 강력한 의견 피력



5) 통일 미래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47.3% >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노력 42.6%



- ❖ 통일 미래상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노력’ 42.6%, ‘통일 문제에 있어 정치권 모든 당파의 일치된 인식’ 37.1%,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 26.1%, ‘방송 및 언론의 보도 확대’ 20.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 ❖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
- ❖ 따라서 통일 미래상에 대한 우리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확대가 시급
- ❖ 또한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노력’ 및 ‘통일 문제에 있어 정치권 모든 당파의 일치된 인식’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사항으로써 통일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여야 간 합의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주문인 것으로 해석 가능

■ 전문가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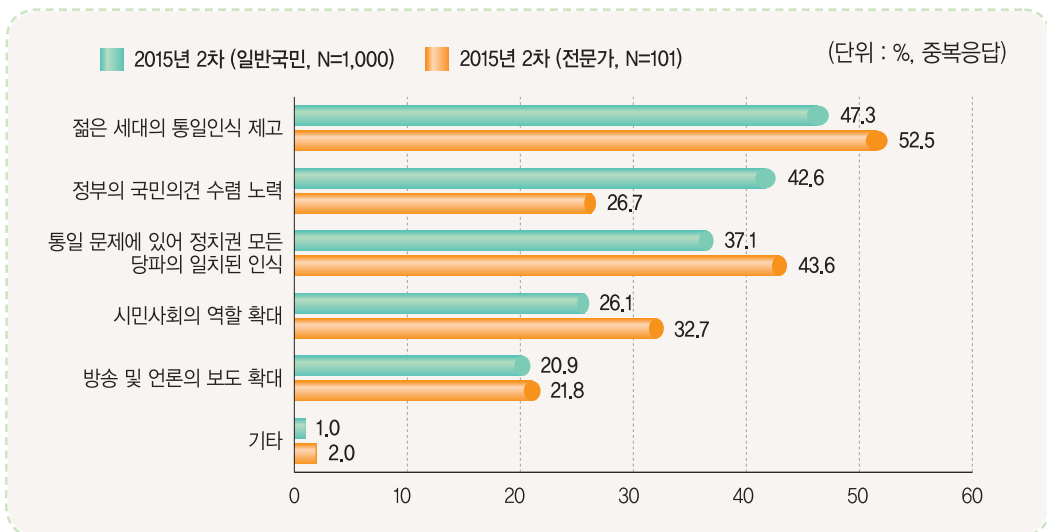
❖ 전문가들은 통일 미래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52.5%)를 가장 많이 언급했으며, ‘통일 문제에 있어 정치권 모든 당파의 일치된 인식’ 43.6%,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 32.7%,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노력’ 26.7%, ‘방송 및 언론의 보도 확대’ 21.8% 등의 순으로 응답

❖ 일반국민 대상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했으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노력’보다는 ‘정치권의 일치된 인식’과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

→ 일반국민은 ‘정치권의 일치된 인식’에 대해 37.1%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43.6%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일반국민보다 높게 조사

→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노력’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의 응답이 42.6%인 반면, 전문가들은 26.7%가 응답하여 일반국민보다 15.9%p 낮게 조사

→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일반국민이 26.1%로 응답한 반면, 전문가들은 32.7%로 일반국민보다 6.6%p 높게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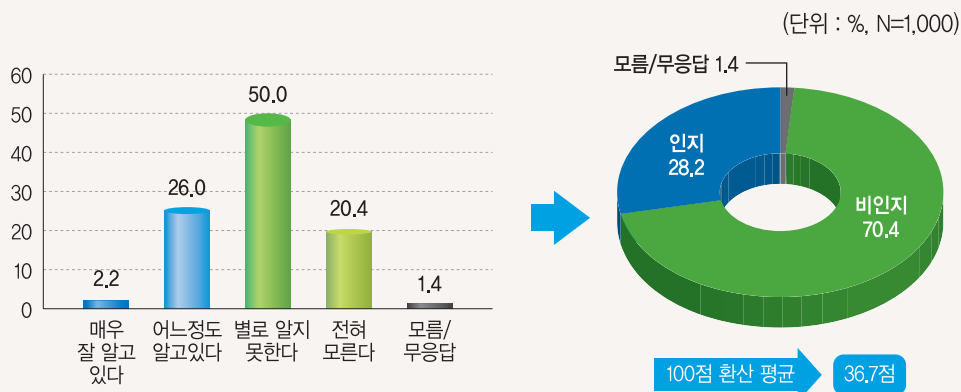
- ❖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라는 응답이 일반국민과 전문가 조사 모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이 낮다는 점에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의 확대가 시급함을 시사
- ❖ 또한 ‘통일 문제에 있어 정치권 모든 당파의 일치된 인식’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된 통일정책이 추진되어야 통일 미래상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음을 시사

■ 통일연구원의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2014년 9~10월)

- ❖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일 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위한 주요 사안에 대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 향상’이라는 응답이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여야 정치권의 대북정책 합의’ 20.7%,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 강화’ 20.5%, ‘통일교육의 사회적 확산’ 14.0%, ‘언론의 통일지향적 보도’ 0.9% 등의 순으로 높게 조사

6)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인지 정도

비인지 70.4% > 인지 28.2%



- ❖ 우리정부의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 정도를 살펴 보면 ‘모른다’는 응답이 70.4%(전혀: 20.4% + 별로: 50.0%), ‘알고 있다’는 응답은 28.2%(매우: 2.2% + 어느 정도: 26.0%)로 나타나, 응답자 10명 중 약 7명가량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
-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70.4%)이 다수이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

■ 변수별 차이

- ❖ ‘알고 있다’는 응답은 남성(37.9%), 60대 이상(34.1%),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30.6%), 진보적(33.1%) 및 보수적(32.8%) 이념성향, 농/임/어업(45.5%) 및 화이트칼라(32.8%) 직업군의 응답자 등에서 높은 편
- ❖ ‘모른다’는 응답은 여성(79.6%), 30대(80.0%), 블루칼라(76.9%) 및 가사(82.2%) 직업군의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 정부의 통일방안을 ‘모른다’는 응답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77.3%)는 응답자, 통일 후 국가발전에 공감하지 않는(75.8%) 응답자, 향후 남북 관계가 변화 없을 것(75.5%)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 우리사회 통일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다(73.9%)는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 따라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비전, 정부의 통일노력 등을 대중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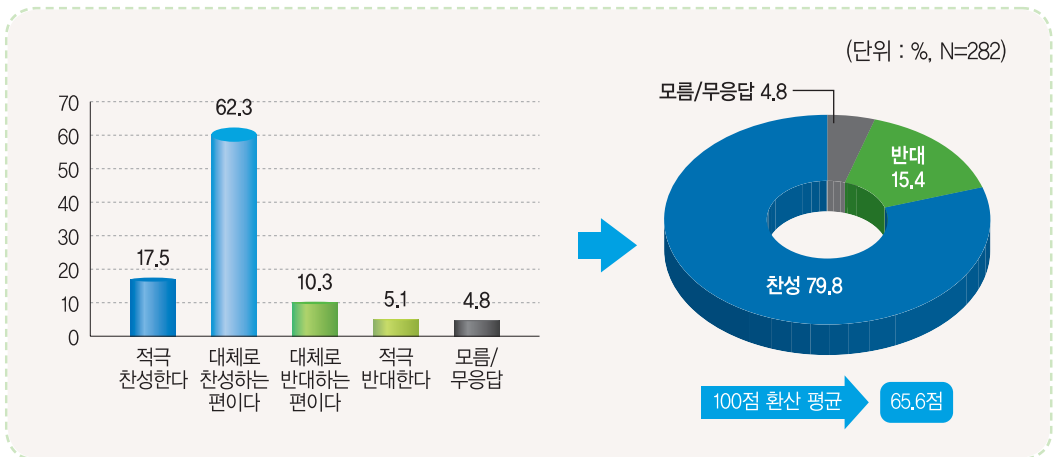
■ 정부의 통일정책 · 방안 개선 필요

-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1994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2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가져야 하며, 왜 이런 문제가 야기됐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 현재 정부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많은 국민들이 잘 알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활발한 홍보 및 교육 필요

- ❖ 그러나 이것이 단지 홍보나 교육의 문제만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명칭이나 내용 등을 명확하고 간략한 형태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

6-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찬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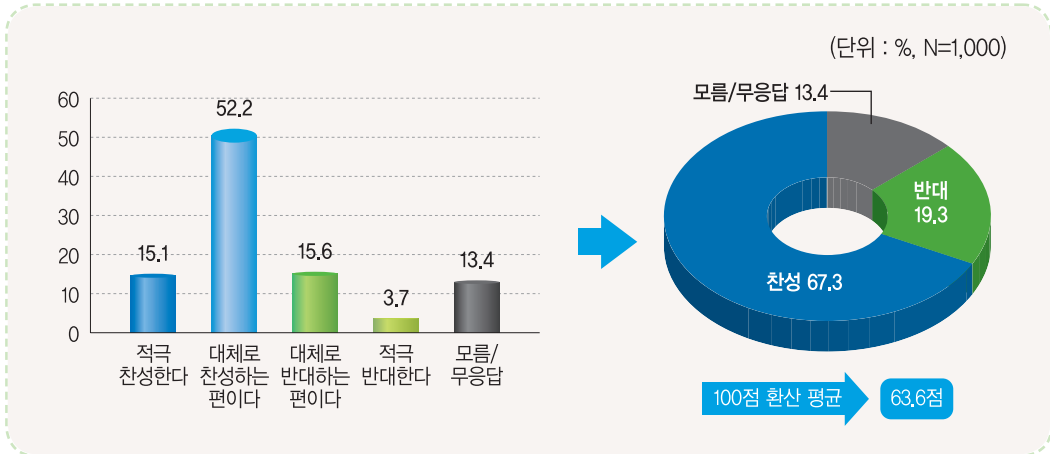
찬성 79.8% > 반대 15.4%



-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N=282)에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이 79.8%(적극: 17.5% + 대체로: 62.3%)로 나타나, ‘반대한다’는 응답 15.4%(적극: 5.1% + 대체로: 10.3%)보다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 ❖ 즉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28.2%) 중에는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표방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라는 것을 시사

7) 정부의 「통일헌장」 제정 찬반

찬성 67.3% > 반대 19.3%



- ❖ 정부가 「통일헌장」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응답이 67.3% (적극: 15.1% + 대체로: 52.2%), ‘반대한다’는 응답이 19.3%(적극: 3.7% + 대체로: 15.6%)로 나타나, 찬성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판단
- ❖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60대 이상: 72.6%), 광주/전라 (78.0%) 거주, 고졸(71.4%) 응답자 등에서 특히 높고, ‘반대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20대: 25.8%),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23.4%), 화이트칼라(27.0%) 직업군의 응답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 전문가 조사에서 ‘반대’(39.6%)보다는 ‘찬성’(60.4%)이 많으나, 일반국민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찬성’은 6.9%p 더 낮은 반면, ‘반대’는 20.3%p 더 높은 것으로 조사
 - 전문가의 경우, 일반국민에 비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두 배 이상 높게 (일반국민: 19.3%, 전문가: 39.6%)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모름/무응답’이 13.4%로 많은 비중 차지

- ❖ 정부가 「통일헌장」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본 조사결과는 통일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한다는 것으로 귀결
- ❖ 이는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층에서 「통일헌장」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결과로도 설명 가능
 -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자의 74.7%가 통일헌장 제정에 찬성한 반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는 45.3%만 찬성
- ❖ 또한 통일준비를 위해 통일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에 큰 이견이 없음을 시사
- ❖ 그러나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방안에 대해 ‘모른다’는 국민들이 65~70%가 되는 만큼 통일헌장 제정 등 통일준비 상황에 대한 자세한 정부의 계획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 필요

3장

통일논의 동향

I. 국내 학계 동향

- | | |
|-------------|----|
| 1. 개관 및 특징 | 71 |
| 2. 학계 동향 분석 | 72 |

II. 국내 언론계 동향

- | | |
|----------------------------|-----|
| 1. 개관 및 특징 | 86 |
| 2. 언론계 동향 분석 | 88 |
| 3. 주요 Keyword로
보는 언론 동향 | 103 |

III. 해외 동향

- | | |
|-------------|-----|
| 1. 개관 및 특징 | 109 |
| 2. 해외 동향 분석 | 110 |

I. 국내 학계 동향

1. 개관 및 특징

■ 개관

- ❖ 본 장에서는 2015년 2/4분기에 통일·북한 관련 주제를 토대로 학회·연구기관·민간단체·정부기관 등에서 주최한 국내·국제 학술회의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학계의 통일논의 동향을 분석

■ 특징

- ❖ 한반도 통일모델로써 독일식 모델과 양안(중국-대만)모델에 대한 논의 진행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학술회의에서는 한반도 통일모델로써 독일식 모델과 양안모델에 대한 논의 진행
 -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한반도 통일모델로 독일식 모델이 적합하고, 양안모델은 부적절하지만, 양안모델의 경우에도 ‘통일준비과정’에서 화해·합작·공영의 유용한 사례라는 점에서는 공감대 형성
- ❖ 학계는 2/4분기에 남북한 교류협력 방안, 동북아 다자경제협력, 통일 이후 교육통합 방안 등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세미나를 활발하게 진행
 - 전문가들은 통일과정에서 경제·보건·교육 분야의 협력이나 통합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했으며, 세부주제로는 통합교육과정 마련, 보건의료협력, 산업협력, 부실채권 관리, 북한기업 정상화 등을 선정
 - 또한 동북아 다자경제협력 방안은 나진-하산 프로젝트, 북한 자원 개발, 남북러 농업협력,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등 구체적 정책방안에 대해 논의

2. 학계 동향 분석

■ 통일 분야 논의

- ▣ 2/4분기 학계에서는 통일 분야와 관련하여 독일식 통일과 양안모델 등 한반도 통일 모델, 통일의 정치적·경제적 효과를 중심으로 한 통일 미래상, 통일준비 등에 관한 세미나 진행
- ▣ 통일준비과정에서 남북한 협력 방안은 산업협력, 부실채권 관리, 북한기업 정상화 등 경제협력 방안과 보건의료협력에 대한 논의 진행
- ▣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 방안은 교육 분야에서 독일모델 분석을 기초로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고, 통합교육과정 모델을 제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형 길 찾기: 독일모델과 양안모델을 넘어’ (4월 14일)

- ▷ 1세션은 ‘독일모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학성 충남대 교수는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와 유럽공동안보’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서독은 국제 환경의 변화와 분단관리정책 및 외교정책의 일관성과 적절성을 통해서 통일을 실현했다고 주장
- ▷ 이동기 강릉원주대 교수는 ‘동독의 민주혁명과 통일’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동독 내부에서 민주혁명이 이루어진 구체적 과정 설명
 - 동독에 사회주의 경제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가 존재했으나, 1989년 혁명의 과정에서 경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거나 자본주의로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과 11월 초까지 서독과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고 주장
 - 당시 동독의 반체제운동은 공산주의 체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제3의 길, 서독과의 내정 통합, 서독과의 완전한 통합 등 6가지 새로운 길을 전제하고 있었으며, 한국도 앞으로의 구체적인 통일과정에서 다양한 길이 제시될 수 있음을 강조

- ▷ 한스 자이텔 재단의 셀리저(Seliger) 박사는 ‘독일 통일의 역량과 쟁점’이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
 - 한국은 이미 독일 통일을 많이 연구했는데 독일의 사례가 한국에 적용될 수 있을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스스로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북한주민들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
- ▷ 2세션은 양안모델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홍규 아주대 교수는 ‘중국의 개혁개방과 양안정책 변화’라는 주제에 대해 발표
 - 김 교수는 “양안관계의 전개는 경제협력이나 접촉의 강화가 반드시 통일에 대한 인식이나 정체성에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
 - 또한 “경제협력이나 접촉의 강화와 경험의 축적은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계 안정에 기여한다”면서 제도적 접촉을 늘려야 한다고 제안
- ▷ 아써 덩(Arthur Ding) 대만 국립정치대학 연구원은 ‘소삼통에서 대삼통으로: 양안교류협력의 현황’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치적 상호신뢰가 없이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전개된 양안관계를 설명
- ▷ 차오치엔민(Chao Chien-min) 대만 중국문화대학 교수는 ‘양안모델의 딜레마-하나의 중국과 대만인’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정치적 관계의 전개 모습에 초점을 맞춰 양안관계를 소개
- ▷ 3세션은 ‘남북-상생공존과 평화통일의 한반도형 모델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으며,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
 -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정권은 한반도 통일이라는 공개적 수사와는 달리 사실상 2체제, 2국가의 공존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주변국들은 현상유지를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
 - 또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동맹국인 미국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독일형과 양안형 등 외국사례보다는 한반도형을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박영호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평화통일의 전망’ 주제발표에서 “시장의 확산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으나 기존 체제의 근본적 성격은 유지하면서 헤쳐 나가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

→ 남북관계와 통일 전망에 대해서는 “북한이 공식적 또는 표면적으로는 통일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제도 통일이 먼 후대의 일이라면서 남북한 공존을 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진단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한국정치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한반도 통일의 모델: 독일과 중국에서 길을 찾다’ (5월 27일)

▷ 민주평통·한국정치학회는 5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남북관계 전문가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통일의 모델: 독일과 중국에서 길을 찾다’라는 주제로 제15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

→ 토론회에서는 독일식 통일과 양안(중국-대만)모델 사이에서 현실적인 한반도 통일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 진행

→ 회의 참가자들은 1세션에서 ‘한반도 통일모델: 독일과 중국에서 길을 찾다’를 주제로 한 발표 및 토론 진행

▷ 염돈재 성균관대 교수는 “독일과 한반도가 통일여건 상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통일의 성과나 편익 측면에서 볼 때 독일 통일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가장 적합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염 교수는 “우리의 통일여건이 독일에 비해 훨씬 열악하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방식을 한반도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북한의 장마당 확대와 휴대전화, 인터넷 보급 확대 등 북한 내부의 변화와 국제정세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여건도 독일과 비슷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 또한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단기적 교류협력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통일 장애요인을 제거해 나가면서 북한의 민주화와 북한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 문흥호 한양대 교수는 “양안모델은 형성과정의 차이, 체제통합과정, 방식, 미래상의 차이 등 남북한 관계와의 근본적 차이점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 모델로서의 적용은 부적절하다”고 지적

- 문 교수는 “그럼에도 양안모델은 ‘통일준비과정’의 화해·합작·공영의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국모델은 상호관계의 규범적 성격, 국제적 지위 등과 무관하게 해묵은 적대관계의 청산과 공존공영을 극대화하는 모델로서의 유용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2세션에서는 종합 및 심화토론에서 현실적 통일방안에 대한 토론 진행

- 중국식 개혁·개방과 일국양제는 북한 변화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최소한의 모델이 될 수 있는지, 중국의 일국양제를 모델로 한 남북연합 구현 방안, 통일준비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을 기본모델로 삼을 수 있는지, 독일 통일모델을 한반도에 적용함에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 토론
- 토론자들은 한국의 특수성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의 차이로 인해 독일과 중국(兩岸관계)의 상황에 비춰 남북관계를 진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우리의 통일에 가장 적합한 통일모델을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공유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 형성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교민족화합분과위원회 주최 2015년 제2차 평화통일 대토론회, ‘8천만이 행복한 통일한국의 미래상’ (5월 19일)

▷ 민주평통 종교민족화합분과위원회는 5월 19일 플라자호텔에서 ‘8천만이 행복한 통일한국의 미래상’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1세션은 ‘통일한국 미래상 -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 및 토론 진행
- 2세션은 ‘통일준비,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종교계의 제언’을 주제로 토론 진행

▷ 1세션에서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경제지표를 중심으로 통일 미래상과 이의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고, 남북 경제통합에 대해 ‘시너지 극대화와 반시너지 최소화’라는 전략 제시

- 김 고문은 “현 수준에서 남북한 경제를 단순 통합하여도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9천 달러에 달하는 국가로써, ‘경제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면 통합 이후 10년 이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하고 G-10 국가에 진입할 수 있다”며 통일한국의 경제적 비전 제시

- ▷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시점에서 통일 미래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북한 핵 문제와 인권 문제 해결, 국가 발전의 동력 확보, 통일준비에 대한 대내외 지지 확보 측면 등과 연계하여 설명
 - 통일한국의 미래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자유·인권·복지·인간존엄성이 구현되는 국가, △제도적·법적 통일과 함께 사회적·심리적 통합을 이룬 국가, △남북한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국가, △비핵·평화 국가 등을 제안하였고, “통일 미래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지속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
- ▷ 김병로 서울대 교수는 통일비전을 ‘분단비용의 극복’(지리적 개방 체제, 안보불안 해소, 공존과 신뢰의 가치 회복 등)과 연계하여 설명하고, 통일방안의 경우,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두려움 해소와 주변국의 현실적 수용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통일국가를 바로 상정하기보다는 우선 ‘남북연합’을 당면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
 - 또한 “남북 간 소통과 교류의 증진, 보편적 가치로서 민주·시장·개방 가치의 견지, 남북 간 통합자산의 확대 등이 통일한국의 미래상 실현을 위해 추구해야 할 원칙과 가치”라고 지적
- ▷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일 미래상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통일 국가의 상, 통일방안을 준비해야 하며,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통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
 - 박 의원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천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활발한 교류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지적
- ▷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개혁·개방이 통일로 가는 첫 단계”라면서 이를 위한 정부·민간단체의 역할 제안
 - 특히 통일과정에서의 탈북민 역할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으로 ‘성공적 정착’을 통한 먼저 온 통일 실현, ‘통일일꾼’으로서 북한의 변화 유도 사업 참여, 정착하지 못한 채 동남아 등에서 고생하고 있는 ‘탈북인들에 대한 구호활동’ 전개 등 제시
- ▷ 2세션의 패널로 참석한 종교계 인사들은 통일 미래상 논의와 통일준비에 대한 각 종단의 입장 발표

- 토론자들은 통일준비가 민족화해와 국민화합의 바탕 위에 바람직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랑과 소통, 종단의 실천 방안 등을 제안
- 아울러 통일준비가 국가적·민족적 화두인만큼, 정부에만 맡겨두지 말고 민간 차원에서의 남북교류·협력 등 보완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
- 특히 종교계는 북한주민의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 형성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과정학회·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 공동 주최 세미나,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방안’ (4월 30일)

- ▷ 한국교육과정평가원·한국교육과정학회·서울초중등남북교육연구회는 4월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회의실에서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
- 세미나에서는 통일 이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점검해야 할 중요한 요소로써 남한과 북한의 교육과정 동향 및 독일 통일 후 교육과정 통합사례 분석
- 또한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며, 통일 직후 과도기와 과도기 이후에 각각 필요한 교육과정 총론, 교과 교육과정의 개발 방향 및 과제 등 모색
- ▷ 김진숙, 박은아, 정채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통일 대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통일과정을 통일 이전, 통일 직후 과도기, 과도기 이후 등 3시기로 구분
- 발표자들은 남북한 교육과정 비교와 통일 전후 동서독 교육과정 비교를 기초로 각 시기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의 방향과 과제 제시
- 발표자들은 통합 교육과정의 가치를 미래성·국제성·특수성으로 제시하고, 교육 목표로써 핵심 역량 중심 교육, 창의성 교육, 글로벌 역량 교육, 공동체 교육, 전인적 성장과 발달 등을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이 지향하는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제시
- ▷ 김창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독일의 동서독 교육과정 통합의 과정과 결과’ 주제발표에서 통일 전 동서독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통일 이후 동독 지역의 교육과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 분석

- 김 연구위원은 “통일 후 신연방주(구 동독)의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구 연방(구 서독)의 교육과정이 기본 모델로 수용되었고, 실제로 구 연방과 유사하게 교육과정이 개발되었다”고 주장
- 동서독 교육과정 통합이 남북한에 대해 교육통합의 방향성 설정, 교육과정 통합의 단계별 추진, 교과별 통합 방안 준비, 북한교육 과정 실태 파악, 통합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서 준비, 교사 문제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
- ▷ 송두록 세현고등학교 교사는 ‘통일 후 다중 남북한 통합 교육과정 운영의 타당성 고찰’ 주제발표에서 동서독 교육과정 통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점진적 교육통합을 주장하는 다중 남북통합 교육과정 비판
 - 송 교사는 “다중 남북통합 교육과정은 남북 교육여건의 동질화를 이루는데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며, “민족통합을 이루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
 - 특히 다중 남북통합 교육과정론자와 단일 남북통합 교육과정론자 모두가 자신들이 추구하는 교육과정에 대한 각론 개발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
- ※ 한국자산관리공사 통일국가자산연구포럼과 통일미래포럼 공동주최 정책토론회, ‘북한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경제 패러다임’ (5월 10일)
 - ▷ 한국자산관리공사·통일미래포럼은 5월 10일 의원회관에서 ‘북한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경제 패러다임’을 주제로 정책토론회 개최
 - ▷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산업 및 기업 실태와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에 대해 발표
 - 이 연구위원은 북한산업은 중공업 중심의 내부지향적 공업화 전략에 따라 금속·화학·기계 등 자본재 중심으로 폭넓은 산업 기반을 구축했고, 경공업 부문은 내수 중심으로 설비나 기술수준이 열악하다고 평가
 - 북한산업은 핵심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할 주력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며, 1998년 산업 생산이 바닥을 친 후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2000년대 부분적 회복 추세를 보인다고 진단

-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산업협력 전략으로는 노동집약적 산업의 우선적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 남북한 지역 간 산업 내 분업구조 구축을 통한 주요 산업 육성, 동북아 교통·물류 관련 산업 육성, 첨단기술 기반 신산업 육성, 서비스 산업 육성 등을 제시
- ▷ 최이섭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연구원은 ‘통일대비 북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
 - 최 연구원은 “북한기업의 부실자산을 공적 AMC로 일괄 이전하면, 약 20조원(추정치)가량의 대규모 부실채권을 전문성을 갖고 신속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강조
 - 또한 “민간 부문에서는 대규모 부실채권을 인수하거나 흡수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며 “기업가치평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철저히 수익성 측면을 강조하는 민간 부문의 특성상, 소위 ‘돈이 되지 않는’ 자산에 대해서는 외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
 - 그러나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예상되는 점은 공적 부문을 통한 부실정리의 단점이라고 설명
 -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약 5년 정도의 기간을 설정해서 초기에는 정부 부문이, 이후 부실채권의 규모측정 및 가치측정을 정확히 하면 자연스럽게 남한기업과 같은 민간 부문이 북한기업의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
- ❖ 정의화 국회의장 주최,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추진을 위한 국회세미나’ (5월 4일)
 - ▷ 정의화 국회의장은 5월 4일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남북한 보건의료 협정 추진’ 주제의 국회세미나 주최
 - ▷ 윤석준 고려대 교수는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 기본방향과 협정안’에 대해 발표
 - 윤 교수는 동서독은 분단시기에도 보건의료 분야에서 양국 정부 간 상호 협정을 체결·유지했다고 설명

- 보건협정의 취지는 동서독 국민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동서독 간 보건 분야 관계조정이 유럽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공헌하고, 1972년 12월 21일 동서독 간 기본조약의 정신과 일치하여 양국 간 정상적 선린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설명
- 통일 이후 동독은 서독 중심의 보건의료체제로 급속히 재편되었으나 통일 이후 혼란 상황에서 사전예방적 프로그램 부족 등 적정한 비용 대비 효과적 보건의료체제로의 수정·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분석
- 즉 동서독 통일 이후 실질적인 수준의 건강 형평성에 도달하기까지 적어도 20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남북한도 통일 이전과 이후 단계를 고려한 장기적인 보건의료 분야 통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

동북아 다자경제협력 방안 논의

- ▣ 전문가들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행하고, 남북러·남북중 등 동북아 국가들 간 다자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나진-하산 프로젝트, 북한 자원개발, 남북러 농업 협력,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 등 구체적인 정책 실행 방안 논의

- ❖ 2015년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공개세미나, ‘동북아 다자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4월 9일)
 - ▷ 통일준비위원회·한국무역협회는 4월 9일 코엑스에서 ‘동북아 다자경제 협력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세미나 개최
 - ▷ 1세션에서 문경연 한국수출입은행 부연구위원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발표
 - 문 부연구위원은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가장 가시적인 사업이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부합하는 사업”이라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하나의 대륙’ 실현을 위한 대륙 연결의 첫 관문”이라고 평가

- 또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발전시킬 5단계 로드맵으로 △1단계: 나진항을 자원수출 대체항으로 활용, △2단계: 컨테이너 중계항으로 사용, △3단계: 러시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및 유라시아 교통물류 인프라 연계성 강화, △4단계: ‘나선 동북아 경제협력 시범지구’로 활용, △5단계: 나진항 4·5·6호 부두 건설을 통한 자유무역항 건설 등 제시
- ▷ 조유현 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유라시아 시대의 나선 산업단지 조성·협력방안’에 대해 발표
 - 조 정책자문위원은 나선개발의 가치는 동북아 시장 진출의 기회 선점, 역외 가공을 통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제고, 제조·물류·관광 다자간 국제협력 도모, 남북경협 활성화로 통일기반 조성 등이라고 지적
 - 더불어 북·중 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한국의 나선산업단지 조성과 협력과제, 기업 진출 전략을 제시
- ▷ 최경수 북한자원연구소 소장은 ‘북한 자원개발사업의 다자협력 방안’에 대해 발표
 - 최 소장은 “중국·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의 북한자원 선점경쟁이 우려된다”면서 “통일한국 시대에 중요한 국부인 북한의 지하자원을 리스크 경감 차원에서 중국이 투자한 북한광산의 지분을 확보하는 등 다자협력을 통해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최 소장은 “북한은 광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중국·일본·유럽 등에 투자를 요청하고 있지만 중국 외에는 성과가 없고, 중국 또한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보다는 무역 거래로 이익을 창출하고 있어 북한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단
 - 단기적으로는 북한 투자경험이 있고 투자환경에 익숙한 중국·러시아 등과 협력하고 다자협력을 확대해야 할 경우 자본력과 기술력을 갖춘 광업 메이저 기업이 있는 캐나다·미국·호주·일본 등과 협력하는 방안을 제시
 - 또한 사업대상인 광물 종류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수입규모가 크고 판매 시장이 다변화되어 있는 철광석·마그네사이트·구리·아연·석탄 등을 선택하고, 핵 문제 해결 등 상황 전개에 따라 전략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희토류·희유금속·금 등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엄구호 한양대 교수는 ‘러시아 극동 남북러 3각 농업협력’에 대해 발표

→ 엄 교수는 러시아 극동 지역에서의 남북러 3각 농업협력은 한국에게 식량기지를 제공하고, 북한에게 식량 안정화와 외화 획득의 기회를 제공하며, 러시아에게는 극동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고 경제 활성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각국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고 주장

→ 남북러 농업협력 입지로는 러시아가 지난 2014년 9월 ‘선도개발지대’로 지정한 아무르주·유대인자치주·연해주 주장

→ 더불어 3국이 ‘남북러 농업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업협력을 추진하고, 남북러 3각 농업협력을 농식품산업 복합단지 형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3국 정부 주도로 ‘영농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

❖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세미나,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정책세미나’ (5월 7일)

▷ 한국철도시설공단·한국정책학회는 5월 7일 프레스센터에서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를 주제로 공동 기획세미나를 개최하고, 통일에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확충과 유라시아 철도 연결기반 등 논의

▷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소장은 ‘유라시아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실현을 위한 철도망 구상 방안’에 대해 발표

→ 안 소장은 “SRX는 단순한 유라시아 지역의 수송회랑 구축”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교통망 구축, 지역 간 이동속도 향상을 통한 경제 활성화 유도, 전략적인 산업거점 형성, 거점 도시의 발달로 인구 유입 증가, 도시 간을 연결하는 메가 시티로의 발전 등의 의미가 있다고 분석

→ 안 소장은 러시아의 철도교통 발전전략 2030,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철도 계획,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 등 주변국의 유라시아 정책을 검토하면서 SRX 구상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동북아 평화협력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연결하는 첫 번째 다자간 협력사업 모델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주장

→ SRX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철도비전 2030 등 동북아 교통물류 협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북한 철도시설 현대화, 남북한 간 표준화 및 공동화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제안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나희승 박사는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에 대해 발표

→ 나 박사는 남북 및 유라시아 철도 이니셔티브의 비전·목표·추진과제를 제시하고,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액션 플랜을 제시

→ 유라시아 철도를 위한 제도 구축 방안과 관련해서 정책 선도, 글로벌 협력,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하면서 ‘유라시아 철도 이니셔티브 추진단’ 조직을 제안

→ 투자재원은 통일기금, 국제협력, 국제금융기구, 대일청구권 등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

■ 북한경제 논의

■ 북한경제 부문에서는 시장화 이후의 사금융 실태, 사기업과 금융의 역할, 북한의 경제·금융 개혁 등에 대한 논의 진행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나우만재단 공동주최 국제학술회의,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6월 10일)

▷ 극동문제연구소·나우만재단은 6월 10일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을 주제로 국제학술회의 개최

▷ 제1회의에서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 국민대 교수는 ‘북한 사금융의 실체’에 대해 발표

→ 란코프 교수는 “오늘날 북한의 공적인 금융시스템은 시장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 20년간 자본주의와 함께 사금융이 번성했으며, 한동안 이러한 구조가 북한경제의 기본적인 니즈를 감당하면서 북한 경제상황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

→ 란코프 교수는 “북한의 공식적인 은행시스템이 시장경제화라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정부금융과 규제제도의 영향권 밖에

있는 소규모의 사금융이 변성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외화거래, 자금대부, 자금이체 등 사금융의 실태 설명

- 또한 “사금융이 변성하는 구조가 북한경제의 기본 수요를 감당하면서 태동기인 사적 경제를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북한경제의 상황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 미무라 마쓰히로 ERINA 조사연구부장은 ‘소규모 사기업 육성과 금융의 역할’에 대해 발표

- 마쓰히로 부장은 소규모 사기업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국가 소유나 협동단체 소유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로 어떻게 사적 소유를 인정해 나가는가가 사기업을 둘러싼 법적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주장
- 마쓰히로 부장은 “최근 금융을 통한 자금회전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주목된다”면서 “이런 변화는 상업은행 설립에서 출발해 사실상 투자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순환구도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지만 아직까지 상업은행을 설립하지 않았다고 지적
- 사금융 시장은 “연 이자율이 50~60%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담보물은 주로 오토바이·냉장고·집 등이며, 채무 불이행의 경우 경찰과 정부 관료가 동원되기도 하지만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

▷ 임을출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북한 비즈니스와 금융’에 대해 발표

- 임 연구실장은 “북한경제는 자금력을 갖춘 돈주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고, 돈주들은 고리대금업 같은 사금융을 발전시켰으며, 전당포 운영 및 아파트 건설 등 다양한 이권 사업에 투자하며 부를 축적하고 있다”고 주장
- 북한이 김정은 시대 들어 추진한 창전동 아파트나 문수 물놀이장 건설 사업에도 ‘돈주’가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시장 발달이 돈주들과 이들을 비호하는 권력층을 형성했고, 이는 충성도와 출신 성분에 기반을 둔 계층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북한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

▷ 제2회의에서 최문 연변대 교수는 ‘최근 북한의 경제·금융 개혁: 함의와 과제’에 대해 발표

- 최 교수는 북한이 “종합적인 가격과 유통, 재정과 세수 및 금융 전반에 걸친 개혁이 동반되지 않으면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효과는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
- 최 교수는 북한의 경제·금융개혁 정책 분석을 기초로 경제개혁 범위의 확대, 수출주도형 산업의 육성, 경제특구·개발구의 성공모델 창출 등 경제개혁 과제 및 상업은행 설립, 외화직불카드에서 북한화폐를 이용하는 현금카드 출시, 국제금융기구 가입 등 금융개혁 과제 제시
- ▷ 가네쉬 타파(Ganesh Thapa, 전 국제농업개발기금)는 ‘북한 내 금융 서비스와 가계대출: 국제 농업개발기금(IFAD)의 사례’에 대해 발표
 - 타파 박사는 IFAD의 대북한 전략은 “주로 작물 회전력 및 다양성을 개선해 고지대와 협동농장 농가의 수입과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다자·양자·NGO 협력을 통해서 북한당국을 대화에 참여시키고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추가적 자금을 지원받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
 - 타파 박사는 “협동농장 대출은 문제없이 실행되어 전액 상환”했고, “가계대출은 매우 성공적으로 80%의 가계가 대출을 받았으며 여성대출이 87%로 상승”했고, “북한 중앙은행이 대출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을 키우고 있으며, 이것이 프로그램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면서 “북한에 프로그램 실행 능력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
 - 그러나 “개인 경제활동의 기회가 많아져야 소득·식량 증대의 강력한 도구인 대출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

Ⅱ. 국내 언론계 동향

1. 개관 및 특징

■ 개관

- ❖ 본 장에서는 2015년 2/4분기에 기사화된 통일·북한 관련 내용을 주제별, 시기별, 유형별, 정보원별로 분석
- ❖ 분석대상은 중앙일간지(조간/석간) 및 통신사 등 16개 언론사의 통일·북한 관련 기사 분석
- ❖ 언론기사 주요동향 분석은 통일여론의 경향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국민 통일여론의 트렌드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실시

■ 특징¹⁾

- ❖ ‘통일’ 문제와 ‘북한’ 문제 기사가 고루 분포
 - 기사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균형 잡힌 보도 경향 뚜렷
 - 남북한 문제, 대외관계를 포함한 남한의 통일정책 및 북한 관련 정보 등 ‘통일:북한’의 기사 빈도는 ‘40:60’으로 보도
- ❖ ‘통일’ 분야는 우리사회의 통일준비와 통일정책을 중심으로 논의
 - 통일준비상태를 진단하고, 현실적인 통일준비 노력의 필요성 제기
 - 주변국의 대북정책(미국의 전략적 인내, 중국의 역할론 등)에 대한 문제 인식, 우리정부의 ‘행동’이 포함된 적극적인 대북정책 추진 주문

1) 2/4분기 언론계 동향은 4.1~6.20 사이의 언론기사를 대상으로 작성

→ 통일정책 관련,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유도탄) 시험발사 성공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및 공동대응책과 관련한 기사의 빈도 증가

→ 6월 23일 서울 유엔 북한인권사무소 개설 내용과 더불어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불참 통보 등 북한의 반발과 관련한 기사가 최근 남북관계의 주요 이슈로 등장

❖ ‘북한’ 분야는 정치 및 군사 기사 중심, 경제 및 사회 기사 보완

→ 북한의 SLBM 발사로 인한 주변국들의 대응 전략과 전 인민무력부장 현영철의 숙청 관련, 소위 ‘공포정치’가 중점적으로 보도

→ 북한 체제 특성상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발언과 현지도도를 중심으로 한 기사 보도

→ 경제·사회 일반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 공식 언론의 원문 소개 수준

→ 5.24 조치 5주년 관련, 5.24 조치의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갑론을박

2. 언론계 동향 분석

■ 주제별/시기별 언론 동향

〈주제별/시기별 기사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1/4분기		2/4분기	
			계 (%)		계 (%)	
통일	남북관계	남북대화, 정상회담	76	1.5	29	0.7
		남북경협	170	3.3	212	5.0
	대남정책	통일정책	89	1.8	112	2.7
	대북정책 기타	통일정책	2,106	41.4	1,314	31.1
		국내 탈북자정책	384	7.6	153	3.6
		대북전단	189	3.7	16	0.4
북한	정치	지도자(김정은 및 가족)	309	6.1	440	10.4
		군사(훈련, 정책)	62	1.2	238	5.6
		핵(6자회담, 미사일, WMD, SLBM)	350	6.9	776	18.4
		대외관계(미/중/일/러/기타)	491	9.7	374	8.8
	경제	경제정책	73	1.4	71	1.7
		시장	38	0.7	36	0.9
		인민생활	41	0.8	55	1.3
		식량	41	0.8	45	1.1
		무역	43	0.8	17	0.4
		경제제재(5.24)	145	2.9	97	2.3
	사회	인권, 탈북자	292	5.7	120	2.8
		보건 의료	42	0.8	23	0.5
		사회통제	20	0.4	9	0.2
	문화체육	행사 등	9	0.2	12	0.3
	기타	조총련, 메르스, 고려호텔 화재 등	115	2.3	77	1.8
계			5,085	100.0	4,226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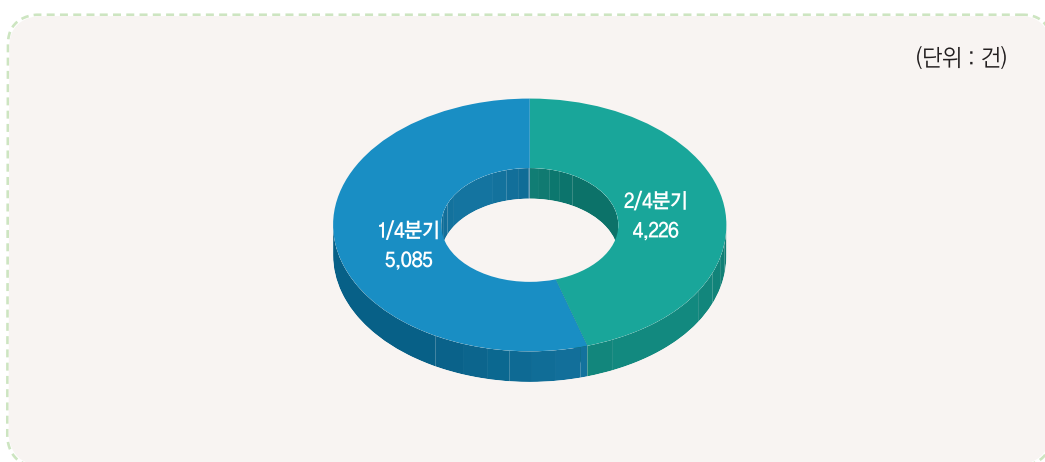
■ 분기별 기사 빈도

❖ 2/4분기 국내 언론에 노출된 통일·북한 기사는 4,226건으로, 1/4분기 대비 859건 감소

→ 주요 원인으로는 시기적으로 광복·분단 70년을 맞아 고조되었던 연초

-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이 2/4분기에는 다소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
- 남한의 통일정책 관련 기사 빈도는 2/4분기 1,314건으로, 1/4분기 (2,106건) 대비 792건 감소
 - 남북관계에 대한 언론의 관심 축소는 남북대화(정상회담 포함) 관련 기사 빈도가 76건(1/4분기)에서 29건(2/4분기)으로 대폭 감소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 가능

〈통일·북한 관련 기사의 분기별 빈도〉



■ 주제별 빈도 I : '통일', '북한' 분야

- ❖ 2/4분기 '통일' 관련 기사의 초점은 1/4분기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통일 준비와 한반도 통일 환경 조성, 남북경협 관련 문제에 집중
 - 남북관계 복원을 위한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
 - 그 중에서 국내 통일준비와 환경 조성, 대북정책, 남북경협 관련 기사가 전체(4,226건)의 43.4%에 해당하는 1,836건 차지
 - 박근혜 정부 출범 3년차를 맞아 통일대박론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남북 간 대화 및 주변국과의 정책 조율의 필요성,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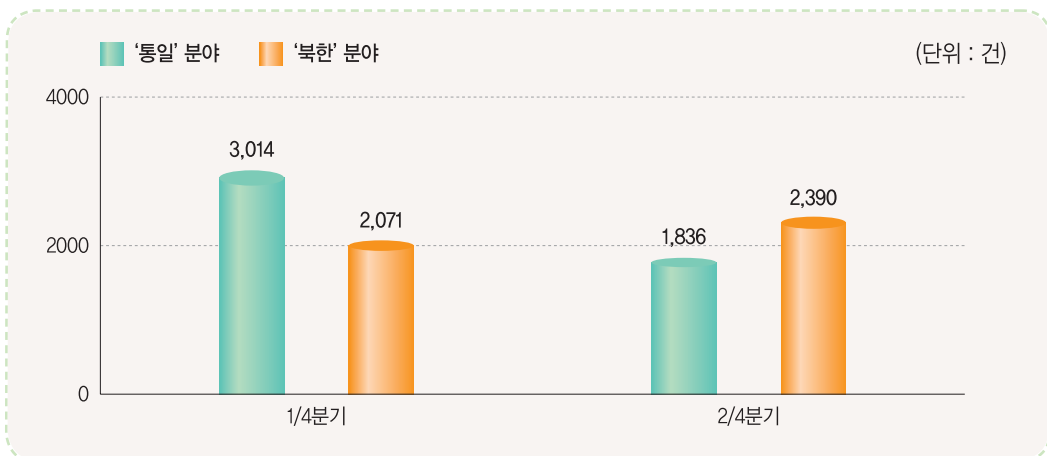
→ 언론계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이제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으므로 시기상조라는 상반된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

❖ 2/4분기 '북한' 관련 기사의 초점은 1/4분기와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에 있어 중요한 변수인 북핵과 이와 관련한 북한의 대외관계,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지속가능성 여부에 집중

→ 특히 SLBM 시험발사로 인한 북핵 문제와 이에 대한 주변국의 반응 및 대응책,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 숙청으로 인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와 관련한 기사가 전체 4,226건 중 43.3%에 해당하는 1,828건 차지

→ 이와 관련하여, 언론계에서는 한미공조를 바탕으로 한 대북억지력 확보 및 급변사태에 대한 철저한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동시에 이를 대북정책 전면에 내세우는 것에 대한 우려 표명

〈'통일', '북한' 분야〉



■ 주제별 빈도Ⅱ : ‘통일’ 분야

❖ ‘통일’ 분야에서는 1/4분기(41.4%), 2/4분기(31.1%) 모두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과 관련한 통일정책 기사가 가장 많은 부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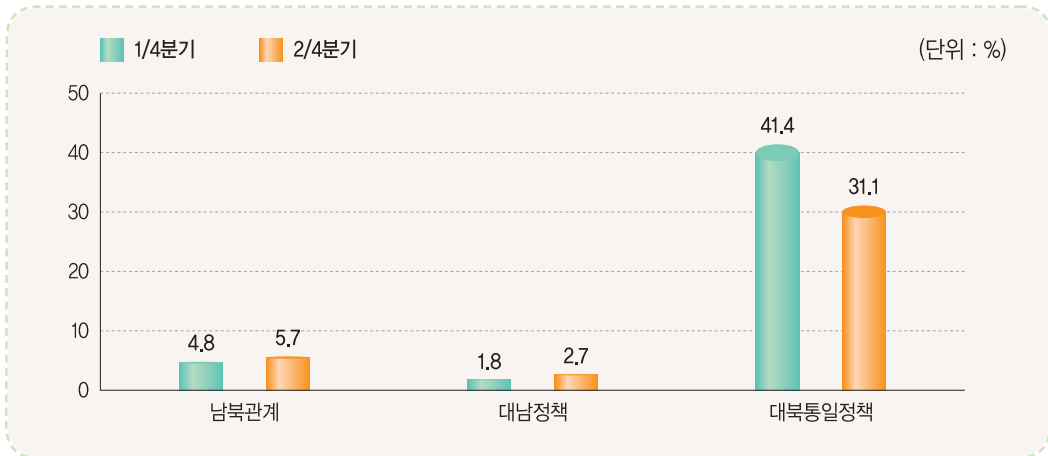
- 국내외 통일기반 조성 관련 기사 중에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 관련 북핵의 소형화·경량화 문제에 대한 한미 간 이견 노출 및 이에 대한 우려, 긴밀한 공조의 필요성 강조에 대한 기사 다수
- 1/4분기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이 통일경제를 중심으로 한 통일독일의 가치와 담론에 대해서 주로 언급한 반면, 2/4분기는 미시적 차원에서 각 분야별 세부통합과 동북아 공동체 형성의 토대가 되는 한반도 통일 등, 우리정부의 통일정책의 무대가 단순히 한반도가 아닌 동북아와 세계임을 역설
- 5.24 조치 이후 대북 비료 지원이 재개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 기사 보도
- 6.15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공동행사의 추진과 실패,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의 북한 참가 유도를 위한 우리정부의 노력 관련 기사 역시 많은 부분 차지
- 본격적인 남·북·중·러 간 경제협작을 위한 유라시아 철도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던 우리정부의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가입이 북한의 반대로 무산된 사실 지적
- 탈북자정책과 관련, 탈북자의 취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정착 성공사례 소개, 탈북자 병역의무 이행 등을 통한 사회통합 관련 기사 보도

❖ 1/4분기에 이어 2/4분기 남북관계 대표 키워드는 남북경협

-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 5.18% 인상 요구, 정부 지침을 어기고 북측에 임금을 지급한 49개의 개성공단 기업체들, 우리정부의 대응과 관련한 남북경협 기사는 전체 4,226개 중 212개(5.0%)를 차지 하여, 통일 분야 중 두 번째로 많은 부분 차지
-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개성공단 내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남측관리위원회에 열감지카메라, 입주기업에 근로자용 마스크 지원을 요청한 사실 주목

- 에볼라 사태 공동대응이라는 전례에 따른 우리정부의 열감지카메라 3대 지원 및 입주기업들의 북측 근로자 대상 마스크 지급 사실 또한 관심

〈‘통일’ 분야〉



■ 주제별 빈도 Ⅲ : ‘북한’ 분야

- ❖ ‘북한’ 분야에서는 1/4분기는 정치면, 그 중에서 대외관계(9.7%)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4분기는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과의 상관관계, 6자회담 재개의 움직임, SLBM 시험발사 성공으로 인한 북핵 탄두의 소형화·경량화 관련 북핵 기사(18.4%)가 가장 많은 비중 차지

- 한·미·일 3국의 압박과 제재를 통한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시도와 6자회담 개별 당사국 노력의 중요성, 제재와 압박의 효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중·러 간의 정책 대립을 지적
- 이 과정에서 지난 5월 9일 북한의 SLBM 시험발사 성공 여부를 둘러싼 각국의 북핵 능력 평가, 대책, 그리고 각종 의혹 관련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
- 북한 SLBM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필요성에 대한 미국의 강조와, 이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에 주목

❖ 5월 러시아 전승절 기념식 참석을 위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 가능성 제기와 취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북 허용과 갑작스러운 취소, 그리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소위 ‘공포정치’ 및 체제 지속가능성 관련 기사가 전체 4,226건 중 440건(10.4%)으로, 두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

→ 티모닌(Timonin) 주한 러시아대사에 의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 가능성 재확인과 푸틴(Putin)-김정은의 양자회담 준비 소식을 근거로 김정은 제1위원장의 방러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었지만, 이를 갑작스럽게 취소,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대리 참석한 일에 대해 언론에서는 내부 불안정 요인에 의한 것으로 지적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개성공단 방북을 하루 앞두고 돌연 방북허용을 취소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국제정세 인식과 변덕스러움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체제 유지의 변수로 지적

→ 현영철 전 인민무력부장의 숙청으로 다시 부각된 소위 ‘공포정치’로 인해 체제 내부의 불안정성 증대, 향후 김정은 체제 지속 여부에 관심

❖ 각종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러관계의 밀월 및 냉각된 북중관계 복원 움직임과 관련한 대외관계 기사가 전체 4,226건 중 374건(8.8%)으로, 세 번째로 높은 비중 차지

→ 우주개발협력 강화, 개성공단 참여 준비, 원유공급선의 다양화, 경제협력 위원회 7차 회의의 평양 개최, 수교 후 첫 북한 문화원 개설, 양국 경제 발전을 위한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해제 요구, 미국의 FIFA 수사를 러시아 월드컵 개최 방해 작업으로 인식 등 북한과 러시아가 정치·군사·경제 등 다방면에서 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 보도

→ 반면, 리진권(李進軍) 주북 중국대사가 부임 3개월째 김정은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냉각된 북중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지적

→ 또한 리진권 주북 중국대사가 말한 ‘구동존이²⁾’는 북중관계가 전통적 혈맹관계 대신 정상적인 국가관계로 나가고 있는 신호라는 해석 제시

2) 구동존이(求同存異)란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서로 같은 점을 추구한다는 뜻으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처음으로 사용

→ 그러나 중국이 9월 전승절 기념식에 김정은 제1위원장을 공식 초청한 사실을 북중관계의 복원 시도로 보는 해석도 제시

❖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와 김여정의 활동 및 관련 정책도 관심의 대상

→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도 관련 사진과 관련 활동 중에서는 북한 내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다수

→ 현지도는 주로 북한 군사와 인민생활 관련 단위에 집중

→ 해외 언론에 의해 제기된 김경희 독살설과, 이에 대해 우리정부가 부인한 사실 언급

❖ 경제면에서는 북한경제의 중요 변수가 될 유엔의 대북경제제재, 우리정부의 5.24 조치 해제 문제 등이 집중 거론

→ SLBM 시험발사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 주도로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검토 중에 있으며, 위반사항 적발 시 추가 경제 제재의 가능성 시사

→ 5.24 조치 5주년을 맞이하여 남북경협이 걸림돌인 5.24 조치 해제를 주문하는 기사가 다수인 가운데,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칼럼 및 기사도 게재

→ 미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유엔회원국 중 80% 이상이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유엔 대북경제제재의 효용성에 대한 문제점 지적

❖ 사회면에서는 북한 인권 및 탈북자 관련 기사가 높은 비중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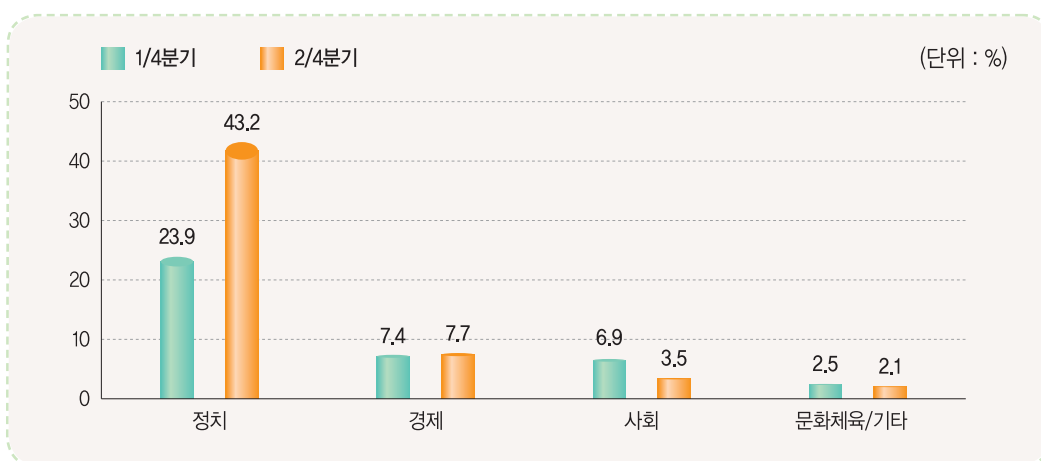
→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와 관련, ‘현대판 노예’로 불리고 있는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인권 침해 실태, 유엔인권사무소의 서울 개소, 국회 내 북한 인권법 패스트트랙³⁾ 검토, 국내외 대북인권단체들에 의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국제형사재판소 제소, 미국 정부에 의한 북한 인권 실태 비난 등, 그리고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주로 보도

3) 패스트트랙이란 국회선진화법에 명시된 안전신속처리제를 의미(국회는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는 안전신속처리제도를 두었는데, 이는 재적 과반수 요구로 발의하며, 이후 재적 5분의 3 이상이 찬성으로 가결 시 의장이 해당 안건을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

❖ 기타, 이 외에도 다양한 주제의 기사 보도

- 조선총련 결성 60주년 기념식, 일본 정부의 조선총련 의장 허종만 자택 압수수색, 송이 수출 개입, 핵·미사일 기술 전문가 접촉 관련 허종만 차남 체포 등을 기사화
- 한국전쟁 당시 미국의 세균전을 다룬 ‘한국과 중국에서의 세균전에 관한 국제과학위원회의 사실 조사 보고서(일명 니덤 보고서)’ 소개
- 그 외 고려호텔 화재, 문경 세계군인대회의 북한 참가 여부, 유엔에서의 북한 경제·사회·인구·보건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통계조사 최초 실시, 국민안전처에 의한 백두산 폭발 시 남한 경제 피해액 추정(최대 11조 1,900억 원), 북한의 메르스 방지 노력 등의 내용 기사화

〈‘북한’ 분야〉



■ 주제별 빈도 IV : ‘통일-남북관계’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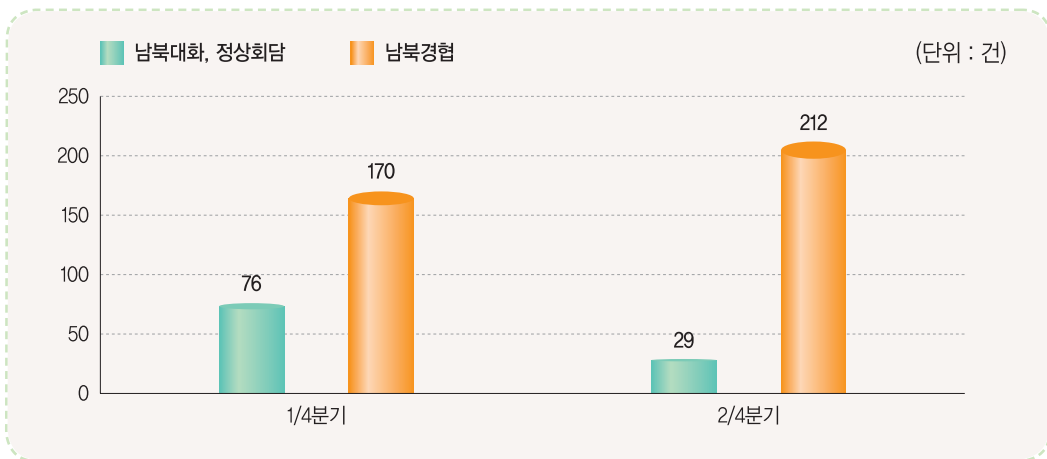
❖ 1/4분기에 이어 2/4분기 ‘남북관계’ 분야 최고 관심사는 남북경협

- 개성공단 임금인상 문제를 둘러싼 남북 정부와 개성공단 기업체들 간의 공방, 공단의 안정적 운영 문제 등 제도적·정치적 해법에 대한 기사를 중심으로 보도

→ 메르스 사태로 인하여 북한은 열감지기카메라와 마크스 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우리정부가 열감지기카메라 3대를,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북측의 근로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한 사실 보도

❖ 6.15 공동선언 15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 협의과정과 무산,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단일팀 무산, 대회 참가를 위한 북한의 사전회의 참석과 이후 참가 무산 등이 남북대화 관련 기사의 주요 내용

〈‘통일-남북관계’ 분야〉



■ 주제별 빈도 V : ‘통일-대남정책’ 분야

❖ 북한의 대표적 대남정책은 1/4분기 김정은 육성신년사에서 의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 및 2/4분기 북한 정부 성명으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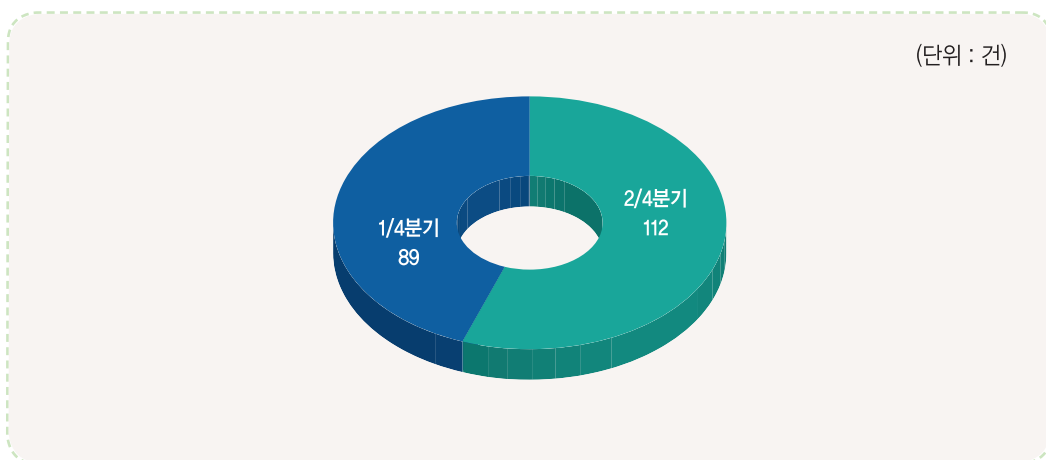
→ 6.15 공동선언 15주기와 8.15 광복 70년 공동행사 합의와 무산,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사전회의 참석차 방남 관련 내용이 다수

→ 북한에서는 노동당 지시에 따라 지난 3월부터 남한에 가족 및 친척이 있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실시했으며, 매달 이들에게 흰 쌀, 계란, 기름, 고기, 술, 양복 옷감 등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주목

→ 한미 간의 사드 배치 논의 비난, 세월호 1주기 우리정부 성토, 성완종 리스트 비난, 통준위 중심의 흡수통일 논의 비난을 비롯하여, 박근혜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일방적인 원색 비난을 하는 등 지속적인 대남 비방·증상을 지적

〈‘통일-대남정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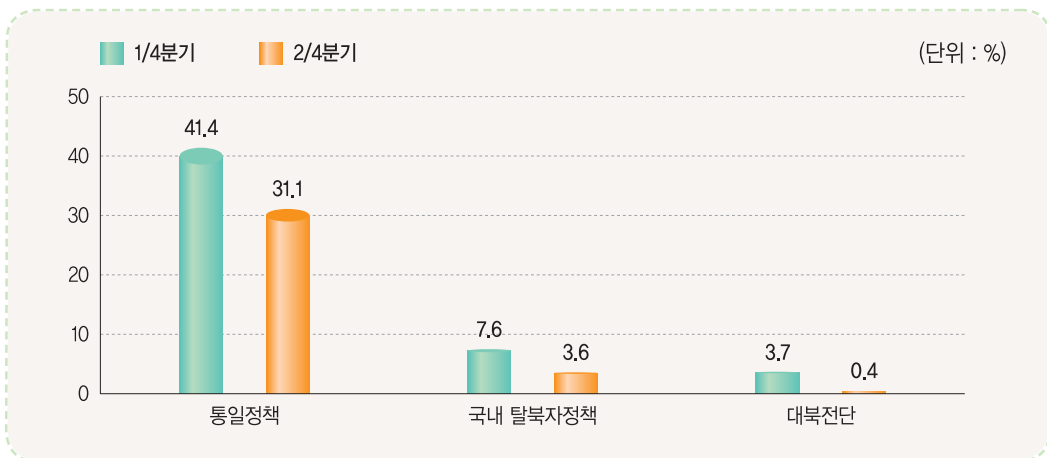


■ 주제별 빈도 Ⅵ : ‘통일-대북정책’ 분야

- ❖ 1/4분기 외교안보 분야의 관심은 사드 배치 문제였지만, 2/4분기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 관련 우리정부의 대응책에 집중
 - 북한 SLBM 시험발사에 대한 성공 여부와 북한 핵 능력에 대한 한미 간 입장 차이,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주요 내용
 - 특히 미국 정부에 의한 한반도 내 사드 배치의 필요성 제기와, 중국과 러시아의 사드 배치에 대한 우려 및 반대 목소리에 대해 우리정부가 국익을 바탕으로 한 주체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 다수
- ❖ 통일 가교 역할로서의 탈북자들과, 이들의 안정적 자립과 정착을 위한 탈북자정책은 우리정부 대북정책에 있어서 여전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
 - 탈북자들의 성공적 정착사례 제시와 탈북자들의 남한 내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실시, 탈북 학생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강화 등을 통해 ‘받는’ 탈북자에서 ‘상생하는’ 탈북자들의 모습 소개

- 탈북 청년들과 주한미군 간의 친선 축구경기를 통한 공감대 형성 노력 소개
- 탈북자가 남한주민들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병역의무 이행의 기회를 부여하자는 논의도 제기
- 대북전단 문제는 여전히 향후 남북관계 발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변수임을 지적

〈‘통일-대북정책’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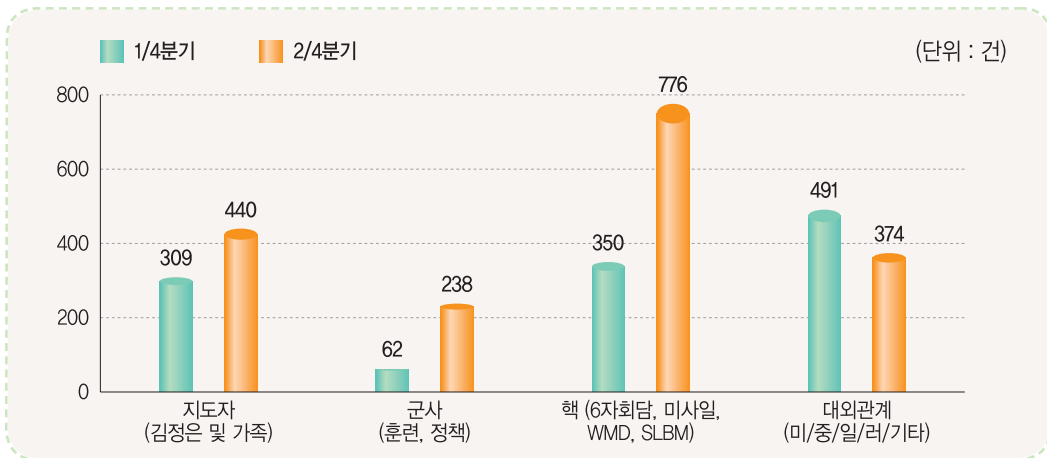
■ 주제별 빈도 Ⅷ : ‘북한-정치’, ‘북한-경제’ 분야

- ❖ 1/4분기 ‘북한-정치’ 분야의 주요 관심사는 대외관계와 김정은 제1위원장 관련 내용이었으나, 2/4분기에는 북핵과 이와 관련한 대외관계, 김정은 제1위원장의 소위 ‘공포정치’ 관련 내용이 다수
 - 북핵과 관련, 북한의 SLBM 시험 발사와 핵 소형화·경량화 등 북한 핵 능력에 대한 주변 각국의 진단과 대응책, 그리고 주변국 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관련 내용이 주요 주제
 - 미국은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경량화 기술에 성공하여 미국 본토를 공격할 발사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고, 그 대응책으로써 우리정부에게 한반도 내 사드 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사실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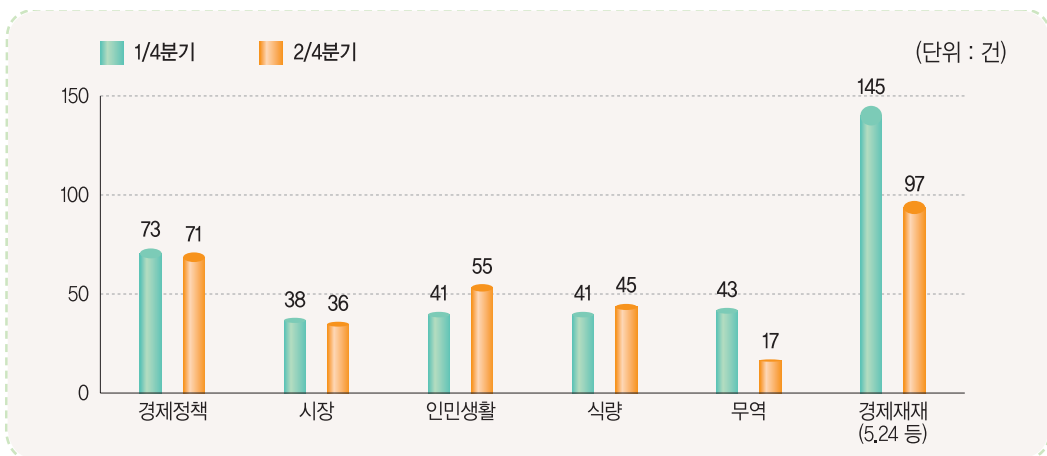
- 전 인민무력부장 현영철 숙청으로 재부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공포 정치’ 관련 내용이 ‘북한-정치-지도자’ 분야의 주요 내용
- 숙청된 현영철 후임으로 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박영식 대장이 임명된 사실 확인 및 보도
- 북러관계의 밀월과 냉각된 북중관계, 9월 전승절 행사에의 김정은 제1위원장 공식 초청에 근거한 중국 정부의 북중관계 복원 움직임 역시 언론의 주요 관심사
- 북한군 10대 병사 1명이 중부전선으로 귀순한 사실과 관련한 기사도 다수
- ❖ 1/4분기에 이어 2/4분기 역시 ‘북한-경제’ 분야는 5.24 조치 중심의 대북 경제제재에 집중
 - 5.24 조치 해제와 유지에 대한 찬반양론이 주로 기사화
 - SLBM 시험발사와 관련, 미국 정부 주도의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여부가 검토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의 가능성 시사에 대해 보도
 - 유엔 대북제재의 일환으로 멕시코 정부의 북한 선박 무두봉호 억류 상황 보도
 - 미국 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로 인한 추가 경제제재 가능성 언급
 - 고려항공과 조선인민군 공군 간의 경계가 사실상 없다는 이유를 들어 고려항공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은 유엔안보리 대북경제제재 위반이라는 주장 게재
 - 공포정치를 일삼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추가 경제제재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미 상원위원회 코리 가드너(Cory Gardner) 동아태소위원장의 주장 보도
 - 유엔회원국 80% 이상이 대북경제제재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미국 회계감사원의 보고서 내용 소개
 - 북한 시장과 인민생활 관련 기사는 빈도는 낮지만 심층분석 기사가 대부분이며, 특히 장마당이 메뚜기장, 달리기장, 똑똑이장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 그 수는 5년전보다 2배로 증가한 사실 보도

→ 해외 언론에 보도된 북한 인민생활 관련 기사에 의하면 평양을 중심으로 주민들 사이에 남한 말투와 노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심지어 남한 말투를 단속해야 할 보안요원들까지도 간혹 ‘파이팅’이라고 외치면 ‘파이팅’이라고 따라 외치는 일이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내용 기사화

〈‘북한-정치’ 분야〉



〈‘북한-경제’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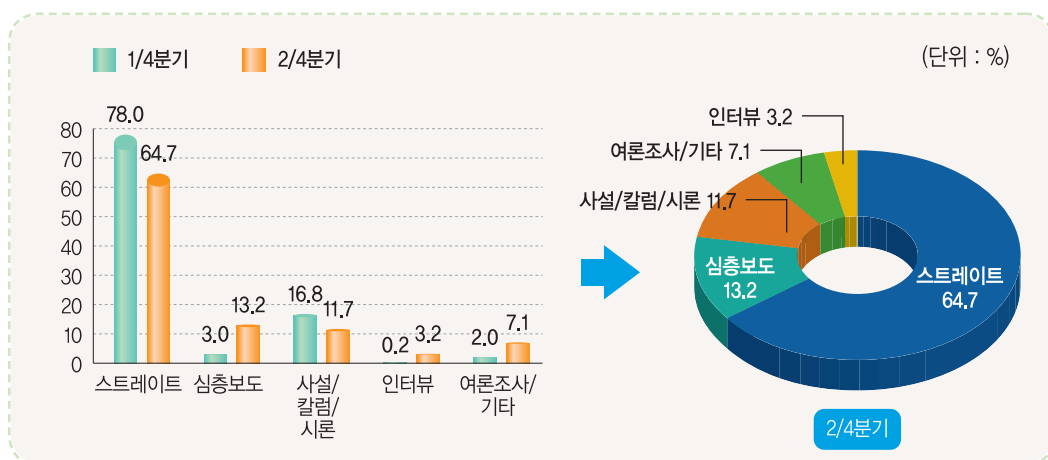


■ 기사의 유형별 분류

❖ 유형별 기사의 특징

- 유형별로는 지난 분기에 이어 2/4분기 역시 사실에 입각한 스트레이트 기사⁴⁾들이 전체의 64.7%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 유형별 기사 분류에서는 1/4분기 대비 2/4분기의 심층보도 빈도 및 비중이 10% 이상 높아졌으며, 그 이유는 1/4분기는 시기적 특징으로 인해 우리정부의 통일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 머물렀다면, 2/4분기에 들어서는 통일정책 방향성에 대한 점검 및 문제점 인식, 실질적 해결책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
- 통일·북한 관련 기사들은 우리를 비롯한 관련국 주요 인사들에 의한 정책 언급과, 이들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관련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을 전망하는 내용이 다수
- 통일·북한 관련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터뷰 수 증가
- 공포정치의 여파로 인해 2/4분기 김정은 제1위원장의 현지지도 및 활동 관련 사진 역시 대폭 증가

〈유형별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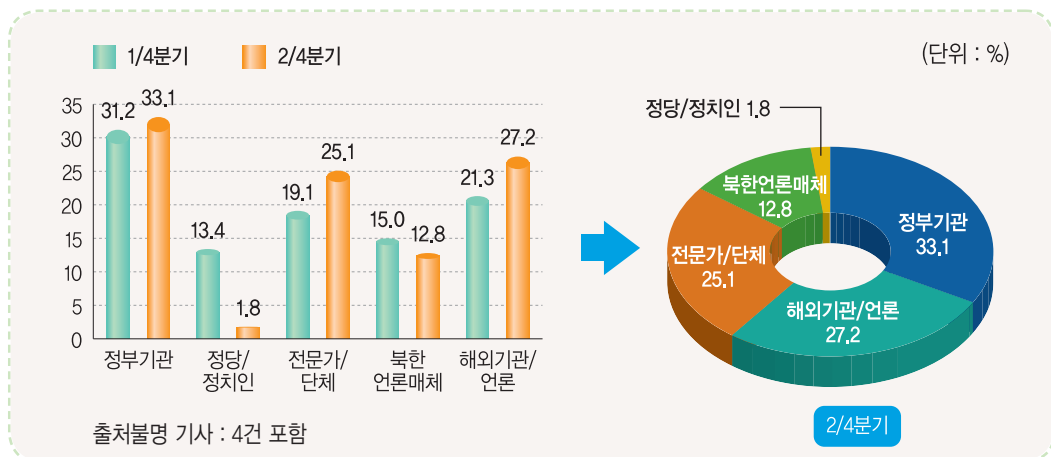
4) 스트레이트 기사란 짧은 분량의 사실에 입각한 보도기사를 의미

■ 기사 정보원별 분류

❖ 기사 정보원별 특징

- 통일·북한 관련 정보는 정부기관에서 생성된 경우가 33.1%, 해외기관/언론(각국 정부 포함)의 경우가 27.2%를 차지함으로써, 1/4분기에 이어 2/4분기 역시 정부기관과 해외기관/언론이 중요한 정보원 역할 수행
- 해외기관/언론 중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한 곳은 미국 정부와 RFA(자유아시아방송), VOA(미국의 소리)로 대표되는 북한 관련 미국 언론사인 것으로 조사
- 해외기관/언론의 비율이 1/4분기 대비 6% 이상 증가한 것은 이란 핵 타결과 북한 SLBM 시험발사 관련 각국의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
- 전문가와 단체(해외 싱크탱크, 민간 연구소·연구원, 국제 NGO 등)는 25.1%로, 정부기관 및 해외기관/언론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정보 제공
- 반면, 정당/정치인들의 역할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이는 정당/정치인들이 4.28 재보궐선거, 메르스 사태 등 국내 현안정치에 집중하면서 통일정책이 관심의 우선순위에서 뒤쳐진 것으로 분석
- 북한의 내부 정책 및 사회 변동과 관련해서는 북한 언론매체의 보도를 인용·제공함으로써 우리와 관련국들의 정책수립 및 정세분석에 유용한 수단으로 작용

<정보원별 분류>



3. 주요 Keyword로 보는 언론 동향

■ 언론이 다룬 주요 심층기사

❖ 북한 시장화(Marketization)⁵⁾

- 북한식 시장인 ‘장마당’이 메뚜기장, 달리기장, 똑똑이장⁶⁾ 등의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고 보도
- 경제난과 부실한 인프라 구축으로 인하여 돈 많은 돈주들이 관료들과 결탁하고, 아파트, 사채, 운송 분야, 임대 등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북한사회 내 금전 만능주의가 심화되는 등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분석⁷⁾
- 국영기업 대신 개인기업을 통해 소비재를 공급하고 있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 주기적 단속은 거의 사라지고, 최근에는 국영기업도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소개⁸⁾
- 북한경제의 시장화가 꾸준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북한주민들은 시장을 통해 소득 획득과 소비 등 대부분의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통일부 ‘북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주민들이 약 80%의 경제활동을 시장에서 하는 것으로 분석⁹⁾

5) 심층기사는 2015년 4월 14일~6월 20일까지 각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북한 시장’ 관련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며, 각 종합 일간지들은 북한사회 전반에 걸친 시장화는 이제 김정은 정권이 되돌리기 어려운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고, 북한 변화의 상징 중의 하나로 ‘시장화’를 집중 조명

6) ‘메뚜기장’은 보자기를 펼쳐놓고 중국에서 건너온 생필품을 파는 이동식 암시장, ‘달리기장’은 허가 받지 않은 장사꾼이 망보는 사람을 심어놓고 단속반이 뜰 경우 바로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형식의 시장, ‘똑똑이장’은 더 비밀스러운 형태로 운영되는 방문판매 형식의 장으로, 주로 한국산 물품을 취급하고 각 가정을 방문해 문을 똑똑 두드려 서로간의 신분을 확인한 후 물건을 사고파는 식으로 이루어지는 북한 시장의 한 형태(출처 : “이동상점 ‘메뚜기장’, 방문판매 ‘똑똑이장’”, 『중앙일보』, 2015년 4월 14일)

7) “북한에도 렌탈시대…시장경제 이행 가속”, 『서울신문』, 2015년 4월 18일

8) “고양이뿔 빼고 다 있다…장마당의 진화”, 『서울신문』, 2015년 4월 25일

9) “北, 시장화 확산…소득·소비 80%가 시장에서”, 『연합뉴스』, 2015년 5월 21일

- 최진욱 통일연구원 원장은 “북한의 급속한 시장 확대가 김정은 체제 위험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¹⁰⁾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6월 10일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김정은 정권 들어 제3차 핵실험에 따른 강력한 대북제재 조치가 취해졌음에도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 비해 고도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이유는 돈주들의 과감한 투자 때문이라고 분석¹¹⁾

❖ 북한 인민생활¹²⁾

- 김정은 제1위원장은 ‘헬로 키티’, ‘푸’를 언급하며 해외 캐릭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으며, 북한에서도 캐릭터 양말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¹³⁾
- 2000년대를 지나 북한에서도 사교육이 불법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하여 부유층 자녀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며¹⁴⁾, 평양에서 최고 인기 학용품은 수지연필(샤프펜슬)이라고 보도¹⁵⁾
- 북한 2,400만 명 중 1%인 북한 특권계층 사이에서는 최근 남한 쿠키밥술이 유행하는 등 남한풍 소비문화를 즐기고 있으며,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것으로 조사¹⁶⁾
- 북한은 남포-평양 간에 관을 연결해 바닷물을 끌어와 수돗물 소독에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염소냄새를 없앰으로써 서울 수돗물보다 평양 수돗물 맛이 더 좋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기사화¹⁷⁾

10) “北 급속한 시장경제 확대, 김정은 체제 위험요소 부상”, 『세계일보』, 2015년 4월 22일

11) “北 경제, 신흥 부유층 ‘돈주’ 수십만명이 좌지우지”, 『한국일보』, 2015년 6월 11일

12) 심충기사는 2015년 4월 10일~6월 10일까지 각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북한 인민생활’ 관련 내용들을 요약한 것이며, 각 종합일간지들은 북한 경제여건 완화로 인해 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한 인민들의 실생활이 자본주의 요소 유입의 영향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있음을 지적

13) “북한 푸 양말 있나?...김정은의 캐릭터 사랑”, 『연합뉴스』, 2015년 4월 10일

14) “탈북 교사의 북한 학교 이야기-북에도 과외, 학원식 ‘개별지도’ 있어...돈 있는 집에서만 몰래해요”, 『조선일보』, 2015년 4월 14일

15) “평양서 최고 인기 학용품은 수지연필”, 『중앙일보』, 2015년 4월 28일

16) “국정원, 北 특권층에 남한풍 소비 유행...쿠키밥술 인기”, 『조선일보』, 2015년 4월 30일

17) “서울 수돗물보다 맛있다는 평양 수돗물의 비밀”, 『동아일보』, 2015년 6월 4일

- 최근 평양을 중심으로 주민들 사이에 남한의 말투와 노래가 빠르게 확산되는 중¹⁸⁾이라는 북한의 현 상황 소개
- 평양 부유층 사이에 커피 마시기가 유행하고, 휴대전화, 수입의류 등의 수요가 늘고 있는¹⁹⁾ 등 북한 인민들의 일상생활 변화 양상이 언론에 자주 등장

❖ 5.24 조치²⁰⁾

- 북쪽은 일방적인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을 철회하고, 남쪽도 5.24 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5.24 조치로 신규 투자가 금지된 상황에서 개성공단을 발전시킬 방안은 없다는 주장 제기²¹⁾
- 중국 외교부가 자체 발행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의 최신호에 실린 “남북관계 제로섬인가 윈윈인가”라는 글에서는 남북관계에서 긴장 정세가 반복되는 원인은 쌍방이 시종 ‘제로섬(Zero-sum)’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있다고 분석하면서 남북관계의 근본적 전환 촉구 및 5.24 조치의 해제 제안²²⁾
- 5.24 조치가 나온 지 5년이 돼가면서 많은 한국인 사업가들이 중국 단둥 지역을 떠나고, 한국인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던 대북무역이 중국인들한테 넘어가 중국 업체만 이익을 보는 상태이며, 결과적으로 북중 경제관계만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진단²³⁾
- 관련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5.24 조치가 대북정책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²⁴⁾

18) “평양에 남한 말투와 노래 인기있네”, 『연합뉴스』, 2015년 6월 9일

19) “북한 평양 부유층 네일숍·커피 즐겨”, 『헤럴드경제』, 2015년 6월 10일

20) 심충기사는 2015년 4월 1일~6월 20일까지 각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5.24 조치’ 관련 내용들을 요약하였으며, 각 종합일간지들은 5.24 조치의 해제의 필요성과 출구 전략 모색을 강조

21) “남북 ‘임금갈등’ 분수령…갈림길에 선 개성공단”, 『한겨레』, 2015년 4월 8일

22) “중국 외교부 학술지, ‘5.24해제’ 촉구”, 『내일신문』, 2015년 4월 24일

23) “한국인 사업가들 많이 떠나…中 업체만 배 불린다”, 『국민일보』, 2015년 5월 18일

24) “5.24조치 5년, 해제수순 밝을 때 됐다”, 『한겨레』, 2015년 5월 23일

- 그러나 예측할 수 없는 김정은 제1위원장의 통치방식이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5.24 조치 해제는커녕 원칙주의 대북기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 제기²⁵⁾
- 현 남북 상황에서 5.24 조치 해제와 같은 전향적 대북정책 모색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변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고 전인해 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역시 제기²⁶⁾
- 5·24 조치 해제의 대전제는 북한의 정상화에 기여하고 북한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급하고 감성적인 대응으로 하나둘 5·24 조치의 벽을 허무는 행동은 북한 페이스에 맞겨들 위험성이 크므로, 5·24 조치 해제는 신중을 기해야 함을 촉구(조영기 고려대 교수)하는 칼럼 게재²⁷⁾
- 남북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여당은 “북한이 변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야당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 우리정부는 북한이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진정성 있게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고 촉구²⁸⁾

❖ 남북관계²⁹⁾

- 남북은 대화문을 열어놓고, 제재 고삐는 조이되 신뢰에 기반한 남북 교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³⁰⁾, 남북협력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접경 지역에서부터의 남북 간 신뢰구축을 제시³¹⁾
- 통일은 대박이기 때문에 통일하자는 계산적 이해만으로는 통일이 되더라도 후유증이 발생할 것,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25) “5.24 빗장’ 해제커녕 더 단한다”, 『국민일보』, 2015년 5월 25일

26) “상황 어려워도 5.24 출구 찾는 노력 포기 말아야”, 『한국일보』, 2015년 5월 23일

27) “對北 5·24 조치 빗장 풀 때 아니다”, 『문화일보』, 2015년 4월 30일

28) “6·15선언 15주년 여 ‘북 변화해야’ vs 야 ‘5.24 조치 해제해야’”, 『조선일보』, 2015년 6월 15일

29) 심층기사는 2015년 4월 1일~6월 20일까지 각 종합일간지에 게재된 ‘남북관계 회복을 위한 국내외 전문가들 의견’을 요약한 것이며, 각 종합일간지들은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우리정부가 ‘행동’이 포함된 적극적인 대북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

30) “이란 핵 협상 타결 이후 ‘북핵외교’”, 『세계일보』, 2015년 4월 8일

31) “남북협력 최우선 과제는 접경 신뢰 구축”, 『서울신문』, 2015년 4월 9일

북한주민의 공감을 얻어낼 수 있고 남북주민 간 마음의 통합도 가능하며, 북한 스스로가 개발을 주도해야 자부심을 갖게 되고 결국 남북 사회통합도 한결 수월해 질 것이라고 분석³²⁾

- 드레스덴 선언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는 북한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함을 강조³³⁾
- 남북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주체적 외교로 민족 활로를 모색함이 필요, 특히 능동적 외교가 긴요함을 주장³⁴⁾
- 미국과 이란 간 직접적 핵 협상의 결정적 계기는 미국 오바마(Obama) 대통령과 이란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대통령의 직통 전화였으며, 이는 양국 정상 모두 국익을 위해 용기를 발휘했다는 사실로 볼 때, 지금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의견 제기³⁵⁾
- 남북 국회의장 회담이 성사되면 남북관계의 물꼬가 트이고 새로운 디딤돌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³⁶⁾
-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재보궐 선거가 끝나는 지금부터 8.15광복절까지가 남북관계를 풀 결정적 시기라고 보도³⁷⁾
- 한반도의 분단이 길어지면 몽골과 내몽골처럼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으로, 지금 한국이 남북화해와 통일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임을 강조³⁸⁾
- 독일 통일의 초석은 대화의 정치를 지속하며 긴장완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³⁹⁾

32) “누가 북한의 윌리엄 클라크 될까”, 『중앙일보』, 2015년 4월 9일

33) “드레스덴 선언 1년 후 남북관계”, 『세계일보』, 2015년 4월 17일

34) “남북대화협력 통해 주체적 외교 펼칠 토양 조성해야”, 『내일신문』, 2015년 4월 22일

35) “남북관계 개선이 돌파구인데...”, 『중앙일보』, 2015년 4월 27일

36) “남북 국회의장 회담하면 남북관계 물꼬”, 『내일신문』, 2015년 4월 28일

37) “남북관계의 ‘시간’”, 『한국일보』, 2015년 4월 29일

38) “갈라진 몽골과 내몽골을 보라 남-북 분단 더 길어지면 안돼”, 『한겨레』, 2015년 5월 21일

39) “독, 통일의 초석은 대화의 정치”, 『문화일보』, 2015년 5월 21일

→ 남북한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결과적으로 남북관계 밖에 없으며, 북한을 설득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려는 노력이라는 큰 틀에서의 신뢰 정치 구현의 필요성 제기⁴⁰⁾

40) “글로벌 워치-캐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남긴 것, 스테판 헤거드”, 『중앙일보』, 2015년 5월 23일

Ⅲ. 해외 동향

1. 개관 및 특징

■ 개관

- ❖ 본 장은 2015년 2/4분기 동안 해외에서 논의된 통일·북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번 분기에도 해외에서는 북한 및 한반도 통일에 관하여 다양한 국제회의 개최
- ❖ 각 국가 내부의 의회 및 NGO 단체들뿐만 아니라 유엔이나 유럽의회 등 국제사회에서도 북한 인권과 핵, 미사일 문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와 비판이 다양하게 제기

■ 특징

- ❖ 2/4분기의 특징은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인권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
- ❖ 1/4분기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드러났는데 비해, 2/4분기에는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도 대북지원, 핵 및 미사일 이슈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확대
- ❖ 2014년 유엔 인권보고서와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으로 인하여 1/4분기에는 북한 인권 관련 회의 및 사이버 테러 관련 논의가 많았지만, 2/4분기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분위기

2. 해외 동향 분석

❖ 미국기업연구소, 이란 및 북한 핵 문제 비교 학술회의 개최 (4월 1일)

- 미국 워싱턴의 보수적 정책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는 4월 1일 ‘이란은 새로운 북한이 될 것인가(Is Iran the new North Korea?)’라는 주제의 학술회의 개최
-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란 핵 협상의 과정을 반영한 이 회의에서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조지 페코비치(George Perkovich) 연구원은 핵 협상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끌어올 필요가 없는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다고 주장
- 이란과는 달리 북한은 정권 생존을 보장하고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용도로 핵무기가 필요하다면서, 북한은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
- 존 볼튼(John Bolton) 전 유엔 대사 역시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이라는 점을 강조

❖ 스웨덴 안보개발정책연구소,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발표 (4월 5일)

- 스웨덴의 대표적 국제문제연구기관인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에서는 최근 ‘북한 인권: 압력과 대화’라는 제목의 보고서 발간
- 이 보고서에서는 국제사회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통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적절한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 또한 COI 보고서에 대해 북한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지만, 북한 체제의 속성상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
- 또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압력과 더불어 북한과 직접 대화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강조

❖ 북미방공사령부 사령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언급 (4월 7일)

- 윌리엄 고트니(William Gortney) 북미방공사령부(NORAD) 사령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우려 표시
- 고트니 사령관은 북한의 이동식 대륙간탄도미사일인 KN-08이 실전 배치되었으며, 핵무기도 소형화한 것으로 평가
-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북한의 핵탄두 탑재 대륙간탄도미사일 실전 배치설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부정하며, KN-08이 실전 배치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설명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중 평화통일포럼 옌지에서 개최 (4월 22일)

- 민주평통은 4월 22일 중국 옌지에서 한중 평화통일포럼을 개최하여 북한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한반도 통일을 위한 한중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
- 이번 회의에는 중국 측에서 진저(金哲) 요령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장, 만하이펑(滿海峰) 요동학원 조선반도연구소장, 진창이 연변대 교수, 파오둥신 연변대 교수 등이 참석하였으며, 한국 측에서는 조봉현 IBK 기업은행 수석경제위원, 김홍규 아주대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최민자 성신여대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 교수 등 참석
- 이 회의에서 한반도 통일이 이룩되면 중국의 동북3성과 북한이 동북아 경제와 평화의 허브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중 경제협력과 비전이 중요함을 강조
- 중국 측 참석자들도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면서 중국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북중관계가 더 이상 특수한 관계가 아닌 정상국가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

❖ 중국의 핵 전문가들, 북한 핵무기 20여개로 추산 (4월 22일)

-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월 22일자 기사에서 중국의 핵 전문가들이 북한의 2014년 말 기준 핵무기 보유량을 20개로 추산하고 있다고 보도

- 중국 전문가들의 이러한 평가는 지난 2월 베이징의 중국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소(CIIS)에서 비공개로 개최된 미국과 중국 전문가 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보도
- 이는 북핵과 관련하여 중국의 정치, 외교, 과학기술 전문가들 및 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로, 당시 중국 핵 전문가들은 미국의 추정치인 10~16개보다 더 많은 핵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
- 이러한 중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내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는 주장 제기

❖ 러시아-북한 경제협력위원회 제7차 회의 평양에서 개최 (4월 27일)

- 러시아는 지난 4월 27일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제7차 러-북 정부 간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위원회 개최
- 본 회의에서 알렉산드르 갈루슈카(Alexander Galushka) 러시아 극동 개발부 장관과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은 에너지, 자원 개발, 인프라, 교육·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담은 의정서에 서명했다고 보도
- 또한 양국은 북한의 고질적 전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러시아 극동 지역 전력을 북한으로 공급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고 보도
-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국영전력회사 ‘루스기드로(RusHydro)’의 예브게니 도드(Evgeny Dod) 사장은 북한과의 협상이 성공적이라고 언급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투자금 회수 방안이라고 지적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불신 표출

❖ 유엔본부, 북한 인권 논의 (5월 1일)

- 지난 5월 1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국과 미국 대표단이 북한의 인권 상황과 관련한 회의 개최
- 이 회의는 북한주민의 자유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2004년 이래 미국과 한국의 NGO들이 개최하고 있는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n Freedom Week)’의 한 행사로써 개최

- 이 회의에서 탈북자들이 증언을 하는 도중 북한 대표단의 리성철 참사관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북한의 주장이 담긴 성명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회의 진행을 방해
- 이에 대해 사회를 보던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가 회의 퇴장을 경고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한 탈북자들도 북한 관리들에게 강력하게 항의

❖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에서 해외 북한 근로자 인권 관련 회의 개최 (5월 12일)

- 워싱턴의 한미경제연구소(KEI)는 5월 12일 해외 북한 근로자 인권과 관련한 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서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윤여상 소장과 이승주 연구원은 ‘인권과 북한의 해외 노동자: 딜레마와 정책도전’라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해외 노동자 파견이 현재 북한 정권의 생명줄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
- 이들이 해외 노동 경험에 있는 탈북자 20명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이 실제로는 계약상 받게 되어있는 임금의 10~20%만을 받게 되며, 나머지 금액은 북한 정권이 가져간다고 발표
- 또한 최근 탈북자 단체가 집계한 수치에 근거하여 북한 정권이 연간 약 12~23억불을 해외 파견 근로자로부터 벌어들인다는 집계를 낸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 마커스 놀랜드(Marcus Noland) 박사는 과장된 수치라고 지적
- 현재 북한은 전 세계 약 40여 개 국에 5~6만 명의 근로자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구체적으로 러시아에 2만 명, 중국에 1만 9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
- 해외 파견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휴일이 주어지지 않고 하루 최고 16시간의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안전장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하는 이유로 부상 자체를 숨기는 일도 많다고 증언
-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미국 NGO 북한인권위원회(HRNC)의 로버타 코언(Roberta Cohen) 공동위원장은 “북한이 이제 인권침해를 수출까지 하고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비난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 관련 회의 개최 (5월 14일)

-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5월 14일, “Russia and the Korean Peninsula: Policy and Investment Implications”를 주제로 하는 회의 개최
- 글로벌평화재단(GPF)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빅터 차(Victor Cha) CSIS 한국석좌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CSIS 러시아/유라시아 프로그램 소장인 앤드류 쿠친스(Andrew Kuchins), 러시아 과학아카데미의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인 알렉산더 제빈(Alexander Zhebin), 프린스턴대 명예교수인 길버트 로즈만(Gilbert Rozman) 참석
- 이 회의의 주요한 관심사는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보여주는 정책과 투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분석하는 것이었으며, 특히 지역통합과 에너지, 인프라 투자 및 외교적인 문제에 초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한미 평화통일포럼 LA에서 개최 (5월 21일)

- 민주평통은 5월 21일 미국 LA에서 한미 평화통일포럼 개최
- ‘한반도 통일과 한미관계: 과제와 비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패트릭 모건(Patrick Morgan)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 데이비드 강(David Kang) 남캘리포니아대 교수, 앤드류 스코벨(Andrew Scobell)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패트릭 크로닌(Patrick Cronin) 신안보센터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Bruce W. Bennett)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등 미국 측 학자들뿐만 아니라, 이정훈 연세대 교수, 김태현 중앙대 교수,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중호 수출입은행 선임연구원 등 참석
- 이번 회의에서는 동북아 평화를 위해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들에 어떠한 편익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며, 북한의 개혁과 개방정책에 대한 평가와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모색

❖ 중국 국방백서, 한반도 불안정이 중국의 안보에 위협임을 강조 (5월 26일)

- 중국 국방부는 5월 26일 발표한 국방백서에서 “한반도와 동북아가 불안정과 불확실함에 휩싸여 있다”고 언급

- 중국이 국방백서에서 한반도 불안정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상황
- 이는 중국이 시진핑 정부 들어 북한의 핵개발과 김정은 체제의 불안이 중국 자국의 안보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

❖ 유럽북한인권협회, 대북원조 관련 보고서 발표 (5월 27일)

-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는 지난 5월 27일 대북원조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북한 당국이 해외원조가 절실한 상태인데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 이 보고서는 북한 내부의 극심한 식량부족으로 현재 미화 6,900만 달러 정도의 식량원조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북한이 유엔의 기본원칙인 ‘모니터링 없이는 원조도 없다(No Access, No Aid)’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원조가 지연되고 있다고 비판
- 북한주민은 현재 국제사회 원조의 분배 사실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원조품의 전용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파악
- 이 보고서는 북한 상황에 대해 매우 비판적 입장으로, 앞으로 ‘모니터링 없이는 원조도 없다’는 원칙을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

❖ 북핵 6자회담국들의 1.5트랙 회의, 동북아시아협력대화 개최 (5월 28일)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남한, 북한 등 북핵 문제의 6자회담 당사국들이 참여하는 반관반민 성격의 대화협의체인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가 5월 28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는데, 북한은 이번 회의에 불참
- NEACD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산하 국제 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안보 관련 관료와 학자들을 초청하여 매년 진행하는 다자간 안보 대화체
- 북한은 2012년 중국 다롄에서 열린 회의에 최섉희 외무성 부국장을 파견했지만, 지난해와 올해 회의에는 불참

- 이 회의는 6자회담의 차석대표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북핵 문제와 북한 문제에 대하여 관련 당사국들의 포괄적인 의견교환 자리로써 그동안 주목 받아온 회의
- 이번 회의에서 한·미·일 3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강화를 주문하였으나,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북한에 대한 압박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북한 압박 강화에 반대함으로써 북한 문제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강하게 존재함을 시사

❖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반도 관련 회의 개최 (6월 3일)

- 워싱턴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6월 3일, “Korea Going Forward”를 주제로 한 한반도 관련 회의 개최
- 이날 회의에는 앤소니 블린컨(Antony J. Blinken) 미 국무부 부장관이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대니얼 러셀(Daniel Russel)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커트 캠벨(Kurt Campbell)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이 참석하여 한미동맹과 북한 문제에 대한 논의 진행
-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한반도를 넘어 사이버 안보, 기후변화 등 글로벌 파트너십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으며,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압박과 억지, 외교적 방안 등 다양한 방식들이 적용되고 있다고 강조
- 북한 문제에 대해 러셀 차관보는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북한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북한의 핵무력-경제 병진노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언급
- 캠벨 전 차관보는 중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처럼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한국’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현재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며, 한반도 평화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분석
- 데이비드 생어(David Sanger) 뉴욕타임즈 워싱턴 지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전 북핵협상 대표, 스티븐 보스워스(Stephen Bosworth)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 1994년 북미제네바 합의의 로버트 갈루치(Robert Gallucci) 미 협상대표, 천영우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이 북한 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

❖ 유럽의회 의원모임, 북한 인권 보고서 발표 (6월 4일)

- 유럽의회 내부의 의원모임인 ‘종교·신념의 자유와 종교적 관용(FoRB &RT)’은 지난 6월 4일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북한에는 종교와 신념의 자유가 없다”며 북한의 종교탄압 상황을 강력하게 비판
- 이 보고서는 “북한의 헌법은 공식적으로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지적하며, “교회와 사찰 등은 관광 명소로만 기능하고 있으며, 5만~7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이 체제위협 세력으로 분류돼 강제수용소로 보내지고 있다”고 언급
- 소속 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된 것을 높이 평가하면서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

❖ G7 정상회담, 북한의 핵, 미사일, 인권침해 비판 (6월 8일)

-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독일 바이에른주 크뤼 지역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공동선언문에서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인권 침해 및 외국인 납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
- 발표문의 북한 관련 문구 : “우리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침해와 외국인 납치뿐만 아니라,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강력하게 비판한다.”
-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G7 정상회담에서 나온 공동성명서와 같이 앞으로도 각종 지역과 국제회의에서 유사한 수준의 엄중한 대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

❖ 로버트 킹(Robert King)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유럽 방문 (6월 15일)

-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6월 1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와 벨기에 수도 브뤼셀을 방문하여 북한의 인권 문제 논의
- 킹 특사는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제26차 정기이사회에 참석하여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지난 2월 발표된 북한 인권보고서에 대한 후속조치 등 의견 교환
- 또한 브뤼셀에서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의 여러 국가 관리들과 만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과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

❖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남북한의 북한인권사무소 관련 논쟁 (6월 15일)

-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이사회 제29차 정기이사회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한국 내 설치에 대하여 북한은 강력 반발
- 김영호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인권의 정치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비판
- 이에 대해 한국의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의 현장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 북한의 인권 실태를 세계 최악 수준으로 평가 (6월 25일)

- 미국 국무부는 지난 6월 25일 발표한 ‘2014 국가별 인권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실태가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고 비판
- 이 보고서는 북한이 “60여년 이상 김씨 일가가 이끌어가고 있는 권위주의 국가이며, 보안군을 통해 통제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
- “북한주민은 자신들의 정부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고,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발언의 자유를 포함해 언론, 집회, 결사, 종교, 노동자 권리 등 많은 측면에서 주민들의 삶을 엄격하게 통제하면서 지배하에 두고 있다”고 비판
- 또한 북한에서는 “무차별적 살인과 실종, 임의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이 지속되고 있다”고 북한을 탈출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으며, 북한의 사법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북한의 인권 상황 고발
- 미 국무부 인권보고서는 작년 2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북한인권보고서 내용도 반영했으며, “북한의 기관과 관리들에 의해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총체적인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러한 인권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륜적인 범죄로 성립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인용

- 이 보고서는 특히 2013년 12월 처형당한 장성택의 예도 들었는데, 북한 당국이 장성택을 체포한 뒤 특별군사재판소가 반역, 부패, 주색, 마약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즉결처형했으며, 더불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그의 동료들도 공개처형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끌고 갔다고 비판

❖ Sandra Fahy, *Marching Through Suffering: Loss and Survival in North Korea* 출간

- 일본 도쿄에 소재한 소피아 대학의 인류학 교수인 산드라 파히는 지난 4월 미국 컬럼비아대 출판부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 진군한다: 북한의 손실과 생존’이라는 제목의 책 출간
-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현대 북한이 경험한 기아 문제와 전체주의 정치의 모습을 탈북자들의 개인적 경험을 통해 묘사
- 북한을 탈출한 30여명의 탈북자들을 인터뷰하였으며, 그들이 배고픔과 정권의 억압에 대응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등 개인적 이야기들을 사회학 및 심리학적인 설명을 통해 소개
- 이 책에서는 북한주민들을 억압 속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라, 상당한 적응력을 가진 사람들로 묘사

❖ Daniel Tudor and James Pearson, *North Korea Confidential: Private Markets, Fashion Trends, Prison Camps, Dissenters and Defectors* 출간

- 이코노미스트(Economist)지의 한국 특파원을 지낸 대니얼 투도르와 로이터(Reuters) 통신사의 한국 특파원인 제임스 피어슨은 지난 4월 투틀 출판사(Tuttle Publishing)를 통해 ‘북한의 은밀한 모습: 장마당, 패션 트렌드, 정치범 수용소, 반체제인사와 탈북자’ 출간
- 이 책의 저자들은 북한이 매우 억압적인 독재국가이지만, 1990년대의 대기근 이후 상당히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평양의 지도계층과 다양한 계층의 탈북자들, 북한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진행
- 저자들에 따르면 북한의 국영기업은 시장화 흐름 속에서 더 이상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며, 조선노동당이 주도한 사상교육은 이제 시장의 교역과 이익 추구에 의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평가

→ 이에 따라 이제 새로운 북한은 외부의 정보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한국의 K-POP과 컴퓨터 USB가 북한에 들어가면서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

❖ Blaine Harden, *The Great Leader and the Fighter Pilot: The True Story of the Tyrant Who Created North Korea and The Young Lieutenant Who Stole His Way to Freedom* 출간

→ 탈북자 신동혁씨의 자서전 ‘14호 수용소로부터의 탈출(Escape From Camp 14)’의 저자로 유명한 블레인 하든은 지난 3월 바이킹(Viking) 출판사를 통해 ‘위대한 지도자와 전투기 조종사’라는 책 출간

→ 이 책에서는 김일성의 권력 장악 과정과 함께 1953년 9월 한국전쟁 휴전 직후 미그 15기를 몰고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전투기 조종사 노금석씨의 탈출기를 소개

❖ Stephan Haggard and Jon R. Lindsay, “North Korea and the Sony Hack: Exporting Instability Through Cyberspace”

→ 미국의 저명한 북한연구학자인 스테판 해거드와 존 R. 린드세이는 지난 5월 하와이 동서문화센터(East-West Center)에서 발간하는 아시아 태평양 이슈(Asia Pacific Issues) 117호에 북한의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 관련 논문 발표

→ 이 논문의 저자들은 지난해 발생한 소니 픽처스 영화사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사이버공간에서의 억지(deterrence)가 가능한지에 대해 커다란 의문을 안겨주었다고 지적

→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북한을 지목하고 비판함으로써 커다란 관심을 끌었는데, 이를 통해 북한 문제에 대한 안정-불안정 패러독스(stability-instability paradox)를 보여주었다고 주장

→ 이들은 사이버 공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정책적으로 이를 덜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대응할 수는 있다고 제안

❖ Jamie Doucettea and Seung-Ook Lee, “Experimental territoriality : Assembling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in North Korea”

- 이번 7월 정치 지리학(Political Geography) 저널 47호에는 북한의 개성 공단을 영토성에 대한 실험적인 작업으로 평가하는 논문이 실릴 예정
- 이 논문에서는 개성공단에서의 주권과 정치경제적 상호작용을 설명하면서 개성공단이 영토성에 대한 실험적인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
- 개성공단이 지닌 지정학적 위치상 가동과 중단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만, 남북 경제협력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성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

❖ 일본에서는 다음의 북한 및 통일 관련 논문 출간

- デルーリー ジョン, “イラン核合意と北朝鮮の教訓: 合意を政治的に進化させるには”, Foreign affairs report 2015(5).
- 権 秀蓮, 権 哲男, “北朝鮮における経済開発区設立の背景および展望”, Erina report 123, 2015-04.
- 孫 賢鎮, “金正恩体制下の北朝鮮-核と拉致問題を中心に”, Hiroshima peace research journal 2, 2015-03.
- 武貞秀士, “二〇一五年、北朝鮮は何を目指すか: 「新年の辞」から(特集 所員個別研究二〇一四)” 海外事情 63(3), 2015-03, 拓殖大学海外事情研究所.

4장

정책추진 과제

2015년 2/4분기 통일여론에 나타난 통일 관련 의식의 흐름과 통일논의 주제 및 동향을 감안할 때 비중을 두어야 할 ‘통일정책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

1.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준비의 생활화

❖ 정부의 다양한 통일준비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일준비 상황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여론동향 분석을 토대로, 국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통일준비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생활현장 속의 풀뿌리 통일여론을 수렴하면서, 다양한 포럼과 회의를 통해 지역사회 통일담론을 형성하고 통일준비 운동을 확산
- 대규모 하향식 통일운동을 지양하고, 모든 국민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대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작은 통일운동’ 추진
- 국민 생활현장 속의 통일여론을 적극 수렴, 현장성과 전문성을 결합한 정책대안 건의

※ 통일준비 상황에 대한 2/4분기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사회의 통일 준비에 대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의견이 다수를 차지

※ 또한 정부의 통일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응답자층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사회의 통일준비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84.1%)이 높다는 점을 고려, 정책 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통일준비 활동 실시 필요

2. 통일준비 구체화

❖ 현실적인 통일준비를 위해 통일에 대비한 법과 제도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비중을 두고 구체적인 준비 착수

-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일준비 기반을 확립하고, 통일 상황에 따른 남북 법제 사이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남북한 통합 법제 준비

❖ 다양한 차원에서의 통일준비 재원 확보 방안 구상 및 마련

→ 통일 상황에 따른 경제적 충격 완화를 위해 남북경협, 북한개발정책, 통일준비 재원 마련 방안 등 연구

❖ 남북한 통합에 대비한 실질적 차원에서의 통일준비 인력 양성

→ 통일 관련 단체 참여자, 퇴직 공무원 활용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 연수 추진 및 체계적 관리로 통일준비를 위한 실질적 인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2/4분기 전문가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통일과정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 '통일준비 인력 양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39.6% 차지

3. 통일미래 인재 육성

❖ 통일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 정립 및 올바른 국가관과 긍정적 통일관 형성을 위해 다양한 차원에서의 통일 공감 활동 전개 필요

❖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지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통일 이슈에 대한 접근성 강화 방안 마련

❖ 통일미래 리더로서 청년들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차원에서의 교육과 참여행사를 마련, 보다 실천적 대안의 발굴 및 모색

※ 2/4분기 통일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통일 미래상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라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 관련 프로그램 추진과 통일교육 심화가 당면과제로 부상

[부 록]

- ◇ 주요 학술회의 목록
- ◇ 국민 통일여론조사 통계표
- ◇ 국민 통일여론조사 설문지

주요 학술회의 목록

2/4분기 통일 관련 주요 학술회의 정리

- 학술회의 개요, 일정 및 참가자 등 주요 정보는 아래 내용 참고
- 참가자의 소속 및 직위명은 행사 당시의 소속 및 직위명으로 기재

《 4월 학술회의 》

☞ 통일연구원 개원 24주년 기념 학술행사

- 일 시 : 2015.04.08. 16:30~18:00
- 주 제 : 분단 70년 새로운 통일 패러다임의 모색
- 주 최 : 통일연구원
- 장 소 : 통일연구원 신청사 별관 3층 PPS홀
- 기조연설 : 김덕(전 통일부총리)
- 사 회 : 유세희(한양대 명예교수)
- 참가자 및 발표

① 김근식(경남대 교수)	② 김성한(고려대 교수)
③ 문흥호(한양대 교수)	④ 박순성(동국대 교수)
⑤ 유호열(고려대 교수)	⑥ 전상인(서울대 교수)
⑦ 조민(통일연구원 부원장) 등	

☞ 민주평통 2015년 1차 광주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4.09. 10:30
- 주 제 : 한반도 평화통일과 통일준비
- 주 최 : 민주평통 광주지역회의
- 장 소 : 광주시청 4층 세미나1실
- 참가자 및 발표

발표 :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① 노찬백(보건대 교수) ② 김성후(동신대 교수)

☞ 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제3차 공개세미나

- 일 시 : 2015.04.09. 14:00~17:30
- 주 제 : 동북아 다자경제협력 활성화 방안
- 주 최 : 통일준비위원회, 한국무역협회
- 후 원 : 서울경제신문
- 장 소 : 코엑스 그랜드볼룸 105호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주제 : '다자협력'

- 발표 : ① '나진-하산 프로젝트' : 문경연(수출입은행 부연구위원)
② '유라시아 시대의 나선 산업단지 조성·협력 방안' :
조유현(중소기업연구원 정책자문위원)
③ '북한 자원개발사업의 다자협력 방안' : 최경수(북한자원연구소 소장)
④ '러시아 극동 남북러 3각 농업협력' : 엄구호(한양대 교수)

[2회의] 종합토론

- 토론 : ① 김주현(통일준비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장) *좌장
② 박윤환(한국무역협회 남북교역 전문위원)
③ 이양구(전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
④ 임병재(전 주일공사)
⑤ 정영록(서울대 교수) 등

☞ 민주평통 2015년 1차 경북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4.09. 14:00
 - 주 제 : 경북의 역사적 통일자산과 통일준비의 방향
 - 주 최 : 민주평통 경북지역회의
 - 장 소 : 대구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최철영(경북포럼 연구위원장)
발표 : 김정수(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장)
토론 : ① 전현수(경북대 교수)
② 이동형(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

☞ 2015 북한연구학회 - 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

- 일 시 : 2015.04.10. 10:00~17:40
- 주 제 :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2년 평가와 남북관계 발전 방향
- 주 최 : 북한연구학회, 통일연구원
- 장 소 : 북한대학원대학교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

주제 :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2년 평가'

발표 : ① '김정은 정권의 경제·핵 병진노선의 제약요인 분석: 김정일 시기
선군정치의 관성적 요인을 중심으로' : 신대진(서울교대)

② '북한의 경제·핵 병진노선 2년 평가: 경제정책 측면' :
탁성한(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③ '경제·핵무력 병진노선과 북한의 국방군사전략 변화' :
김동엽(북한대학원대 북한미시연구소 연구위원)

토론 : ① 박영택(대진대 통일대학원장)

② 윤정원(육사 교수) ③ 이영훈(SK경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2회의]

사회 : 김영수(서강대 교수)

주제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2년 평가'

발표 : ①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관계 2년: 평가와 과제': 김근식(경남대 교수)

②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사회문화교류 평가와 과제': 전영선(건국대 HK연구교수)

토론 : ① 김종수(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통일전문위원)

② 오양열(한국문화관광연구원 초빙연구원)

③ 정낙근(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3회의]

사회 : 고유환(동국대 교수)

주제 : '남북관계 발전 방향'

발표 : 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 정성장(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② '남북정상회담과 남북경제공동체 추진 방향': 김영희(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

토론 : ① 권영경(통일교육원 교수)

② 서보혁(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③ 정영철(서강대 교수)

[4회의]

사회 : 김용현(동국대 교수)

주제 : '북한관광 그리고 탈북자 연구'

발표1 : '경제적 측면의 '남한-중국-북한' 관광활성화를 위한 방안' : 문유진(북한대학원대)

토론1 : 박지연(수출입은행)

발표2 :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토론2 : 장용훈(연합뉴스 기자)

발표3 : '탈북청소년공부방아동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활용 및 평가:
집단 치료 놀이를 중심으로' : 이현주(IMChilds심리상담연구소)

토론3 : 신호숙(남북하나재단 팀장)

[5회의]

사회 : 김연철(인제대)

주제 : '북한 핵·미사일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

발표1 :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현대화 기술개발 경로와 수준' : 이춘근(STEPI 선임연구위원)

토론1 : 황일도(동아일보 기자)

발표2 :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과 효과적인 BMD 요건' : 권용수(국방대 교수)

토론2 : 장철운(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6회의]

사회 :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 '김정은 시대 북한 대남정책 분석'

발표 : ①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분석과 전망' : 박영자(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② '김정은 최후의 도박: 핵무력이 네트워크하는 산유국:

북한 주체시간과 핵무력의 6자회담 폐기과정과 그 백터' : 박요한(송실대)

토론 : ① 신종호(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② 홍민(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7회의]

사회 : 이우영(북한대학원대 교수)

주제 : '북한의 정치미학과 젠더 접근'

발표1 : '북한 감성정치 메카니즘: '우리식' 이념과 주체미학의 논리 구조를 중심으로' :
최경희(도쿄대)

토론1 : 정일영(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연구원)

발표2 : '북한영화에 대한 젠더 접근법 모색' : 안지영(인제대 외래교수)

토론2 : 권금상(북한대학원대 북한미시연구소 연구교수)

[8회의]

사회 : 임강택(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 '북한 무역 연구'

발표1 : '북한의 대외무역에서 비교우위 변화와 특성에 관한 연구' : 탁용달(한국자산관리공사)

토론1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발표2 : '중국의 대북무역 발생 요인에 관한 연구: 섬유제품 통계에 대한 재해석을 중심으로' : 정은이(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연구교수)

토론2 : 유현정(세종연구소 연구위원)

[9회의]

사회 : 조영기(고려대 교수)

주제 : '북한 복지 실태 분석'

발표1 :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식, 의약품 유통실태 및 변화 과정에 대한 연구' :
곽인옥(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선임연구위원), 류국현(고려대)

토론1 : 조영주(동국대 연구교수)

발표2 : '북한 근로자보호법 법적 비교 분석' : 이철수(신한대 교수)

토론2 : 장용철(안양대 교수)

민주평통 2015년 1차 울산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4.14. 11:00
- 주 제 : 북한 체제의 속성: 김정은 시대의 연속성과 차별성
- 주 최 : 민주평통 울산지역회의
- 장 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박광일(울산포럼 연구위원장)
 - 발표 : 차두현(경기도 외교정책특별자문관)
 - 토론 : ① 장병익(울산대 교수)
 - ② 이명수(울산대 교수)
 - ③ 이수동(한국폴리텍대 교수)

☞ 광복70년 분단70년 기념 학술회의

- 일 시 : 2015.04.14. 09:30~18:00
- 주 제 : 평화와 통일의 한반도형 길찾기 - 독일모델과 양안모델을 넘어
- 주 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장 소 :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김성환(서울대 교수)

주제 : '독일모델 - 서독의 교류포용, 동독의 민주혁명 그리고 평화통일'

발표 : ① '서독의 '접근을 통한 변화'와 유럽공동안보' : 김학성(충남대 교수)

② '동독의 민주혁명과 통일' : 이동기(강릉원주대 교수)

③ '독일통일의 역량과 쟁점' : Bernhard Seliger(한스자이델 재단 한국사무소 소장)

토론 : ① 황병덕(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

② 김동명(독일문제연구소장)

[2회의]

사회 : 강준영(한국외대 교수)

주제 : '양안모델 - 중국 개혁개방, 대만의 민주화 그리고 평화공존'

발표 : ① '중국의 개혁개방과 양안정책변화' : 김홍규(아주대 교수)

② '소삼통에서 대삼통으로: 양안교류협력의 현황' : 丁樹範(대만 국립정치대학)

③ '양안모델의 딜레마: 하나의 중국과 '대만인'' : 趙建民(대만 중국문화대학)

토론 : ① 정영록(서울대 교수)

② 김한권(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

③ 문흥호(한양대 국제학대학원장)

[3회의]

사회 : 장달중(서울대 교수)

주제 : '남북 - 상생공존과 평화통일의 한반도형 모델은?'

발표 : ①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정착 방향과 과제' : 김창수(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② '북한의 개혁개방과 평화통일의 전망' :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① 신범식(서울대 교수)

② 김천식(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특임연구위원)

[라운드테이블]

사회 : 박명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장)

주제 : '독일과 양안을 넘어, 어디서 시작할 것인가'

패널 : ① 강원택(서울대 교수) ② 박경서(한국인권재단 고문)

③ 유호열(고려대 교수) ④ 신화영(서울대)

⑤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민주평통 2015년 1차 대구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4.17. 15:00
- 주 제 : 대구정신과 통일이 만나다 - 해방70주년의 대구정신과 통일기반 구축방안
- 주 최 : 민주평통 대구지역회의
- 장 소 : 호텔인터불고 클라벨홀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조병철(대구포럼 연구위원장)
 - 발제 및 지정토론
 - ①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통일’ : 김무정(경북대 교수)
 - ② ‘국채보상운동과 통일’ : 김지욱(국채보상운동 전문위원)
 - ③ ‘2.28 민주운동과 통일’ : 박명철(2.28 민주운동 前회장)
 - ④ ‘청소년의 통일의식과 통일교육의 필요성’ : 신금철(통일시민대학연합회장)
 - 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통일 운동’ : 노판석(민주평통 대구남구협의회장)
 - ⑥ ‘나진선봉과 대구광역시 자매결연도시가 된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 서윤희(경북대 교수)
 - ⑦ ‘대구지역 대학생과 외국 유학생들이 생각 하는 통일’ : 천난(경북대 박사과정)

☞ 민주평통 2015 한·중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4.22. 13:00~17:30
- 주 제 : 한반도 평화통일, 중국의 협력 왜 필요한가?
- 주 최 : 민주평통 선양협의회
- 후 원 : 조선일보사
- 장 소 : 중국 연길(연변 국제호텔)
- 기조연설 : ‘북한의 발전과 한반도 통일 - 한중협력의 방향’ : 현경대(민주평통 수석부의장)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주제 : ‘한반도 정세 변화 - 평가와 전망’

사회 : 정재호(서울대 미중관계연구센터 소장)

토론 : ① 황지환(서울시립대 교수)

② 滿海峰(만하이펑)(요동학원 조선반도연구소 소장)

③ 金哲(진저)(요녕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소장)

④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⑤ 李鍾林(이종림)(연변대 경제관리학원 원장)

⑥ 최민자(성신여대 사회과학대학장)

[2회의]

주제 : '한반도 통일과 한중관계 - 방향과 과제'

사회 : 金强 - (진창이)(연변대 교수)

토론 : ① 김흥규(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② 巴殿君(바디엔진)(길림대 동북아연구센터 부소장)

③ 이희옥(성균관대 중국대학원장)

④ 朴東勳(파오동훈)(연변대 조선/한국연구센터 부소장)

⑤ 주용중(조선일보 정치부장)

[종합정리]

주제 :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중협력 방안'

사회 : 이희옥(성균관대 중국대학원장)

☞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2015 국제학술대회

- 일 시 : 2015.04.22.~23.
- 주 제 :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인문학 교육 및 연구의 과제와 전망
- 주 최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장 소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정현주(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주제 : '북한 인문학의 어제와 오늘'

발표 : ① '북한과의 학술교류와 북한에서의 학술교류: DAAD - 김일성 종합대학 초빙교원으로서의 체험' : 알베르트 브루노니(DAAD - 김일성종합대학 독일어문학과 초빙교원)

② '북한의 유교인식: <조선철학전서>를 중심으로' : 김철수(연변대 철학과 교수)

토론 :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2회의]

사회 : 안성찬(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교수)

주제 : '독일통일과 인문학의 변화'

발표 : ① '독일 통일에서 대학체제 변환 과정' : 한스 헬무트 간더(프라이부르크대 인문대학장)

② '독일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대학개혁과 연구개발 진흥정책' :

임홍배(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

토론 : 한승완(국가안보전략연구원 선임연구원)

[3회의]

사회 : 고일홍(서울대 인문학연구원 HK연구교수)

주제 : '디아스포라 관점에서 보는 통일한반도 인문학'

발표 : ① '조선족과 한국 국민의 갈등 및 소통과 화합의 논리' :

김호웅(연변대 중국조선족문학과 교수)

② '남북한 역사학계의 반일독립해방투쟁에 관한 시각 및

관점의 차이와 그 원인 분석' : 김성호(연변대 조선한국역사연구소 소장)

토론 : 이동기(강릉원주대 교수)

☞ 민주평통 2015년 1차 대전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4.23. 15:00
- 주 제 : 통일 준비의 실질적 진전
- 주 최 : 민주평통 대전지역회의
- 장 소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하누리관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유병선(대전포럼 연구위원장)
 - 발표 : ① '국방: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 : 고봉준(충남대 교수)
 - ② '국내: 국민적 합의기반 마련' : 성태규(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③ '외교: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 기반 조성' : 김학성(충남대 교수)
- 토론 : ① 김상태(한남대 교수)
- ② 김욱(배재대 교수)
- ③ 이다영(충남대 학생)

☞ 한반도 평화통일의 추진방향과 대내외 공감대 형성방안

- 일 시 : 2015.04.28. 14:00~18:30
- 주 제 : 한반도 평화통일의 추진방향과 대내외 공감대 형성방안
- 주 최 : 통일연구원
-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유호열(고려대 교수)

주제 :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과 대책'

발표 : ①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북한 반응의 특징과 정책적 고려사항' :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북한의 입장과 대응방안' : 김연수(국방대 교수)

토론 : ① 김진무(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② 남광규(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③ 성기영(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④ 오경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⑤ 이기동(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회의]

사회 : 전경만(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석좌연구위원)

주제 :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방안'

발표 : ① '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적 공감대 형성방안' : 조한범(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적 공감대 형성방안' : 차두현(경기도 도지사 외교정책특보)

토론 : ①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② 박인휘(이화여대 교수)

③ 이규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④ 제성호(중앙대 교수)

⑤ 황기식(동아대 교수)

➡ 민주평통 2015년 1차 충북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4.29. 15:00
- 주 제 :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 주 최 : 민주평통 충북지역회의
- 장 소 : 서원구청 대회의실2층
- 참가자 및 발표

사회 : 이재록(충북포럼 연구위원장)

발표 : 이석기(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토론 : ① 정중재(충북대 교수)

② 김영배(청주대 교수)

➡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

- 일 시 : 2015.04.30. 10:00
- 주 제 :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및 지원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
- 주 최 : 국회 남북관계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 장 소 : 국회 외통위 회의실

• 참가자 및 발표

- 발표 : ① ‘북한이탈주민 정착 현황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 박상돈(통일부 정착지원과장)
 ②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정착에서 걸림돌과 정착지원 실효성 강화방안’ :
 김영희(한국산업은행 통일사업부 팀장)
 ③ ‘현장에서 느끼는 지원정책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허영철(대구하나센터장)
 ④ ‘북한이탈주민 지원제도 개선 방안’ : 박헌선(이화여대 교수)

☞ [북한법연구회] 제212회 월례발표

- 일 시 : 2015.04.30. 18:30
- 주 제 : 북한의 경제개발구법제 동향과 남북경제협력 전망
- 주 최 : 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 연구특별위원회
- 장 소 : 뉴국제호텔 두메라룸
- 발 표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 5월 학술회의 》

☞ 유라시아 평화와 협력 심포지움

- 일 시 : 2015.05.02. 10:00~17:00
- 주 제 : 유라시아 평화와 번영
- 주 최 : 민주평통 중앙아시아협의회
- 장 소 : 카자흐스탄 알파라비 국립대 도서관
- 기조연설 : ① ‘신유라시아 시대 한반도 통일의 출발점’ : 현경대(민주평통 수석부의장)
 ② ‘세계 비핵화를 위한 카자흐스탄의 역할’ : (카자흐스탄)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김게르만(알파라비 국립대 교수)

주제 : ‘한반도 통일에 고려인 및 카자흐스탄의 역할’

발표 : ① 정준희(통일부 정세분석국장) ② 사이드카시모프(전 우즈베크 외교장관)

③ 라키세바(public opinion 소장) ④ 손영훈(한국외대 중앙아연구소 소장)

[2회의]

사회 : 안에브게니(알파라비 국립대 부총장)

주제 : '교육 및 과학계발'

발표 : 한국 및 중앙아 6개국 학자

[3회의]

주제 : '보건/의학'

☞ 제5회 샤이오포럼 개최

- 일 시 : 2015.05.06. 13:00~17:30
- 주 제 : 한반도 통일의 비전 - 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신뢰
- 주 최 : 통일연구원
- 장 소 : 통일연구원 PPS홀
- 기조연설 : 프랜시스 후쿠야마(스탠퍼드대 교수)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유호열(고려대 교수)
 - 패널 : ① 고유환(동국대 교수) ② 김수암(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③ 김용호(연세대 교수) ④ 김재천(서강대 교수)
 - ⑤ 김태현(중앙대 교수) ⑥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 ⑦ 박순성(동국대 교수) ⑧ 유호열(고려대 교수)
 - ⑨ 이우영(북한대학원대 교수) ⑩ 이정철(송실대 교수)
 - ⑪ 이동선(고려대 교수) ⑫ 임혁백(고려대 교수)
 - ⑬ 전재성(서울대 교수) ⑭ 김용호(인하대 교수)
 - ⑮ 김호섭(중앙대 교수) ⑯ 이정훈(연세대 교수)
 - ⑰ 한용섭(국방대 교수)

☞ 제100차 해외학자 초청 세미나

- 일 시 : 2015.05.06.
- 주 제 : 미중관계와 한반도 통일
- 주 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장 소 : 평화관 1층 대회의실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송민순(북한대학원대 총장, 전 외교부 장관)
 - 발표 : 프랜시스 후쿠야마(스탠퍼드대 교수, 역사의 종말 저자)
 - 통역 : 박후건(경남대 교수)

☞ [제46차 통일정책포럼] 광복 70년, 분단 70년 평화와 통일의 길을 찾다.

- 일 시 : 2015.05.11. 10:00~12:00
- 주 제 : 통일외교안보분야 전직 고위정책가들이 보는 통일환경과 전략
- 주 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박명규(통일평화연구원장)
 - 토론 : ① 구본태(남북사회통합연구원 이사장) ② 김태영(한민학원 이사장)
 - ③ 송민순(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④ 최진욱(통일연구원장)
 - ⑤ 한용섭(국방대 교수)

☞ 민주평통 2015년 1차 세종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5.11. 15:00
- 주 제 :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외교협력 과제와 전망
- 주 최 : 민주평통 세종지역회의
- 장 소 : 세종시청 대강당(3층)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길병욱(세종포럼 연구위원장)

[1주제]

발표 : '동북아 통일외교 추진전략과 통일준비 과제' : 이종호(건양대 교수)

토론 : ① 박재필(충남대 교수) ② 임정묵(자문위원)

[2주제]

발표 : '동아시아 패권경쟁과 한반도 평화통일' : 김경식 (한국해양안보포럼 대표)

토론 : ① 박창권(국방연구원 연구원) ② 노영미(자문위원)

☞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제51차 평화통일전략포럼

- 일 시 : 2015.05.12.
- 주 제 : 제2차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가?
- 주 최 : (사)평화통일시민연대
- 장 소 :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김성주(성균관대 교수)

- 발제 : ① ‘제2차 미일방위협력지침이 동북아 평화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 :
 김종대(디앤디포커스 편집장)
 ② ‘제2차 미일방위협력지침이 한반도 평화통일에 미치는 문제점과 대책’ :
 이장희(한국외대 명예교수)
- 토론 : ① 정옥식(평화네트워크 대표) ②한승동(한겨레 논설위원)
 ③ 장의관(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

☞ 이화여대 제2회 윤후정 통일포럼

- 일 시 : 2015.05.13.
- 주 제 : 광복 70년, 분단 70년: 통일과 여성
- 주 최 : 윤후정 통일포럼 운영위원회, 이화여자대학교 통일학연구원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관 LG컨벤션홀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이해경(한국여성재단 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
 - 토론 : ① 송민순(북한대학원대 총장/전 외교통상부 장관)
 - ② 정세현(평화협력원 이사장/전 통일부 장관)
 - ③ 조은(사회학자/동국대 명예교수)
 - ④ 하영선(동아시아연구원 이사장/서울대 명예교수)

☞ 제45차 통일정책포럼 -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지식공유

- 일 시 : 2015.05.13. 16:00~18:00
- 주 제 : 북한의 경제개발구와 지식공유
- 주 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 장 소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 참가자 및 발표
 - 발표 : 박경애(브리티쉬 컬럼비아대 교수, 캐나다)

☞ 제2차 평화통일 대토론회

- 일 시 : 2015.05.19. 14:00
- 주 제 : 8천만이 행복한 통일한국의 미래상
- 주 관 : 민주평통 종교민족화합분과위원회
- 공동주최 : 국민대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원불교, 천주교,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 후 원 : 통일부, 통일준비위원회

- 후원언론 : 동아일보
- 장 소 : 플라자호텔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남궁영(한국외국어대 정치행정언론 대학원장)

주제 : '통일한국 미래상 - 무슨 내용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발표 : 김주현(현대경제연구원 고문)

토론 : ① 김병로(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②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③ 박홍근(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④ 정문헌(새누리당 국회의원)

⑤ 홍순경(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2회의]

사회 : 박종화(경동교회 담임목사)

주제 : '통일준비, 어떻게 '함께'할 것인가?: 종교계의 제언'

토론 : ① 노정선(NCCK 화해통일위원회 부위원장)

② 박종화(경동교회 담임목사)

③ 엄기호(한기총 남북교회협력위원장)

④ 이은형(천주교주교회의 민족화해위원회총무)

⑤ 정인호(원불교 한민족한삶운동본부장)

⑥ 진효(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총장)

☞ 국회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토론회

- 일 시 : 2015.05.21.
- 주 제 : 5.24조치 5년, 어떻게 할 것인가?
- 주 최 : 국회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 장 소 :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참가자 및 발표

사회 : 백학순(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발제 : ① 김근식(경남대 교수)

② 유호열(고려대 교수)

토론 : ① 김남중(통일부 교류협력국장)

② 고유환(동국대 교수)

③ 김영윤(경실련 통일협회 이사)

④ 제성호(중앙대 교수)

☞ 민주평통 2015 한·미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5.21. 14:00~20:00
- 주 제 : 한반도 통일과 한미관계 - 과제와 비전
- 주 최 : 민주평통 LA협의회
- 장 소 : LA 라인 호텔 그랜드볼룸
- 사 회 : 이정훈(연세대 교수)
- 기조연설 : 박찬봉(민주평통 사무처장)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패트릭 모건(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주제 : '통일을 위한 한미공조 방안'

토론 : ① 박형중(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데이비드 강(남가주대 교수)
③ 김태현(중앙대 국가대전략연구소 소장) ④ 앤드류 스코벨(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회의]

사회 : 이정훈(연세대 교수)

주제 :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과 통일의 편익'

토론 : ① 최 강(아산정책연구원 연구부원장)
② 패트릭 크로닌(신미국안보센터 선임고문)
③ 김중호(한국수출입은행 북한개발연구센터 연구위원)
④ 브루스 베넷(랜드연구소 선임연구위원)

☞ 민주평통 2015년 1차 경기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5.21. 14:00
 - 주 제 : 통일대비 지자체 남북협력사업 활성화방안 - 경기도
 - 주 최 : 민주평통 경기지역회의
 - 장 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광교홀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황인수(한국밀레니엄연구원 연구실장, 경기포럼 연구위원장)
발표 : 김동성(경기개발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
토론 : ① 김수암(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② 오경섭(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제57차 통일전략포럼

- 일 시 : 2015.05.21. 14:00~17:00
- 주 제 : 남북관계의 과제와 해법 모색
- 주 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장 소 : 연구소 정산홀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장철운(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발표 : 윤대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

[2회의]

사회 : 강인덕(경남대 석좌교수/전 통일부 장관)

발표 : ① '남북관계 과제와 해법' : 유호열(고려대 교수)

②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위기와 해법' : 김근식(경남대 교수)

토론 : ① 김석우(21세기국가발전연구원장/전 통일부 차관)

② 전현준(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장)

③ 송영선(전 국회의원)

④ 홍익표(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⑤ 김태우(동국대 석좌교수/전 통일연구원장)

⑥ 구갑우(북한대학원대 교수)

➡ 민주평통 2015년 1차 인천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5.21. 15:00
 - 주 제 : 통일을 위한 핵심과제: 정치적 과제를 중심으로
 - 주 최 : 민주평통 인천지역회의
 - 장 소 : YWCA 7층 대강당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이준한(인천포럼 연구위원장)
- 발표 : 김용호(인하대 교수)
- 토론 : ① 정승연(인하대 교수) ② 우윤식(제15기 인천연구협의회장)
- ③ 박영애(인권사무소 휴먼라이츠 대표)

☞ 민주평통 2015년 1차 경남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5.22. 11:00
- 주 제 : 북한의 한류 - 현황과 전망
- 주 최 : 민주평통 경남지역회의
- 장 소 : 마산 아리랑관광 호텔
- 참가자 및 발표
사회 : 하상식(경남포럼 연구위원장)
발표 : 강동완(동아대 교수)

☞ 민주평통 강원 - 제주지역회의 합동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5.22. 14:30
- 주 최 : 민주평통 강원지역회의
- 장 소 : 인제군 만해마을 설악관 대공연장
- 강 연 : 한기호(국회의원)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고관용(제주포럼 운영위원장)
주제 : '대한민국의 궁극적 복지와 평화통일'
발표 : 강동형(제주시협의회 수석부회장)
토론 : ① 고화숙(빌게이츠 컴퓨터학원 원장) ② 윤재백(한국레저관광연구소장)

[2회의]

사회 : 오경식(강원포럼 연구위원장)
주제 : '통일 실천과제'
발표 : 안득기(국가안전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토론 : ① 하승주(강원지역회의 간사) ② 양금희(제주인뉴스 편집국장)

☞ 민주평통 2015년 1차 서울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5.22. 15:00
- 주 제 : 남북관계의 현주소: 역사와 특수성
- 주 최 : 민주평통 서울지역회의
- 장 소 : 세종호텔 3층 세종홀
- 참가자 및 발표
사회 : 변진홍(서울포럼 연구위원장)
발제 : 구본태(통일교육분과위원장)

☞ 민주평통 2015 한·베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5.22.
- 주 최 : 민주평통 베트남협의회 하노이지회
- 장 소 : 베트남 하노이 그랜드프라자호텔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베트남 측] '베트남 통일이후 사회화합정책' : 찐득 꼬엥(교수)

[한국 측] 김학성(충남대 교수) *모듈레이터 찐광민(동북연구소장)

[2회의]

[베트남 측] '1975년이후 사회와 문화적인 면에서 통일과정에서 베트남의 경험와 실천' : 황찌바오(교수)

[한국 측]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모듈레이터 김정인(지회장)

☞ 민주평통 2015년 1차 충남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5.26. 14:00
- 주 제 : 지역에서의 통일준비는 어떻게 하는가?
- 주 최 : 민주평통 충남지역회의
- 장 소 : 공주대학교 음악관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이연우(충남포럼 연구위원장)
 - 발제 : 이병희(공주대 윤리교육학과 교수)
 - 토론 : ① 김구철(전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② 이달우(전 공주대학교 사범대학장)
 - ③ 조민희(고려대 박사과정 학생)

☞ 민주평통 2015년 1차 전남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5.26. 14:00
- 주 제 : 통일을 위한 변화와 혁신의 과제
- 주 최 : 민주평통 전남지역회의
- 장 소 : 여수시 보건소 3층 회의실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최병래(전남포럼 연구위원장)
 - 발제 : 김명수(순천대 교수)

☞ 제15차 남북관계 전문가 토론회

- 일 시 : 2015.05.27. 09:50~15:00
- 주 제 : 한반도 통일의 모델: 독일과 중국에서 길을 찾다
- 주 최 : 민주평통, 한국정치학회
- 장 소 : 프레스센터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최진우(한국정치학회장)

발제 : ① 염돈재(성균관대 교수) ② 문흥호(한양대 교수)

토론 : ① 고유환(동국대 교수) ② 김예경(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③ 김용호(연세대 교수) ④ 김태현(중앙대 교수)

⑤ 김학성(충남대 교수) ⑥ 박병광(국가안보전략연구원 동북아연구실장)

⑦ 배종윤(연세대 교수) ⑧ 손기웅(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⑨ 유호열(고려대 교수) ⑩ 이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⑪ 이수석(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⑫ 이호령(한국국방연구원 대외협력실장)

⑬ 전성흥(서강대 교수) ⑭ 조윤영(중앙대 교수)

[2회의]

사회 : 박찬봉(민주평통 사무처장)

토론 : 참석자 전원

☞ [경실련 통일협회] 29차 열린좌담회

- 일 시 : 2015.05.27. 15:00~17:00
 - 주 제 : 반복되는 개성공단 위기, 해법은?
 - 주 최 : 경실련 통일협회
 - 장 소 : 혜화역 경실련 강당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서보혁(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발표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토론 : ① 김영윤(남북물류포럼 회장)
- ② 이상만(중앙대 교수, 개성공단포럼 상임대표)
- ③ 신한용(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 ④ 한명섭(통인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 민주평통 2015년 1차 부산 평화통일포럼

- 일 시 : 2015.05.27. 16:00
- 주 제 : 남북관계와 통일의 방향 및 과제
- 주 최 : 민주평통 부산지역회의
- 장 소 : 부산 코모도호텔 희락정
- 참가자 및 발표
 사회 : 홍순헌(부산대 교수)
 발표 : 조경근(경성대 교수)
 토론 : ① 박홍석(동아대 부총장) ② 김태완(동의대 교수) ③ 이기완(창원대 교수)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제1회 세미나

- 일 시 : 2015.05.28. 10:00~18:00
- 주 제 : 국가안보·국민안전을 위한 포괄안보정책 토론
- 주 최 : 한국국가안보·국민안전학회
- 장 소 : 서울 삼성동 삼성역 COEX 3층 Hall E1, E2

☞ [북한법연구회] 제213회 월례발표회

- 일 시 : 2015.05.29. 18:30
- 주 제 : 북한에서의 상업활동과 사회주의 상업법의 최근 정비 동향
- 주 최 : 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한국법학교수회 북한법연구특별위원회
- 장 소 : 뉴국제호텔 두메라룸
- 발 표 : 김병욱(북한개발연구소 소장)

《 6월 학술회의 》

☞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 학술세미나

- 일 시 : 2015.06.02 14:00~17:00
- 주 제 : 한반도 정전체제와 평화통일 위한 국제협력방안
- 주 최 : 사단법인 외교국방연구소

- 장 소 : 뮤지엄웨딩홀(전쟁기념관)
- 연 설 : MG Mats Engman(중립국감시위원회 스웨덴 대표)
- 참가자 및 발표
 - 사회 : 홍성표(외교국방연구소장)
 - 발표 : ①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가와 전망' : 조성훈
 - ② '한반도 정전체제 복원을 위한 국제협력방안' : 박민형
 - ③ '한반도 정전체제와 평화통일 방안' : 권오중
 - 토론 : 허남성, 서상문, 이명환

☞ 제17회 HK평화학 세미나

- 일 시 : 2015.06.03. 10:00~12:00
- 주 제 : 러시아의 신동방정책과 북-러 관계
- 주 최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평화인문학사업단
- 장 소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세미나실 209호
- 참가자 및 발표
 - 발표 : 신범식(서울대 교수)

☞ [2015년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공동 학술대회]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 정책

- 일 시 : 2015.06.04. 13:30~18:00
- 주 제 :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정부 정책
- 주 최 : 남북하나재단,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HK사업단
- 주 관 : 고려대학교 한민족공동체연구센터 · 북한연구센터 · 사회통합교육 연구소
- 후 원 : 한국연구재단 · 연합뉴스
- 장 소 : 고려대학교 운초우선교육관 203호 강당
- 강 연 : '탈북 20년, 정착지원정책의 현재와 미래' : 정옥임(남북하나재단 이사장)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김영수(서강대 교수)

발표 : ①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과 사회통합' : 윤인진(고려대 교수)

 ② '전환기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방향과 과제' : 윤여상(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토론 : ① 이우영(북한대학원대 교수)

 ② 신미녀(새조위 대표)

 ③ 박상돈(통일부 정착지원과장)

[2호의]

사회 : 남성욱(고려대 교수)

발표 : ①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정책 방안 모색' : 권숙도(국민대통합위원회 부장)

② ‘주민통합의 장’으로서의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 김선희(공릉사회복지관 부장)

토론 : ① 강철환(북한전략센터 대표)

② 신호숙(남북하나재단 팀장)

③ 윤완준(동아일보 기자)

 KINU 서초포럼

- 일 시 : 2015.06.09. 07:00~08:00
- 주 제 : 통일준비와 국회 역할
- 주 최 : 통일연구원
- 장 소 : 더팔래스호텔
- 참석자 : ① 박병석(국회의원) ② 이수남(보좌관)
③ 전병곤(기획조정실장)(이하 통일연구원) ④ 박형중(연구관리본부장)
⑤ 김수암(통일정책연구실장) ⑥ 김석진(북한연구실장)
⑦ 이금순(북한인권연구센터 소장) ⑧ 손기웅(감사실장)
⑨ 김갑식(기획부장) ⑩ 정성윤(연구부장)
⑪ 송은주(혁신융합부장) ⑫ 권혜진(대외협력팀장)
⑬ 최은희(전략홍보팀장)

☞ [FNF-IFES 국제학술회의] 나우만재단 공동 국제학술회의

- 일 시 : 2015.06.10. 13:30
- 주 제 : Doing Business in North Korea: Business and Finance in the DPRK
(북한과의 비즈니스와 금융)
- 주 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 후 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 장 소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김주현(현대경제연구원 고문)

주제 : '변화하는 북한 비즈니스와 금융'

발표 : ① '북한 사금융의 실체' : 안드레이 란코프(국민대 교수)

② '소규모 사기업 육성과 금융의 역할' : 미무라 미즈히로(ERINA 조사연구부장)

③ '북한 비즈니스와 사금융' :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실장)

토론 : ① 제임스 피어슨(로이터통신 특파원)

② 윤인주(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

③ 정은이(경상대 교수)

[2회의]

사회 : 남상우(전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

주제 : '북한 금융 개혁에 대한 전망과 국제사회의 관여'

발표 : ① '최근 북한의 경제·금융 개혁: 함의와 과제' : 최문(연변대 교수)

② '북한 내 금융서비스와 가계대출: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사례' : 가네쉬 타파
(전 국제농업개발기금 아시아태평양분과 이코노미스트)

③ '이행기 경제의 사금융과 국제제재: 북한에 주는 교훈' : 윌리엄 뉴컴(존스홉킨스대
SAIS 방문학자)

토론 : ① 하현철(한국산업은행 통일사업부장)

② 랜디 마틴(머시코 동아시아 대외협력이사)

③ 윤덕룡(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국회 통일미래포럼 - 캠프 통일국가자산연구포럼 공동 정책 토론회

• 일 시 : 2015.06.10. 14:30~16:30

• 주 제 : 북한기업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통일경제 패러다임

• 주 최 : 국회 통일미래포럼, 캠프 통일국가자산연구포럼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참가자 및 발표

사회 : 정형곤(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발표 : ① '북한기업 현황과 남북한 산업협력 방안' : 이석기(산업연구원 연구위원)

② '통일대비 북한 부실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

최이섭(한국자산관리 공사 책임연구원)

토론 : ① 유호열(고려대 교수)

② 이상제(금융연구원 통일금융센터장)

③ 조봉현(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④ 배성규(조선일보 통일외교안보 팀장)

⑤ 정낙근(여의도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KINU -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공동학술회의

- 일 시 : 2015.06.11. 13:30~18:00
- 주 제 : 동북아 지역협력과 한반도의 미래
- 주 최 : 통일연구원,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 장 소 : 중국 길림성 장춘시 길림대학교 동북아연구원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박영호(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제 : '한반도 정세 변화와 동북아 지역협력'

발표 : ① 신종호(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② 장후이즈(길림대 동북아연구원 부원장)

③ 오규열(서울디지털대 교수)

④ 류쉐렌(길림대 행정학원 부원장)

토론 : ① 조민(부원장)

② 박종철(선임연구위원)

③ 임강택(선임연구위원)(이상 통일연구원)

④ 장징취엔(교수)

⑤ 파오잉아이(교수)

⑥ 귀루이(교수)(이상 길림대 동북아연구원)

[2회의]

사회 : 위샤오(길림대 동북아연구원장)

주제 : '한반도의 미래와 통일'

발표 : ① 박종철(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② 바잔진(길림대 동북아연구원 교수)

③ 성영민(국방대 객원연구원)

토론 : ① 조민(부원장)

② 박영호(선임연구위원)

③ 임강택(선임연구위원) ④ 신종호(부연구위원)(이상 통일연구원)

⑤ 장후이즈(교수)

⑥ 류쉐렌(부원장)

⑦ 장징취엔(교수)

⑧ 리쉐웨이(교수)

☞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HK연구성과 종합발표를 위한 학술회의

- 일 시 : 2015.06.15. 13:30~18:00
- 주 제 : 획일성의 복제에서 다양성의 조화로: 동아시아 정체성과 한반도 통합에 대한 다원적 접근
- 주 최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 장 소 :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3층 대회의실

[1회의]

사회 : 윤인진(고려대 교수)

주제 : '동아시아 정체성의 다이나믹스와 특징'

- 발표 : ① '중국의 발전 담론과 국가 정체성의 딜레마' : 박정현, 김종태
② '동북아시아 유학생의 상호인식: 국가 정체성과 사회적 거리감' : 황정미
③ '한려 대학생 대화 행사를 통해 본 한려 상호 인식 및 정체성' : 김진규
④ '동아시아적 규범공동체와 지역정체성' : 손기영

토론 : ① 정일준(고려대 교수)

- ② 정기선(IOM 이민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③ 이상준(국민대 교수)
④ 윤태룡(건국대 교수)

[2회의]

사회 : 김익수(고려대)

주제 : '한반도 통합의 다원적인 기초와 전략 구상 - 법, 경제, 사회, 대외관계'

- 발표 : ① '한반도 무역·투자의 통합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 공수진
② '남북한 화폐통합 전략으로서 실질가치연동 가격의 척도' : 이민종
③ '한반도 사회복지 통합쟁점: 운영과 제도' : 이철수
④ '시진핑 정부의 대외정책의 변화와 대북한 및 한반도 통일인식' : 이정남

토론 : ① 이규창(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② 김영식(서울대 교수)

- ③ 박현선(이화여대 교수) ④ 신종호(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 통일연구원, 유럽의회 보좌진 방원 워크숍

- 일 시 : 2015.06.15. 16:30~18:30
- 주 제 : 한반도 통일의 과정
- 주 최 : 통일연구원
- 장 소 : 통일연구원 제2회의실
- 참석자

[유럽의회 보좌진] : 아르멘 안도니안(Nirj Deva[한반도관계대표단 회장] 의원실 보좌관), 토마스 탈러 보좌관(Paul Rubig 의원실 보좌관), 안네 리켄브룩(Elmar Brok 의원실 보좌관), 주슈자 페르엔지(Laszlo Tokes 의원실 보좌관), 마테우스 그르젤치크(Adam Szeinfeld 의원실 보좌관)

[통일연구원] : 오종민(주벨기에 유럽연합대사관 서기관), 정윤주(EIAS 연구원), 손기웅(감사실장), 정영태(선임연구위원), 한동호(부연구위원), 심선영, 서진선, 김민애, 김명정

☞ 2015 KINU - NBR 한미전략대화

- 일 시 : 2015.06.16. 10:00~14:00
- 주 제 : 한반도 통일과 지역 안보: 중국의 역할과 한미동맹
- 주 최 : 통일연구원,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
- 장 소 : 마이크로소프트 혁신 및 정책센터(미국 워싱턴 D.C. 소재)
- 특별연설 : 에반스 리비어(Evans Revere, 브루킹스 비상임 선임연구위원)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박형중(통일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

주제 : '한반도 통일에서 중국의 역할과 한미동맹'

발표 : ① 보니 글래저(Bonnie Glaser, 국제전략연구소[CSIS] 선임연구위원)

② 이기현(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연구위원)

토론 : ① 존박(하버드대 선임연구위원)

② 홍석훈(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2회의]

사회 : 켄 고스(Ken Gause, 미 해군분석센터 국제관계국장)

주제 : '통일정책과 한미동맹'

발표 : ① 스캇 스나이더(Scott Snyder,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위원)

② 정성철(통일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 부연구위원)

토론 : ① 니콜라스 해미세비치(Nicholas Hamisevicz, 한미경제연구소 연구학술담당 국장)

② 김수암(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장)

☞ [IFES 국제학술회의]

North Korea's 'Jangmadang' New Generation

- 일 시 : 2015.06.23. 13:00~18:20
- 주 제 : 북한 장마당 새 세대-그들은 누구이며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인가?
- 주 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후 원 : NED, 북한대학원대학교
- 장 소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

• 참가자 및 발표

[1회의]

사회 : 정옥임(남북하나재단 이사장)

주제 : '북한 장마당 새 세대 - 실태와 전망'

발표 : ① '북한 장마당 새 세대, 그들은 누구인가' : 김성경(북한대학원대 교수)

② '북한 시장의 발전과 장마당 새 세대' : 박인호(Daily NK 대표)

③ '장마당 새 세대와 북한 정권의 미래' : 박석길(LiNK 정책연구국장)

토론 : ① 노귀남(동북아미사학회연구소 연구위원)

② 이수정(덕성여대 교수)

③ 강동완(동아대 교수)

[2회의]

사회 : 김미령(브뤼셀자유대 한-EU연구소 소장)

주제 : '장마당 새 세대와 이행기 경제'

발표 : ① '중국 이행기 경제 속 청년들의 역할' :

에릭 피시(아시아 소사이터티 콘텐츠 제작자 겸 작가)

② '관광을 통한 장마당 새 세대와의 교류' : 만하이핑(요동대 조선반도연구소 소장)

토론 : ① 유은해(한신대 교수)

② 이종운(극동대 교수)

[3회의]

사회 : 김미령(브뤼셀자유대 한-EU연구소 소장)

주제 : '장마당 새 세대와 교육: 국제사회의 역할'

발표 : ① '북한의 고등교육과 학생교류' : 고동훈(평양과학기술대 과학기술부 부총장)

② '2000년대 북한 교육의 진화: 국제협력, 엘리트 교육, IT의 역할' :

잔루카 스페자(NK 뉴스 연구실장)

토론 : ① 차승주(전주교육대 교수)

② 단울렛(경남대 교수)

국민 통일여론조사 통계표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
◆전 체◆		1,000	100.0
성별	남성	496	49.6
	여성	504	50.4
연령별	19~29세	179	17.9
	30대	185	18.5
	40대	212	21.2
	50대	198	19.8
	60대이상	226	22.6
거주지별	서울	203	20.3
	인천/경기	291	29.1
	대전/충청	102	10.2
	광주/전라	103	10.3
	대구/경북	102	10.2
	부산/울산/경남	158	15.8
출생지별	강원/제주	41	4.1
	서울	175	17.5
	인천/경기	132	13.2
	대전/충청	141	14.1
	광주/전라	183	18.3
	대구/경북	129	12.9
	부산/울산/경남	176	17.6
	강원/제주	49	4.9
	북한	6	0.6
	해외	8	0.8
학력별	중졸이하	144	14.4
	고졸	276	27.6
	대재이상	572	57.2
	모름/무응답	8	0.8
이념성향	진보	253	25.3
	중도	364	36.4
	보수	297	29.7
	모름/무응답	86	8.6
직업별	농/임/어업	29	2.9
	자영업	148	14.8
	블루칼라	141	14.1
	화이트칼라	251	25.1
	학생	101	10.1
	가사	244	24.4
	직업군인	1	0.1
	무직/기타	85	8.5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21.8
	201~300만원	151	15.1
	301~400만원	172	17.2
	401~500만원	148	14.8
	501만원 이상	214	21.4
	모름/무응답	97	9.7
정보접촉경로	TV/라디오	466	46.6
	신문/잡지	88	8.8
	인터넷/SNS	422	42.2
	주변사람	8	0.8
	모름/무응답	15	1.5

[통일 필요 정도]

선생님께서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필요하다	어느 정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모름/ 무응답	필요	불필요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38.8	37.9	14.7	5.1	3.5	76.7	19.8	3.14	71.43
성 별	남성	(496)	47.8	33.5	9.6	6.0	3.1	81.3	15.6	3.27	75.71
	여성	(504)	29.8	42.3	19.6	4.3	4.0	72.1	24.0	3.02	67.19
연령별	19~29세	(179)	16.6	48.6	16.7	11.0	7.0	65.3	27.7	2.76	58.73
	30대	(185)	26.8	48.0	14.8	9.1	1.4	74.8	23.9	2.94	64.58
	40대	(212)	43.8	36.9	14.8	1.9	2.7	80.7	16.6	3.26	75.33
	50대	(198)	45.1	31.9	18.1	3.0	1.9	77.0	21.1	3.21	73.78
	60대이상	(226)	55.8	27.3	9.9	2.1	4.8	83.1	12.1	3.44	81.22
거주지별	서울	(203)	41.8	39.0	10.9	6.2	2.1	80.8	17.1	3.19	73.00
	인천/경기	(291)	36.9	38.2	14.7	6.6	3.7	75.0	21.3	3.09	69.79
	대전/충청	(102)	41.7	37.7	13.4	4.2	3.0	79.4	17.6	3.20	73.47
	광주/전라	(103)	48.1	33.3	16.2	0.5	1.9	81.4	16.7	3.32	77.17
	대구/경북	(102)	32.0	36.5	19.0	4.0	8.5	68.5	23.0	3.05	68.46
	부산/울산/경남	(158)	33.2	40.6	17.7	4.9	3.6	73.8	22.6	3.06	68.60
출생지별	강원/제주	(41)	44.6	35.5	10.2	7.3	2.4	80.1	17.5	3.20	73.43
	서울	(175)	35.2	38.2	13.0	9.1	4.6	73.3	22.1	3.04	68.07
	인천/경기	(132)	32.9	42.0	13.7	9.3	2.1	75.0	23.0	3.01	66.91
	대전/충청	(141)	43.8	37.6	13.0	2.9	2.7	81.4	16.0	3.26	75.20
	광주/전라	(183)	47.8	34.1	14.7	1.4	2.0	82.0	16.0	3.31	77.02
	대구/경북	(129)	35.7	36.4	18.4	2.1	7.5	72.1	20.5	3.14	71.39
	부산/울산/경남	(176)	34.3	38.9	18.7	5.1	3.0	73.2	23.8	3.06	68.51
	강원/제주	(49)	41.9	40.9	6.4	8.1	2.7	82.7	14.6	3.20	73.23
	북한	(6)	55.7	16.4	12.7	0.0	15.2	72.1	12.7	3.51	83.55
	해외	(8)	33.0	55.3	0.0	11.7	0.0	88.3	11.7	3.10	69.89
학력별	중졸이하	(144)	52.3	26.0	14.0	2.2	5.5	78.3	16.3	3.36	78.57
	고졸	(276)	39.4	37.0	15.8	3.7	4.1	76.4	19.5	3.17	72.27
	대재이상	(572)	34.4	41.8	14.5	6.6	2.7	76.2	21.1	3.07	68.93
	모름/무응답	(8)	87.9	0.0	0.0	0.0	12.1	87.9	0.0	4.00	100.00
이념성향	진보	(253)	51.7	32.3	10.5	4.6	0.9	83.9	15.1	3.32	77.39
	중도	(364)	33.2	43.9	15.7	3.7	3.6	77.1	19.3	3.11	70.18
	보수	(297)	36.4	36.0	17.0	6.9	3.6	72.5	23.9	3.06	68.60
	모름/무응답	(86)	32.6	35.2	14.6	6.8	10.7	67.8	21.4	3.05	68.30
직업별	농/임/어업	(29)	56.7	30.6	9.2	0.0	3.5	87.3	9.2	3.49	83.04
	자영업	(148)	51.4	29.3	12.9	4.4	2.0	80.7	17.3	3.30	76.76
	블루칼라	(141)	51.6	31.1	11.7	4.1	1.4	82.8	15.8	3.32	77.38
	화이트칼라	(251)	32.5	41.7	13.3	10.1	2.4	74.2	23.4	2.99	66.35
	학생	(101)	13.1	60.9	15.8	2.7	7.6	73.9	18.5	2.91	63.75
	가사	(244)	31.2	38.5	22.7	3.0	4.7	69.6	25.7	3.03	67.54
	직업군인	(1)	0.0	100.0	0.0	0.0	0.0	100.0	0.0	3.00	66.67
	무직/기타	(85)	60.6	25.6	4.6	4.3	5.0	86.2	8.8	3.50	83.32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51.1	31.8	10.5	3.0	3.6	82.8	13.6	3.36	78.57
	201~300만원	(151)	38.7	37.9	14.2	3.5	5.7	76.7	17.7	3.19	72.88
	301~400만원	(172)	31.6	43.7	18.0	4.9	1.8	75.3	22.9	3.04	67.97
	401~500만원	(148)	38.4	40.5	15.9	4.4	0.7	78.9	20.4	3.14	71.24
	501만원 이상	(214)	38.7	36.4	15.0	9.2	0.7	75.1	24.2	3.05	68.43
	모름/무응답	(97)	24.4	40.6	16.2	4.9	13.8	65.0	21.2	2.98	66.00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42.0	37.0	14.8	2.2	4.0	79.0	17.0	3.24	74.59
	신문/잡지	(88)	44.0	32.7	12.5	8.6	2.2	76.7	21.1	3.15	71.55
	인터넷/SNS	(422)	34.1	40.8	14.7	7.4	3.0	74.9	22.1	3.05	68.25
	주변사람	(8)	21.8	13.0	34.0	12.0	19.2	34.8	46.0	2.55	51.72
	모름/무응답	(15)	46.9	28.1	10.3	9.8	4.8	75.1	20.1	3.18	72.63

[통일 예상시기]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5년 이내	10년 이내	2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하다	모름/ 무응답	10년 이내	30년 이내	30년 이상	불가능
◆ 전 체 ◆		(1000)	7.7	20.2	19.6	9.8	13.1	17.1	12.5	27.9	29.4	13.1	17.1
성 별	남성	(496)	9.2	21.6	23.5	10.6	11.8	16.2	7.1	30.8	34.1	11.8	16.2
	여성	(504)	6.3	18.8	15.8	9.0	14.3	18.0	17.8	25.1	24.8	14.3	18.0
연령별	19~29세	(179)	0.0	14.8	19.3	19.8	22.3	18.4	5.3	14.8	39.1	22.3	18.4
	30대	(185)	5.1	21.2	22.5	8.2	25.5	16.6	0.8	26.3	30.7	25.5	16.6
	40대	(212)	6.5	23.7	28.7	9.1	12.1	12.7	7.2	30.2	37.8	12.1	12.7
	50대	(198)	7.1	24.0	18.9	7.9	5.9	20.5	15.8	31.1	26.8	5.9	20.5
	60대이상	(226)	17.8	16.9	9.5	5.5	2.9	17.6	29.8	34.7	15.0	2.9	17.6
거주지별	서울	(203)	4.7	24.7	23.5	12.6	11.4	12.4	10.8	29.4	36.1	11.4	12.4
	인천/경기	(291)	8.4	18.4	19.5	8.7	15.3	17.3	12.4	26.8	28.2	15.3	17.3
	대전/충청	(102)	10.1	17.7	18.0	9.9	13.4	18.5	12.4	27.8	28.0	13.4	18.5
	광주/전라	(103)	8.5	15.9	22.1	8.1	15.4	21.8	8.3	24.4	30.2	15.4	21.8
	대구/경북	(102)	12.4	19.5	13.4	10.5	9.9	18.2	16.1	31.9	23.9	9.9	18.2
	부산/울산/경남	(158)	5.3	23.2	19.3	10.2	12.7	15.3	14.1	28.4	29.4	12.7	15.3
	강원/제주	(41)	8.3	17.8	15.4	4.3	8.9	28.2	17.1	26.1	19.7	8.9	28.2
출생지별	서울	(175)	6.3	19.8	27.5	10.2	13.9	15.1	7.1	26.1	37.8	13.9	15.1
	인천/경기	(132)	9.1	16.6	19.1	12.7	14.2	21.5	6.8	25.7	31.8	14.2	21.5
	대전/충청	(141)	9.8	22.9	17.7	6.1	11.3	18.8	13.4	32.7	23.8	11.3	18.8
	광주/전라	(183)	5.6	19.3	18.1	10.3	17.3	16.3	13.0	24.9	28.4	17.3	16.3
	대구/경북	(129)	9.0	28.4	14.3	8.5	10.5	14.0	15.3	37.3	22.8	10.5	14.0
	부산/울산/경남	(176)	7.3	18.4	19.2	13.3	11.3	14.8	15.7	25.7	32.5	11.3	14.8
	강원/제주	(49)	8.8	12.6	22.1	2.5	11.5	25.5	16.9	21.4	24.6	11.5	25.5
	북한	(6)	16.4	16.4	0.0	0.0	0.0	0.0	67.1	32.9	0.0	0.0	0.0
학력별	해외	(8)	7.1	13.0	16.4	0.0	13.0	37.6	13.0	20.0	16.4	13.0	37.6
	중졸이하	(144)	15.6	11.4	5.5	3.9	2.6	19.7	41.3	27.0	9.4	2.6	19.7
	고졸	(276)	8.6	22.7	21.0	5.9	7.0	22.0	12.9	31.2	26.9	7.0	22.0
	대재이상	(572)	5.0	21.0	22.8	13.2	18.9	14.3	4.7	26.0	36.0	18.9	14.3
	모름/무응답	(8)	31.3	31.2	0.0	0.0	0.0	0.0	37.5	62.5	0.0	0.0	0.0
이념성향	진보	(253)	7.6	21.6	23.8	12.0	17.6	9.9	7.5	29.1	35.8	17.6	9.9
	중도	(364)	5.3	21.5	23.1	10.6	13.2	18.1	8.2	26.8	33.7	13.2	18.1
	보수	(297)	11.4	19.2	15.9	8.5	9.9	19.7	15.4	30.6	24.4	9.9	19.7
	모름/무응답	(86)	6.0	13.7	5.1	4.4	10.7	25.2	34.9	19.7	9.5	10.7	25.2
직업별	농/임/어업	(29)	26.7	16.4	7.0	3.0	5.6	17.6	23.7	43.1	10.0	5.6	17.6
	자영업	(148)	11.4	27.3	18.5	8.5	8.9	15.6	9.8	38.7	27.0	8.9	15.6
	블루칼라	(141)	6.5	27.3	21.6	7.5	8.0	17.7	11.6	33.8	29.0	8.0	17.7
	화이트칼라	(251)	4.4	21.0	25.1	11.9	20.4	15.5	1.8	25.4	37.0	20.4	15.5
	학생	(101)	0.0	16.8	21.4	21.3	27.5	8.4	4.7	16.8	42.7	27.5	8.4
	가사	(244)	6.4	15.2	15.9	6.3	9.5	21.4	25.3	21.6	22.2	9.5	21.4
	직업군인	(1)	0.0	0.0	100.0	0.0	0.0	0.0	0.0	0.0	100.0	0.0	0.0
	무직/기타	(85)	20.0	13.4	13.8	8.4	3.2	22.0	19.4	33.4	22.2	3.2	22.0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15.8	13.0	10.0	7.1	7.8	19.6	26.8	28.7	17.0	7.8	19.6
	201~300만원	(151)	8.0	21.6	18.6	7.8	15.3	20.4	8.2	29.6	26.4	15.3	20.4
	301~400만원	(172)	3.5	21.0	21.2	10.6	15.1	19.4	9.2	24.5	31.7	15.1	19.4
	401~500만원	(148)	5.8	22.7	23.1	14.6	10.4	15.5	7.9	28.6	37.7	10.4	15.5
	501만원 이상	(214)	4.4	25.0	28.9	9.6	16.0	11.4	4.6	29.4	38.5	16.0	11.4
	모름/무응답	(97)	7.0	18.1	14.2	10.6	15.7	17.2	17.2	25.1	24.9	15.7	17.2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11.2	19.0	16.9	7.0	7.4	18.9	19.5	30.2	23.9	7.4	18.9
	신문/잡지	(88)	10.2	25.1	22.0	6.7	10.5	18.6	6.8	35.4	28.7	10.5	18.6
	인터넷/SNS	(422)	3.6	21.1	22.6	12.9	20.1	14.4	5.3	24.7	35.5	20.1	14.4
	주변사람	(8)	0.0	0.0	3.4	19.6	0.0	46.6	30.4	0.0	23.1	0.0	46.6
	모름/무응답	(15)	5.2	12.0	13.1	21.1	15.2	10.3	23.2	17.2	34.1	15.2	10.3

[통일 후 국가발전 공감 정도]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모름/ 무응답	공감	비공감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22.4	39.0	27.3	8.0	3.3	61.4	35.3	2.78	59.48
성 별	남성	(496)	31.3	38.3	19.2	8.6	2.7	69.6	27.7	2.95	64.93
	여성	(504)	13.7	39.6	35.3	7.4	4.0	53.3	42.7	2.62	54.04
연령별	19~29세	(179)	9.5	43.0	33.4	10.7	3.4	52.5	44.1	2.53	51.02
	30대	(185)	14.3	38.3	29.5	16.3	1.7	52.6	45.7	2.51	50.48
	40대	(212)	28.5	34.5	30.1	4.9	2.1	63.0	35.0	2.88	62.80
	50대	(198)	27.7	41.4	22.6	5.9	2.4	69.1	28.5	2.93	64.36
	60대이상	(226)	29.0	38.5	22.1	3.8	6.5	67.6	25.9	2.99	66.43
거주지별	서울	(203)	22.2	37.2	29.4	8.6	2.6	59.4	38.1	2.75	58.28
	인천/경기	(291)	21.4	38.3	28.0	9.5	2.9	59.7	37.4	2.74	57.92
	대전/충청	(102)	22.4	42.2	25.6	8.3	1.5	64.7	33.9	2.80	59.98
	광주/전라	(103)	31.8	33.4	24.9	6.0	4.0	65.2	30.8	2.95	64.93
	대구/경북	(102)	17.2	37.5	30.4	7.6	7.3	54.7	38.0	2.69	56.44
	부산/울산/경남	(158)	21.6	44.6	24.1	5.5	4.1	66.2	29.7	2.86	61.95
출생지별	강원/제주	(41)	23.6	40.7	26.5	9.1	0.0	64.3	35.7	2.79	59.58
	서울	(175)	20.5	41.6	23.8	12.5	1.6	62.1	36.3	2.71	57.08
	인천/경기	(132)	19.0	34.3	35.8	8.5	2.4	53.2	44.3	2.65	55.08
	대전/충청	(141)	24.3	38.8	28.5	6.0	2.3	63.1	34.5	2.83	61.13
	광주/전라	(183)	25.3	38.8	25.2	7.1	3.6	64.1	32.4	2.85	61.75
	대구/경북	(129)	21.4	36.4	30.1	7.1	5.1	57.8	37.1	2.76	58.66
	부산/울산/경남	(176)	22.4	43.2	24.0	5.9	4.5	65.6	29.9	2.86	62.01
	강원/제주	(49)	16.8	40.8	27.2	9.7	5.6	57.6	36.9	2.69	56.18
	북한	(6)	61.2	23.7	15.2	0.0	0.0	84.8	15.2	3.46	82.00
	해외	(8)	46.0	16.4	25.9	11.7	0.0	62.4	37.6	2.97	65.57
학력별	중졸이하	(144)	29.7	32.5	22.8	6.0	9.0	62.2	28.8	2.94	64.81
	고졸	(276)	25.2	36.6	26.5	7.6	4.1	61.8	34.1	2.83	60.90
	대재이상	(572)	19.0	41.9	28.8	8.8	1.5	60.9	37.5	2.72	57.43
	모름/무응답	(8)	40.5	28.8	30.6	0.0	0.0	69.4	30.6	3.10	69.96
이념성향	진보	(253)	28.6	39.5	23.6	6.2	2.0	68.1	29.8	2.92	64.14
	중도	(364)	19.6	43.4	30.0	5.3	1.8	63.0	35.3	2.79	59.56
	보수	(297)	22.4	35.9	26.5	11.7	3.5	58.3	38.2	2.71	57.16
	모름/무응답	(86)	16.2	29.7	29.4	11.8	12.9	45.9	41.2	2.58	52.57
직업별	농/임/어업	(29)	42.7	29.1	16.3	5.5	6.3	71.8	21.9	3.16	72.12
	자영업	(148)	37.4	35.4	17.9	5.7	3.5	72.9	23.6	3.08	69.46
	블루칼라	(141)	33.0	41.2	17.3	6.0	2.5	74.2	23.2	3.04	67.96
	화이트칼라	(251)	14.6	38.5	32.4	13.3	1.2	53.1	45.7	2.55	51.68
	학생	(101)	10.9	47.1	33.3	7.2	1.5	58.0	40.5	2.63	54.23
	가사	(244)	14.7	37.5	36.5	6.3	5.1	52.1	42.8	2.64	54.58
	직업군인	(1)	0.0	100.0	0.0	0.0	0.0	100.0	0.0	3.00	66.67
	무직/기타	(85)	31.4	40.3	15.5	6.1	6.7	71.6	21.6	3.04	67.94
	200만원 이하	(218)	29.7	30.4	26.7	6.8	6.4	60.1	33.5	2.89	62.89
소득별	201~300만원	(151)	23.7	47.7	21.1	5.4	2.0	71.4	26.6	2.92	63.85
	301~400만원	(172)	15.0	36.6	34.6	11.6	2.2	51.6	46.2	2.56	52.11
	401~500만원	(148)	24.4	39.2	30.2	5.2	1.0	63.5	35.4	2.84	61.19
	501만원 이상	(214)	21.8	44.0	22.3	10.8	1.0	65.9	33.1	2.78	59.22
	모름/무응답	(97)	15.7	37.4	31.7	6.5	8.8	53.1	38.1	2.68	56.12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26.2	35.7	27.3	6.3	4.4	61.9	33.7	2.85	61.83
	신문/잡지	(88)	27.1	36.8	27.1	7.5	1.4	63.9	34.6	2.85	61.57
	인터넷/SNS	(422)	16.9	43.5	27.7	9.6	2.4	60.3	37.3	2.69	56.43
	주변사람	(8)	21.8	19.4	46.8	12.0	0.0	41.2	58.8	2.51	50.32
	모름/무응답	(15)	35.8	38.2	5.4	14.7	5.9	74.0	20.1	3.01	67.05

[향후 남북관계 전망]

선생님께서는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좋아질 것이다	다소 좋아질 것이다	변화 없을 것 이다	다소 나빠질 것이다	매우 나빠질 것이다	모름/ 무응답	좋아질 것	변화 없을 것	나빠질 것	평균 (5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4.9	25.8	46.9	13.9	3.4	5.1	30.7	46.9	17.3	3.16	53.91
성 별	남성	(496)	5.7	26.8	47.1	13.2	4.7	2.5	32.6	47.1	17.9	3.16	54.03
	여성	(504)	4.1	24.8	46.7	14.6	2.2	7.6	28.9	46.7	16.8	3.15	53.78
연령별	19~29세	(179)	1.8	19.0	59.3	14.2	3.4	2.2	20.9	59.3	17.6	3.02	50.41
	30대	(185)	5.3	22.3	55.8	11.3	4.5	0.8	27.5	55.8	15.9	3.12	53.11
	40대	(212)	7.7	29.4	42.5	15.9	3.3	1.1	37.1	42.5	19.2	3.23	55.63
	50대	(198)	2.5	23.9	46.6	17.5	1.5	8.0	26.4	46.6	19.0	3.09	52.27
	60대이상	(226)	6.6	32.2	34.1	10.7	4.3	12.0	38.8	34.1	15.0	3.30	57.41
거주지별	서울	(203)	4.9	22.8	48.3	14.8	2.5	6.7	27.6	48.3	17.4	3.13	53.37
	인천/경기	(291)	2.9	25.6	46.9	14.9	4.1	5.5	28.5	46.9	19.0	3.09	52.20
	대전/충청	(102)	6.0	27.0	47.1	11.3	5.5	3.1	33.0	47.1	16.8	3.17	54.31
	광주/전라	(103)	10.2	22.7	52.8	8.9	1.5	4.0	32.9	52.8	10.3	3.33	58.18
	대구/경북	(102)	4.2	29.4	43.2	18.6	2.2	2.5	33.6	43.2	20.8	3.15	53.78
	부산/울산/경남	(158)	4.4	30.5	44.8	11.6	3.8	4.9	34.9	44.8	15.5	3.21	55.25
	강원/제주	(41)	6.8	19.8	41.5	18.3	4.3	9.3	26.7	41.5	22.6	3.07	51.84
출생지별	서울	(175)	3.8	27.3	48.1	12.3	6.0	2.5	31.1	48.1	18.3	3.11	52.72
	인천/경기	(132)	2.5	27.9	51.0	12.0	0.9	5.7	30.4	51.0	12.9	3.20	55.10
	대전/충청	(141)	6.4	25.1	48.0	12.5	5.3	2.6	31.6	48.0	17.8	3.15	53.81
	광주/전라	(183)	6.9	20.9	49.8	14.9	0.8	6.6	27.9	49.8	15.7	3.20	54.89
	대구/경북	(129)	4.7	27.7	41.4	22.9	0.6	2.7	32.4	41.4	23.6	3.13	53.30
	부산/울산/경남	(176)	4.0	27.6	42.0	11.5	6.4	8.5	31.6	42.0	17.8	3.13	53.13
	강원/제주	(49)	6.7	23.3	47.0	11.7	3.6	7.7	30.0	47.0	15.3	3.19	54.84
	북한	(6)	16.4	40.5	12.7	15.2	0.0	15.2	57.0	12.7	15.2	3.69	67.16
	해외	(8)	0.0	13.0	87.0	0.0	0.0	0.0	13.0	87.0	0.0	3.13	53.24
학력별	중졸이하	(144)	10.4	27.7	34.2	8.4	3.5	15.8	38.1	34.2	11.9	3.39	59.81
	고졸	(276)	5.5	23.7	45.8	16.6	3.3	5.2	29.1	45.8	19.9	3.12	53.02
	대재이상	(572)	3.0	26.4	51.3	13.9	3.3	2.1	29.4	51.3	17.2	3.12	53.05
	모름/무응답	(8)	23.2	21.5	0.0	22.1	15.9	17.2	44.8	0.0	38.1	3.17	54.22
이념성향	진보	(253)	7.4	29.1	41.4	15.8	2.4	3.9	36.5	41.4	18.2	3.24	56.06
	중도	(364)	3.7	24.8	54.2	11.6	3.0	2.5	28.6	54.2	14.6	3.15	53.76
	보수	(297)	3.3	25.1	43.1	17.6	5.5	5.5	28.3	43.1	23.1	3.03	50.78
	모름/무응답	(86)	8.3	22.6	44.8	5.3	1.0	17.9	31.0	44.8	6.3	3.39	59.72
직업별	농/임/어업	(29)	22.2	26.3	24.3	10.0	4.4	12.8	48.5	24.3	14.4	3.60	64.90
	자영업	(148)	2.9	26.9	46.7	16.1	3.3	4.0	29.8	46.7	19.5	3.10	52.58
	블루칼라	(141)	12.3	21.9	46.3	10.7	4.0	4.9	34.1	46.3	14.6	3.29	57.30
	화이트칼라	(251)	1.8	29.1	52.1	11.5	3.5	2.0	30.9	52.1	15.0	3.14	53.62
	학생	(101)	1.0	21.1	59.0	16.2	0.0	2.7	22.1	59.0	16.2	3.07	51.77
	가사	(244)	3.1	26.8	43.4	15.9	2.6	8.2	29.9	43.4	18.5	3.13	53.23
	직업군인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0.0	3.00	50.00
	무직/기타	(85)	9.5	23.4	35.2	15.5	8.6	7.8	32.9	35.2	24.1	3.11	52.63
	모름/무응답	(97)	3.2	27.6	46.2	10.7	3.2	9.1	30.8	46.2	13.9	3.19	54.64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10.9	25.1	39.2	11.3	4.0	9.5	36.0	39.2	15.3	3.30	57.61
	201~300만원	(151)	4.4	23.7	47.3	17.5	2.6	4.6	28.1	47.3	20.1	3.10	52.57
	301~400만원	(172)	2.7	23.8	54.1	12.3	3.9	3.2	26.5	54.1	16.2	3.09	52.37
	401~500만원	(148)	4.7	27.5	48.0	14.3	2.3	3.1	32.3	48.0	16.6	3.19	54.68
	501만원 이상	(214)	1.8	27.6	48.2	16.5	4.0	1.9	29.4	48.2	20.5	3.07	51.74
정보접촉 경로	모름/무응답	(97)	3.2	27.6	46.2	10.7	3.2	9.1	30.8	46.2	13.9	3.19	54.64
	TV/라디오	(466)	6.3	27.3	42.5	13.4	3.1	7.3	33.6	42.5	16.5	3.22	55.50
	신문/잡지	(88)	2.3	26.0	50.6	14.2	1.6	5.3	28.3	50.6	15.8	3.14	53.49
	인터넷/SNS	(422)	3.5	24.3	51.6	13.9	4.4	2.2	27.8	51.6	18.3	3.09	52.19
	주변사람	(8)	0.0	29.8	28.8	29.4	0.0	12.0	29.8	28.8	29.4	3.00	50.12
	모름/무응답	(15)	17.8	18.3	36.3	16.8	0.0	10.7	36.2	36.3	16.8	3.42	60.42

[북한에 대한 인식]

선생님께서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협력대상이다	경계대상이다	지원대상이다	적대대상이다	별로 상관없는 대상이다	모름/무응답
◆ 전 체 ◆		(1000)	15.5	34.5	8.0	27.3	10.4	4.3
성 별	남성	(496)	15.6	35.2	6.9	24.1	13.6	4.5
	여성	(504)	15.5	33.8	9.0	30.5	7.1	4.0
연령별	19~29세	(179)	9.0	37.2	6.8	31.6	12.8	2.7
	30대	(185)	18.1	38.3	14.7	16.9	8.5	3.5
	40대	(212)	15.5	46.5	4.2	25.3	6.4	2.1
	50대	(198)	15.2	31.3	6.1	32.4	11.8	3.3
	60대이상	(226)	19.0	21.0	8.6	30.0	12.3	9.1
거주지별	서울	(203)	16.1	39.5	5.8	27.0	7.7	3.9
	인천/경기	(291)	16.3	31.8	8.4	30.4	9.3	3.7
	대전/충청	(102)	16.6	42.0	6.5	22.2	6.5	6.3
	광주/전라	(103)	15.6	36.6	8.1	21.3	15.4	3.2
	대구/경북	(102)	13.0	24.2	11.2	34.3	14.1	3.2
	부산/울산/경남	(158)	15.1	33.7	9.6	24.3	12.2	5.1
	강원/제주	(41)	13.0	33.7	4.9	30.0	11.1	7.3
출생지별	서울	(175)	18.4	41.0	6.9	23.8	8.2	1.7
	인천/경기	(132)	20.3	27.6	10.9	30.3	9.4	1.4
	대전/충청	(141)	15.1	34.1	8.0	28.9	6.9	6.9
	광주/전라	(183)	13.6	40.0	5.9	23.7	11.7	5.1
	대구/경북	(129)	11.3	28.5	10.8	36.1	10.1	3.2
	부산/울산/경남	(176)	16.0	32.0	8.5	24.9	14.3	4.4
	강원/제주	(49)	10.4	37.9	4.1	28.7	12.8	6.1
	북한	(6)	0.0	40.1	0.0	29.6	15.2	15.2
	해외	(8)	33.0	16.4	0.0	13.0	0.0	37.6
학력별	중졸이하	(144)	15.6	17.1	12.9	26.1	13.7	14.6
	고졸	(276)	15.0	28.5	9.1	33.1	9.8	4.5
	대재이상	(572)	16.0	41.5	6.3	24.7	10.0	1.5
	모름/무응답	(8)	0.0	54.8	0.0	37.9	0.0	7.3
이념성향	진보	(253)	17.6	46.6	6.1	20.7	6.4	2.7
	중도	(364)	13.8	42.7	6.8	27.8	6.4	2.4
	보수	(297)	16.7	19.5	7.9	33.6	17.6	4.6
	모름/무응답	(86)	12.9	16.2	18.2	23.3	13.9	15.5
직업별	농/임/어업	(29)	22.5	18.2	12.4	20.5	19.7	6.6
	자영업	(148)	16.7	38.0	6.3	26.3	11.5	1.2
	블루칼라	(141)	14.0	41.1	8.6	18.4	11.4	6.5
	화이트칼라	(251)	17.0	36.9	8.4	27.3	8.4	1.9
	학생	(101)	16.0	36.5	3.2	32.6	10.7	1.0
	가사	(244)	13.1	31.0	9.3	31.6	8.5	6.5
	직업군인	(1)	0.0	0.0	0.0	0.0	100.0	0.0
	무직/기타	(85)	16.3	24.2	8.6	28.2	13.1	9.5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15.7	25.1	11.6	25.7	12.6	9.3
	201~300만원	(151)	16.5	31.7	7.9	27.9	11.7	4.3
	301~400만원	(172)	12.9	41.8	7.6	27.9	7.4	2.4
	401~500만원	(148)	20.4	36.3	4.8	28.7	8.4	1.3
	501만원 이상	(214)	14.9	38.4	5.1	30.5	9.8	1.3
	모름/무응답	(97)	12.6	36.1	11.6	20.1	12.6	7.1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15.4	27.9	9.5	29.3	11.8	6.0
	신문/잡지	(88)	20.3	33.2	7.1	30.5	8.9	0.0
	인터넷/SNS	(422)	15.6	41.7	6.5	24.1	9.0	3.1
	주변사람	(8)	0.0	42.6	0.0	45.4	12.0	0.0
	모름/무응답	(15)	0.0	39.9	9.8	27.1	11.4	11.8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선생님께서서는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높다	약간 높다	약간 낮다	매우 낮다	모름/ 무응답	높다	낮다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9.0	31.9	31.8	21.1	6.2	40.9	52.9	2.31	43.55
성 별	남성	(496)	10.7	33.1	30.1	23.2	2.9	43.8	53.3	2.32	44.10
	여성	(504)	7.3	30.8	33.4	19.1	9.5	38.0	52.5	2.29	42.97
연령별	19~29세	(179)	7.9	30.9	35.0	20.6	5.7	38.7	55.6	2.28	42.52
	30대	(185)	11.1	37.4	33.7	17.8	0.0	48.4	51.6	2.42	47.22
	40대	(212)	12.2	33.7	29.7	17.6	6.8	45.9	47.3	2.44	47.83
	50대	(198)	7.6	35.3	31.8	23.7	1.5	42.9	55.5	2.27	42.43
	60대이상	(226)	6.4	23.5	29.5	25.4	15.2	29.9	54.9	2.13	37.61
거주지별	서울	(203)	6.4	38.8	33.4	17.0	4.4	45.2	50.4	2.36	45.38
	인천/경기	(291)	11.3	28.6	28.9	24.5	6.7	39.9	53.5	2.29	42.84
	대전/충청	(102)	9.7	40.7	27.8	18.0	3.8	50.4	45.8	2.44	47.91
	광주/전라	(103)	11.6	23.5	39.7	19.6	5.7	35.1	59.2	2.29	42.93
	대구/경북	(102)	5.2	34.6	27.2	24.4	8.6	39.8	51.6	2.23	40.84
	부산/울산/경남	(158)	10.1	29.2	32.7	19.5	8.4	39.4	52.2	2.33	44.27
	강원/제주	(41)	2.4	23.6	41.7	27.4	4.9	26.1	69.1	2.01	33.72
출생지별	서울	(175)	12.7	34.7	28.4	18.7	5.4	47.4	47.2	2.44	47.93
	인천/경기	(132)	12.0	33.0	26.1	25.9	3.1	45.0	52.0	2.32	43.99
	대전/충청	(141)	8.8	29.9	34.4	22.4	4.6	38.7	56.7	2.26	42.11
	광주/전라	(183)	8.7	30.2	35.5	16.5	9.1	38.9	51.9	2.34	44.75
	대구/경북	(129)	5.2	33.4	29.9	26.1	5.4	38.6	56.0	2.19	39.60
	부산/울산/경남	(176)	6.8	30.6	34.6	20.5	7.5	37.3	55.1	2.26	41.86
	강원/제주	(49)	5.9	32.2	33.2	22.2	6.6	38.1	55.4	2.23	41.08
	북한	(6)	29.6	27.4	12.7	30.3	0.0	57.0	43.0	2.56	52.06
학력별	해외	(8)	0.0	33.0	42.4	0.0	24.6	33.0	42.4	2.44	47.93
	중졸이하	(144)	4.4	22.8	26.6	24.0	22.2	27.2	50.7	2.10	36.55
	고졸	(276)	9.3	29.0	34.2	22.3	5.2	38.3	56.5	2.27	42.22
	대재이상	(572)	9.6	35.7	31.9	20.0	2.7	45.4	52.0	2.36	45.31
	모름/무응답	(8)	33.3	21.2	29.6	7.3	8.7	54.5	36.9	2.88	62.69
이념성향	진보	(253)	11.8	35.9	30.7	18.8	2.8	47.7	49.5	2.42	47.28
	중도	(364)	9.0	33.9	35.1	19.2	2.8	42.9	54.3	2.34	44.53
	보수	(297)	7.4	28.8	30.8	25.7	7.3	36.2	56.6	2.19	39.74
	모름/무응답	(86)	6.5	22.3	23.9	20.3	27.0	28.7	44.3	2.20	40.13
직업별	농/임/어업	(29)	4.2	28.0	26.6	31.7	9.5	32.3	58.2	2.05	35.11
	자영업	(148)	8.6	27.9	35.5	25.5	2.4	36.5	61.1	2.20	40.01
	블루칼라	(141)	9.5	35.5	30.5	18.4	6.1	45.0	48.9	2.39	46.18
	화이트칼라	(251)	11.7	37.4	28.3	20.4	2.1	49.2	48.7	2.41	47.11
	학생	(101)	7.6	37.8	33.7	18.4	2.5	45.4	52.1	2.35	45.15
	가사	(244)	6.2	28.0	31.8	20.9	13.2	34.1	52.7	2.22	40.79
	직업군인	(1)	0.0	100.0	0.0	0.0	0.0	100.0	0.0	3.00	66.67
	무직/기타	(85)	12.1	21.4	37.3	20.8	8.3	33.5	58.1	2.27	42.36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7.0	24.6	29.8	25.9	12.7	31.6	55.7	2.15	38.18
	201~300만원	(151)	6.3	38.3	31.4	19.2	4.7	44.6	50.7	2.33	44.43
	301~400만원	(172)	10.0	30.5	32.8	23.0	3.6	40.6	55.8	2.29	42.87
	401~500만원	(148)	12.4	30.6	33.4	20.7	2.8	43.0	54.1	2.36	45.24
	501만원 이상	(214)	10.3	39.4	28.5	18.9	2.9	49.7	47.5	2.42	47.40
	모름/무응답	(97)	7.7	26.1	39.5	15.4	11.2	33.8	55.0	2.29	43.11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9.7	28.0	32.2	21.3	8.8	37.7	53.5	2.29	42.90
	신문/잡지	(88)	7.9	30.3	34.4	23.2	4.2	38.2	57.6	2.24	41.32
	인터넷/SNS	(422)	8.9	36.7	31.1	20.3	3.0	45.5	51.5	2.35	45.03
	주변사람	(8)	0.0	31.2	20.7	21.8	26.4	31.2	42.4	2.13	37.60
	모름/무응답	(15)	0.0	30.3	26.5	26.6	16.6	30.3	53.1	2.04	34.79

[우리나라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 선생님께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기타	모름/무응답
◆ 전 체 ◆		(1000)	47.7	39.4	3.7	2.6	1.0	5.6
성 별	남성	(496)	54.3	35.8	4.0	2.4	1.1	2.3
	여성	(504)	41.2	43.0	3.3	2.7	0.9	8.9
연령별	19~29세	(179)	27.5	57.4	3.4	4.3	2.0	5.4
	30대	(185)	46.6	48.8	0.5	2.0	1.1	1.0
	40대	(212)	60.5	28.0	5.0	1.6	1.4	3.5
	50대	(198)	55.7	31.2	3.5	3.4	0.4	5.8
	60대이상	(226)	45.7	35.7	5.3	1.8	0.4	11.3
거주지별	서울	(203)	44.7	43.3	3.3	2.9	1.6	4.0
	인천/경기	(291)	49.0	41.2	3.1	1.1	0.4	5.2
	대전/충청	(102)	48.5	36.2	3.0	3.4	2.0	7.0
	광주/전라	(103)	51.5	38.7	4.9	0.0	1.7	3.2
	대구/경북	(102)	44.1	45.6	3.2	2.5	0.0	4.6
	부산/울산/경남	(158)	51.0	31.0	4.1	5.4	0.4	8.0
	강원/제주	(41)	38.9	35.3	7.3	4.4	2.4	11.7
출생지별	서울	(175)	47.1	41.9	2.3	2.1	2.1	4.4
	인천/경기	(132)	50.2	41.1	3.6	1.5	0.8	2.9
	대전/충청	(141)	50.0	33.0	4.1	5.0	0.7	7.1
	광주/전라	(183)	50.0	38.0	5.5	1.4	1.0	4.1
	대구/경북	(129)	44.3	48.3	2.5	2.2	0.0	2.6
	부산/울산/경남	(176)	49.3	35.2	3.1	3.1	0.4	8.9
	강원/제주	(49)	35.1	41.4	4.1	3.7	2.0	13.8
	북한	(6)	59.0	27.9	0.0	0.0	13.1	0.0
학력별	해외	(8)	20.0	54.0	13.0	0.0	0.0	13.0
	중졸이하	(144)	36.7	35.2	6.5	3.4	0.0	18.2
	고졸	(276)	52.6	34.0	3.9	3.0	1.8	4.7
	대재이상	(572)	48.1	43.5	2.8	2.2	0.9	2.6
	모름/무응답	(8)	54.8	16.7	7.3	0.0	0.0	21.2
이념성향	진보	(253)	50.0	39.9	5.2	2.3	1.3	1.3
	중도	(364)	48.0	39.1	3.5	3.1	1.4	4.9
	보수	(297)	51.6	37.4	1.4	2.5	0.5	6.4
	모름/무응답	(86)	26.6	46.5	7.5	1.2	0.0	18.2
직업별	농/임/어업	(29)	44.0	33.1	7.7	5.8	0.0	9.5
	자영업	(148)	61.5	29.8	3.1	2.0	1.2	2.5
	블루칼라	(141)	48.9	36.9	4.6	2.6	0.0	7.0
	화이트칼라	(251)	52.3	39.1	2.1	3.2	1.3	2.1
	학생	(101)	31.2	53.6	3.6	4.5	2.2	4.8
	가사	(244)	42.5	42.4	4.2	0.9	1.1	8.9
	직업군인	(1)	0.0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85)	45.3	37.7	4.8	3.0	0.0	9.2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41.1	41.2	4.9	2.6	0.0	10.2
	201~300만원	(151)	51.0	37.1	3.9	2.0	1.5	4.5
	301~400만원	(172)	49.5	38.7	3.2	3.7	1.9	3.0
	401~500만원	(148)	53.0	35.5	3.0	2.5	1.8	4.2
	501만원 이상	(214)	55.7	36.6	3.1	2.3	0.4	1.9
	모름/무응답	(97)	29.0	52.9	3.7	2.0	1.0	11.5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48.5	37.0	4.1	2.0	1.2	7.3
	신문/잡지	(88)	53.3	39.2	3.4	2.2	0.0	2.0
	인터넷/SNS	(422)	46.3	41.9	3.2	3.1	1.1	4.4
	주변사람	(8)	33.4	51.4	0.0	15.2	0.0	0.0
	모름/무응답	(15)	40.1	42.7	6.5	0.0	0.0	10.7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 인식]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안정적 이다	안정 적인 편이다	보통 이다	불안정 한 편 이다	매우 불안정 하다	모름/ 무응답	안정	보통	불안정	평균 (5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1.7	16.7	37.0	36.8	6.7	1.1	18.4	37.0	43.5	2.70	42.38
성 별	남성	(496)	2.4	17.5	36.6	34.4	8.6	0.5	19.9	36.6	43.0	2.71	42.67
	여성	(504)	0.9	15.9	37.4	39.1	4.9	1.8	16.8	37.4	44.0	2.68	42.09
연령별	19~29세	(179)	2.0	18.4	32.5	39.6	7.5	0.0	20.4	32.5	47.1	2.68	41.96
	30대	(185)	0.5	15.2	43.1	29.6	10.5	1.0	15.7	43.1	40.1	2.65	41.33
	40대	(212)	3.8	15.7	38.0	34.9	6.3	1.3	19.5	38.0	41.2	2.76	43.88
	50대	(198)	0.7	19.7	36.4	35.3	7.2	0.7	20.4	36.4	42.6	2.71	42.76
	60대이상	(226)	1.2	14.8	35.3	43.5	2.9	2.2	16.1	35.3	46.4	2.67	41.82
거주지별	서울	(203)	1.7	20.8	34.5	37.2	5.7	0.0	22.6	34.5	42.9	2.76	43.93
	인천/경기	(291)	1.8	14.1	36.3	37.6	8.3	2.0	15.9	36.3	45.9	2.63	40.70
	대전/충청	(102)	0.0	16.7	38.4	37.1	7.8	0.0	16.7	38.4	44.9	2.64	40.98
	광주/전라	(103)	2.9	19.6	38.3	31.1	6.6	1.5	22.5	38.3	37.7	2.81	45.23
	대구/경북	(102)	2.0	19.6	30.2	41.7	5.9	0.6	21.5	30.2	47.6	2.70	42.45
	부산/울산/경남	(158)	1.8	13.0	42.2	35.0	6.0	2.1	14.8	42.2	40.9	2.69	42.27
	강원/제주	(41)	0.0	14.6	45.2	37.8	2.4	0.0	14.6	45.2	40.2	2.72	43.00
출생지별	서울	(175)	2.5	14.0	39.8	35.8	7.9	0.0	16.5	39.8	43.7	2.67	41.84
	인천/경기	(132)	1.2	19.0	35.4	31.0	11.2	2.1	20.3	35.4	42.3	2.67	41.83
	대전/충청	(141)	0.0	16.3	37.3	37.8	8.0	0.6	16.3	37.3	45.8	2.62	40.55
	광주/전라	(183)	2.2	17.3	30.1	44.2	4.8	1.3	19.5	30.1	49.0	2.67	41.85
	대구/경북	(129)	1.5	18.4	34.4	39.0	5.2	1.4	19.9	34.4	44.2	2.72	42.91
	부산/울산/경남	(176)	2.6	15.8	41.0	34.5	4.8	1.3	18.5	41.0	39.2	2.77	44.20
	강원/제주	(49)	0.0	15.8	51.8	30.4	2.0	0.0	15.8	51.8	32.4	2.81	45.32
	북한	(6)	0.0	0.0	48.0	52.0	0.0	0.0	0.0	48.0	52.0	2.48	37.01
학력별	해외	(8)	0.0	42.4	13.0	7.1	25.9	11.7	42.4	13.0	33.0	2.81	45.31
	중졸이하	(144)	0.6	15.4	34.6	39.6	5.7	3.9	16.1	34.6	45.3	2.64	41.06
	고졸	(276)	1.5	11.1	38.0	42.5	6.1	0.7	12.6	38.0	48.7	2.59	39.77
	대재이상	(572)	2.0	19.6	37.2	33.3	7.3	0.6	21.6	37.2	40.6	2.76	43.90
	모름/무응답	(8)	0.0	23.2	36.6	40.2	0.0	0.0	23.2	36.6	40.2	2.83	45.77
이념성향	진보	(253)	1.6	20.4	37.0	32.9	8.0	0.0	22.0	37.0	41.0	2.75	43.65
	중도	(364)	1.5	15.4	42.4	36.3	3.3	1.0	16.9	42.4	39.7	2.75	43.77
	보수	(297)	1.4	15.6	32.6	41.3	8.0	1.0	17.0	32.6	49.4	2.61	40.14
	모름/무응답	(86)	3.6	15.0	29.6	34.3	12.3	5.2	18.6	29.6	46.6	2.61	40.32
직업별	농/임/어업	(29)	3.5	17.5	43.4	29.3	6.4	0.0	21.0	43.4	35.7	2.82	45.60
	자영업	(148)	2.1	15.3	36.5	35.6	10.5	0.0	17.4	36.5	46.1	2.63	40.73
	블루칼라	(141)	0.8	19.6	40.5	29.5	8.6	1.0	20.4	40.5	38.2	2.74	43.55
	화이트칼라	(251)	1.3	15.3	37.9	35.9	9.6	0.0	16.6	37.9	45.5	2.63	40.73
	학생	(101)	2.2	23.8	32.6	40.4	1.0	0.0	26.0	32.6	41.4	2.86	46.46
	가사	(244)	1.2	14.0	38.9	37.8	4.4	3.6	15.2	38.9	42.2	2.69	42.16
	직업군인	(1)	0.0	100.0	0.0	0.0	0.0	0.0	100.0	0.0	0.0	4.00	75.00
	무직/기타	(85)	3.4	16.6	27.9	49.2	1.9	1.0	20.0	27.9	51.1	2.70	42.50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2.0	13.8	40.2	38.0	3.3	2.7	15.8	40.2	41.2	2.73	43.16
	201~300만원	(151)	2.0	19.0	34.1	36.7	7.4	0.8	21.0	34.1	44.1	2.71	42.82
	301~400만원	(172)	0.7	15.0	33.1	43.1	7.8	0.4	15.7	33.1	50.8	2.58	39.43
	401~500만원	(148)	2.8	21.5	37.7	30.1	8.0	0.0	24.3	37.7	38.1	2.81	45.26
	501만원 이상	(214)	0.8	16.8	39.1	33.4	8.3	1.6	17.6	39.1	41.6	2.68	42.00
	모름/무응답	(97)	2.1	15.1	35.9	41.0	5.9	0.0	17.2	35.9	47.0	2.66	41.59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1.9	14.5	39.5	38.1	5.1	0.9	16.4	39.5	43.2	2.70	42.43
	신문/잡지	(88)	3.7	24.7	35.8	32.2	0.8	2.8	28.4	35.8	33.0	2.98	49.58
	인터넷/SNS	(422)	0.8	18.0	34.9	36.7	9.0	0.6	18.8	34.9	45.7	2.65	41.18
	주변사람	(8)	0.0	0.0	39.4	38.8	21.8	0.0	0.0	39.4	60.6	2.18	29.41
	모름/무응답	(15)	6.5	12.0	26.7	27.1	16.4	11.3	18.5	26.7	43.4	2.61	40.20

[우리사회 통일준비]

선생님께서서는 우리사회의 통일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잘되어 있다	잘되어 있는 편이다	잘되어 있지 않은 편 이다	전혀 안되어 있다	모름/ 무응답	긍정	부정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0.9	13.8	55.8	23.2	6.3	14.7	79.0	1.92	30.63
성 별	남성	(496)	1.0	13.6	55.3	26.2	3.9	14.6	81.5	1.89	29.65
	여성	(504)	0.9	13.9	56.3	20.3	8.7	14.8	76.6	1.95	31.64
연령별	19~29세	(179)	0.7	8.7	62.6	27.1	0.9	9.4	89.7	1.83	27.61
	30대	(185)	0.0	7.8	48.2	40.9	3.1	7.8	89.1	1.66	21.95
	40대	(212)	1.1	11.6	61.1	23.5	2.7	12.7	84.6	1.90	30.03
	50대	(198)	1.0	14.2	60.0	20.2	4.5	15.3	80.2	1.96	31.96
	60대이상	(226)	1.6	24.3	47.9	8.1	18.2	25.8	56.0	2.24	41.22
거주지별	서울	(203)	0.6	10.0	59.5	24.7	5.3	10.6	84.1	1.86	28.62
	인천/경기	(291)	1.2	11.4	52.8	27.7	6.8	12.7	80.5	1.85	28.41
	대전/충청	(102)	1.1	13.7	55.2	24.8	5.2	14.8	80.0	1.91	30.19
	광주/전라	(103)	2.2	12.0	57.0	22.7	6.1	14.2	79.7	1.93	31.08
	대구/경북	(102)	1.0	21.8	50.8	20.8	5.6	22.8	71.6	2.03	34.38
	부산/울산/경남	(158)	0.0	15.9	61.1	15.4	7.7	15.9	76.4	2.01	33.51
	강원/제주	(41)	0.0	25.2	49.6	17.9	7.3	25.2	67.4	2.08	35.98
출생지별	서울	(175)	0.7	5.0	61.9	28.8	3.5	5.8	90.7	1.77	25.61
	인천/경기	(132)	0.6	16.1	51.7	24.7	6.9	16.7	76.4	1.92	30.70
	대전/충청	(141)	1.4	13.6	52.1	23.7	9.2	15.0	75.8	1.92	30.68
	광주/전라	(183)	1.8	10.6	55.5	27.2	4.9	12.4	82.7	1.86	28.77
	대구/경북	(129)	0.8	18.7	55.0	20.4	5.1	19.4	75.4	2.00	33.25
	부산/울산/경남	(176)	0.5	15.3	60.6	16.1	7.5	15.8	76.7	2.00	33.39
	강원/제주	(49)	0.0	23.0	47.2	20.5	9.3	23.0	67.7	2.03	34.24
	북한	(6)	0.0	59.0	15.2	13.1	12.7	59.0	28.3	2.53	50.84
	해외	(8)	0.0	37.6	55.3	0.0	7.1	37.6	55.3	2.40	46.82
학력별	중졸이하	(144)	2.3	29.5	39.8	7.3	21.1	31.8	47.1	2.34	44.65
	고졸	(276)	1.3	14.7	59.5	18.0	6.5	16.0	77.5	1.99	33.12
	대재이상	(572)	0.4	9.3	58.1	30.1	2.1	9.7	88.2	1.80	26.52
	모름/무응답	(8)	0.0	17.7	51.0	0.0	31.3	17.7	51.0	2.26	41.94
이념성향	진보	(253)	1.0	7.9	57.2	31.4	2.6	8.8	88.6	1.78	25.95
	중도	(364)	1.0	14.0	58.5	21.3	5.1	15.0	79.8	1.94	31.48
	보수	(297)	0.7	17.0	52.8	22.6	6.9	17.7	75.4	1.96	31.84
	모름/무응답	(86)	1.1	18.9	50.7	9.4	20.0	19.9	60.0	2.15	38.18
직업별	농/임/어업	(29)	3.0	30.1	41.0	11.4	14.5	33.1	52.4	2.29	42.99
	자영업	(148)	1.4	15.1	52.6	25.7	5.2	16.5	78.3	1.92	30.56
	블루칼라	(141)	0.0	17.1	54.6	24.8	3.5	17.1	79.4	1.92	30.67
	화이트칼라	(251)	0.3	5.9	59.4	31.5	2.9	6.2	90.8	1.74	24.77
	학생	(101)	1.2	7.5	64.1	27.2	0.0	8.7	91.3	1.83	27.61
	가사	(244)	1.0	17.1	52.5	18.2	11.1	18.2	70.8	2.01	33.69
	직업군인	(1)	0.0	0.0	100.0	0.0	0.0	0.0	100.0	2.00	33.33
	무직/기타	(85)	2.1	21.5	56.9	5.6	13.9	23.6	62.5	2.23	41.08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2.4	22.3	49.0	11.0	15.4	24.7	59.9	2.19	39.66
	201~300만원	(151)	0.7	13.7	62.4	18.6	4.7	14.4	81.0	1.96	32.09
	301~400만원	(172)	1.3	9.5	57.3	28.7	3.1	10.9	86.0	1.83	27.65
	401~500만원	(148)	0.0	10.9	59.8	26.5	2.8	10.9	86.3	1.84	27.98
	501만원 이상	(214)	0.4	8.3	57.3	30.8	3.2	8.7	88.1	1.78	25.86
	모름/무응답	(97)	0.0	18.4	48.8	26.5	6.3	18.4	75.3	1.91	30.45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1.4	19.8	55.5	14.4	8.9	21.2	69.9	2.09	36.33
	신문/잡지	(88)	2.0	14.4	51.4	22.9	9.2	16.4	74.3	1.95	31.68
	인터넷/SNS	(422)	0.2	7.4	57.9	31.9	2.5	7.6	89.9	1.75	25.11
	주변사람	(8)	0.0	14.4	50.0	19.6	16.0	14.4	69.6	1.94	31.26
	모름/무응답	(15)	0.0	0.0	34.0	54.2	11.8	0.0	88.2	1.39	12.85

[정부 통일준비 정책 인지 정도]

정부의 통일준비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별로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인지	비인지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2.1	30.4	50.5	15.0	2.0	32.5	65.5	2.20	39.98
성 별	남성	(496)	3.0	40.7	40.9	13.3	2.2	43.7	54.1	2.34	44.72
	여성	(504)	1.1	20.3	59.8	16.8	1.9	21.5	76.6	2.06	35.31
연령별	19~29세	(179)	0.0	29.3	49.0	21.7	0.0	29.3	70.7	2.08	35.85
	30대	(185)	0.6	25.7	52.5	19.3	1.9	26.3	71.8	2.08	35.94
	40대	(212)	4.4	26.5	58.0	11.2	0.0	30.9	69.1	2.24	41.39
	50대	(198)	2.0	34.0	47.7	12.8	3.4	36.1	60.5	2.26	42.08
	60대이상	(226)	2.6	35.9	45.2	11.9	4.4	38.5	57.1	2.31	43.53
거주지별	서울	(203)	1.3	29.1	53.8	13.9	2.0	30.4	67.7	2.18	39.39
	인천/경기	(291)	1.5	34.3	45.6	15.9	2.8	35.8	61.5	2.22	40.67
	대전/충청	(102)	2.2	31.2	47.7	17.7	1.3	33.4	65.3	2.18	39.38
	광주/전라	(103)	3.4	23.8	53.7	18.3	0.8	27.2	72.0	2.12	37.48
	대구/경북	(102)	3.4	34.3	46.0	15.5	0.9	37.7	61.4	2.26	41.96
	부산/울산/경남	(158)	2.7	27.5	55.2	11.3	3.3	30.2	66.5	2.22	40.81
출생지별	강원/제주	(41)	0.0	26.8	59.7	13.5	0.0	26.8	73.2	2.13	37.75
	서울	(175)	1.6	29.4	53.1	15.5	0.4	31.0	68.6	2.17	39.05
	인천/경기	(132)	1.9	37.9	40.6	17.3	2.3	39.8	57.9	2.25	41.61
	대전/충청	(141)	1.2	32.2	47.8	15.8	3.0	33.4	63.6	2.19	39.80
	광주/전라	(183)	3.4	25.1	53.5	15.6	2.4	28.5	69.1	2.17	38.86
	대구/경북	(129)	2.9	33.5	47.7	15.1	0.7	36.5	62.8	2.24	41.48
	부산/울산/경남	(176)	1.8	28.5	54.6	11.6	3.5	30.3	66.2	2.21	40.39
	강원/제주	(49)	0.0	28.4	52.6	19.0	0.0	28.4	71.6	2.09	36.46
	북한	(6)	0.0	31.6	55.3	0.0	13.1	31.6	55.3	2.36	45.46
	해외	(8)	7.1	25.9	67.0	0.0	0.0	33.0	67.0	2.40	46.69
학력별	중졸이하	(144)	2.2	25.6	45.2	20.6	6.4	27.9	65.8	2.10	36.71
	고졸	(276)	2.7	29.0	51.9	15.0	1.5	31.7	66.9	2.20	39.88
	대재이상	(572)	1.5	32.7	50.7	13.9	1.2	34.1	64.6	2.22	40.68
	모름/무응답	(8)	17.5	8.7	73.8	0.0	0.0	26.2	73.8	2.44	47.89
이념성향	진보	(253)	4.1	35.0	46.3	12.9	1.8	39.1	59.2	2.31	43.59
	중도	(364)	0.9	29.0	54.8	14.2	1.1	29.9	69.0	2.17	38.93
	보수	(297)	2.1	33.4	48.2	13.4	2.8	35.6	61.7	2.25	41.66
	모름/무응답	(86)	0.8	13.0	51.7	30.4	4.1	13.7	82.2	1.83	27.80
직업별	농/임/어업	(29)	9.4	30.9	34.0	22.5	3.1	40.3	56.6	2.28	42.69
	자영업	(148)	3.5	39.3	46.7	8.4	2.1	42.8	55.1	2.39	46.25
	블루칼라	(141)	1.5	25.1	55.3	16.4	1.6	26.6	71.7	2.12	37.31
	화이트칼라	(251)	1.9	32.0	49.8	14.1	2.2	33.9	63.8	2.22	40.78
	학생	(101)	0.0	37.4	44.6	18.0	0.0	37.4	62.6	2.19	39.78
	가사	(244)	1.7	18.7	60.1	17.0	2.5	20.5	77.1	2.05	35.12
	직업군인	(1)	0.0	100.0	0.0	0.0	0.0	100.0	0.0	3.00	66.67
	무직/기타	(85)	1.6	43.9	36.3	15.6	2.6	45.5	51.9	2.32	44.10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2.8	31.9	44.1	16.9	4.3	34.7	61.0	2.22	40.54
	201~300만원	(151)	1.0	31.0	52.5	13.3	2.1	32.1	65.8	2.20	40.07
	301~400만원	(172)	0.3	31.2	57.7	10.8	0.0	31.5	68.5	2.21	40.33
	401~500만원	(148)	2.7	34.4	50.3	10.3	2.3	37.1	60.6	2.30	43.38
	501만원 이상	(214)	2.4	31.5	48.3	16.1	1.7	33.9	64.4	2.21	40.19
	모름/무응답	(97)	3.3	16.4	53.6	25.8	0.8	19.8	79.4	1.97	32.41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2.0	26.6	53.8	15.6	2.0	28.7	69.4	2.15	38.48
	신문/잡지	(88)	3.3	50.7	36.4	4.0	5.6	54.0	40.4	2.56	52.13
	인터넷/SNS	(422)	1.3	30.6	50.2	16.9	1.0	31.9	67.1	2.16	38.83
	주변사람	(8)	0.0	39.2	57.4	3.4	0.0	39.2	60.8	2.36	45.25
	모름/무응답	(15)	17.3	20.9	33.2	16.8	11.8	38.3	50.0	2.44	47.98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중복응답)] 다음 중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우리정부의 통일 및 대북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남북대화 재개	북한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	북한주민 민생 지원 및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인권 문제 해결	통일미래상 제시 등 통일준비	우리나라 북한이탈주민 정책 지원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000)	39.5	36.8	34.3	27.4	26.4	11.9	1.2	6.6
성 별	남성	(496)	41.9	33.7	36.2	27.9	29.1	13.4	1.5	3.4
	여성	(504)	37.1	39.9	32.4	26.9	23.7	10.4	0.9	9.8
연령별	19~29세	(179)	34.4	41.4	33.4	34.9	26.2	13.5	0.7	4.4
	30대	(185)	42.8	35.8	31.8	31.5	32.1	12.7	2.1	1.6
	40대	(212)	42.3	31.4	40.4	28.3	29.5	9.6	0.9	6.8
	50대	(198)	44.4	35.1	33.6	23.9	30.2	12.3	0.0	4.8
	60대이상	(226)	33.8	40.7	31.8	20.4	15.6	11.7	2.1	13.9
거주지별	서울	(203)	40.2	32.2	35.5	29.3	30.2	11.4	2.5	4.9
	인천/경기	(291)	34.2	37.8	34.7	27.7	27.5	12.3	1.3	6.8
	대전/충청	(102)	50.1	36.9	33.7	23.7	19.4	15.8	1.2	5.5
	광주/전라	(103)	45.5	34.8	31.8	24.2	33.4	11.7	0.0	5.8
	대구/경북	(102)	33.6	35.0	31.9	29.7	23.8	15.8	0.8	8.8
	부산/울산/경남	(158)	39.7	42.9	35.6	29.0	20.2	8.0	0.6	7.5
	강원/제주	(41)	45.4	39.6	33.4	21.4	29.5	7.3	0.0	9.3
출생지별	서울	(175)	38.2	36.6	38.3	25.4	29.1	11.5	2.4	5.1
	인천/경기	(132)	32.6	40.7	37.7	30.6	22.4	14.3	1.4	5.0
	대전/충청	(141)	44.7	33.9	35.3	24.2	22.7	13.1	1.5	7.3
	광주/전라	(183)	41.9	35.9	31.4	27.5	33.4	9.0	0.5	5.9
	대구/경북	(129)	35.9	34.8	30.4	34.3	26.9	13.5	0.6	6.1
	부산/울산/경남	(176)	41.9	39.5	35.1	26.0	21.4	9.9	0.5	8.1
	강원/제주	(49)	40.9	35.1	31.1	22.5	28.0	16.3	0.0	9.6
	북한	(6)	39.3	56.5	13.1	16.4	12.7	16.4	15.2	15.2
	해외	(8)	29.4	20.0	16.4	33.0	38.9	13.0	0.0	24.6
학력별	중졸이하	(144)	33.0	35.9	23.6	18.8	16.0	8.9	2.2	20.7
	고졸	(276)	38.4	43.8	34.8	30.7	19.9	10.5	0.7	6.0
	대재이상	(572)	41.9	33.9	36.4	28.2	32.1	13.2	1.1	3.2
	모름/무응답	(8)	17.2	21.5	51.8	18.1	23.2	19.4	7.3	20.8
이념성향	진보	(253)	46.6	32.3	36.2	29.9	33.1	12.8	1.2	1.7
	중도	(364)	43.6	32.9	35.9	28.0	28.6	10.9	1.3	5.1
	보수	(297)	32.2	44.6	31.9	26.8	22.4	13.0	1.1	7.2
	모름/무응답	(86)	26.1	39.9	29.8	20.0	10.9	9.1	0.9	25.2
직업별	농/임/어업	(29)	34.2	43.5	27.9	25.1	14.4	10.2	0.0	19.2
	자영업	(148)	42.5	36.5	37.2	26.7	33.1	9.0	0.6	2.7
	블루칼라	(141)	42.7	29.4	39.1	26.4	33.7	13.5	0.7	2.0
	화이트칼라	(251)	45.4	37.0	34.3	30.4	29.2	13.8	0.8	2.3
	학생	(101)	33.2	38.7	32.3	35.4	24.4	13.7	1.2	5.2
	가사	(244)	32.9	40.2	32.7	23.8	19.8	8.2	1.8	14.5
	직업군인	(1)	100.0	0.0	0.0	100.0	0.0	0.0	0.0	0.0
	무직/기타	(85)	39.1	35.5	30.3	22.7	19.9	17.6	2.6	8.5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34.2	41.1	28.7	21.7	18.4	13.8	2.1	12.4
	201~300만원	(151)	40.0	39.4	31.3	36.8	25.0	11.1	0.7	3.6
	301~400만원	(172)	38.3	33.1	36.9	31.5	24.4	14.6	1.9	4.4
	401~500만원	(148)	41.9	33.3	44.4	28.1	34.5	8.8	0.0	2.3
	501만원 이상	(214)	45.8	34.5	34.9	25.7	33.9	10.2	1.4	3.1
	모름/무응답	(97)	35.0	40.4	29.9	21.0	21.2	12.2	0.0	16.2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38.9	37.0	33.4	24.8	22.5	11.5	1.0	8.7
	신문/잡지	(88)	37.7	42.4	36.7	23.5	24.4	10.7	2.2	4.9
	인터넷/SNS	(422)	40.5	35.6	34.9	30.8	31.2	12.5	0.9	4.6
	주변사람	(8)	14.4	67.6	3.4	32.8	28.0	19.4	15.2	0.0
	모름/무응답	(15)	51.1	16.4	43.3	32.3	22.0	6.5	0.0	11.8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를 기본원칙으로 내세우는 통일추진에 대한 견해] 통일을 추진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원칙으로 내세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적극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찬성	반대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28.7	53.7	7.3	2.5	7.8	82.4	9.8	3.18	72.61
성 별	남성	(496)	37.0	49.7	4.7	3.2	5.4	86.8	7.9	3.27	75.82
	여성	(504)	20.6	57.6	9.8	1.9	10.2	78.2	11.7	3.08	69.28
연령별	19~29세	(179)	27.9	52.8	9.1	5.7	4.5	80.6	14.8	3.08	69.23
	30대	(185)	28.5	54.5	10.5	3.0	3.5	83.1	13.4	3.13	70.86
	40대	(212)	33.7	49.9	6.6	2.0	7.7	83.6	8.7	3.25	74.99
	50대	(198)	26.3	59.6	6.9	1.0	6.2	85.9	7.9	3.19	72.88
	60대이상	(226)	27.0	52.1	4.1	1.5	15.3	79.1	5.5	3.24	74.56
거주지별	서울	(203)	31.9	50.8	6.9	3.5	6.9	82.6	10.5	3.19	73.06
	인천/경기	(291)	23.9	55.2	8.7	3.4	8.7	79.1	12.2	3.09	69.69
	대전/충청	(102)	35.4	47.5	8.9	1.6	6.7	82.8	10.5	3.25	75.00
	광주/전라	(103)	28.3	55.1	9.4	1.3	6.0	83.3	10.7	3.17	72.46
	대구/경북	(102)	27.7	57.3	4.6	1.6	8.8	85.0	6.3	3.22	73.91
	부산/울산/경남	(158)	28.8	57.6	1.6	2.2	9.8	86.4	3.9	3.25	75.05
출생지별	강원/제주	(41)	34.9	45.6	17.1	0.0	2.4	80.5	17.1	3.18	72.76
	서울	(175)	32.4	54.6	6.2	2.7	4.1	86.9	8.9	3.22	73.88
	인천/경기	(132)	21.1	54.5	11.9	4.4	8.0	75.6	16.4	3.00	66.78
	대전/충청	(141)	35.1	46.9	8.5	0.0	9.4	82.0	8.5	3.29	76.45
	광주/전라	(183)	28.9	53.4	8.3	1.5	7.9	82.3	9.8	3.19	72.99
	대구/경북	(129)	26.5	58.2	4.3	3.3	7.7	84.7	7.6	3.17	72.29
	부산/울산/경남	(176)	26.9	56.1	3.5	3.7	9.9	82.9	7.2	3.18	72.59
	강원/제주	(49)	28.1	53.6	14.3	2.0	2.0	81.7	16.3	3.10	70.00
	북한	(6)	72.1	27.9	0.0	0.0	0.0	100.0	0.0	3.72	90.71
	해외	(8)	7.1	42.4	0.0	0.0	50.6	49.4	0.0	3.14	71.44
학력별	중졸이하	(144)	21.2	51.6	5.5	1.2	20.5	72.8	6.7	3.17	72.29
	고졸	(276)	26.4	53.7	8.7	2.0	9.1	80.1	10.8	3.15	71.65
	대재이상	(572)	31.6	54.6	7.1	3.1	3.6	86.1	10.2	3.19	72.96
	모름/무응답	(8)	42.7	29.3	0.0	0.0	28.0	72.0	0.0	3.59	86.44
이념성향	진보	(253)	33.0	52.9	5.7	2.7	5.7	85.9	8.4	3.23	74.42
	중도	(364)	27.9	55.6	9.7	2.6	4.3	83.5	12.2	3.14	71.23
	보수	(297)	29.2	54.8	5.9	1.9	8.2	84.0	7.8	3.21	73.74
	모름/무응답	(86)	18.2	44.3	6.3	4.0	27.2	62.5	10.3	3.05	68.45
직업별	농/임/어업	(29)	29.3	56.2	3.5	0.0	11.0	85.5	3.5	3.29	76.34
	자영업	(148)	36.3	51.5	6.3	1.7	4.2	87.8	8.0	3.28	75.94
	블루칼라	(141)	30.0	50.1	5.5	6.2	8.3	80.0	11.7	3.13	71.04
	화이트칼라	(251)	33.1	55.5	6.7	1.7	2.9	88.6	8.4	3.24	74.55
	학생	(101)	29.7	55.7	7.1	4.8	2.7	85.4	11.9	3.13	71.15
	가사	(244)	15.8	57.0	11.0	1.3	14.9	72.9	12.3	3.03	67.54
	직업군인	(1)	100.0	0.0	0.0	0.0	0.0	100.0	0.0	4.00	100.00
소득별	무직/기타	(85)	35.6	46.1	4.3	1.9	12.2	81.6	6.2	3.31	77.10
	200만원 이하	(218)	25.6	49.9	7.6	1.5	15.4	75.5	9.1	3.18	72.54
	201~300만원	(151)	26.1	58.0	7.6	2.1	6.2	84.1	9.7	3.15	71.73
	301~400만원	(172)	26.4	57.2	9.8	1.8	4.6	83.7	11.7	3.14	71.17
	401~500만원	(148)	36.4	52.8	6.9	2.4	1.5	89.2	9.3	3.25	75.00
	501만원 이상	(214)	35.1	51.2	5.2	3.6	4.9	86.3	8.8	3.24	74.64
	모름/무응답	(97)	18.4	56.2	6.5	4.3	14.6	74.6	10.8	3.04	67.94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27.1	53.6	5.9	1.8	11.6	80.7	7.7	3.20	73.29
	신문/잡지	(88)	33.8	53.7	5.3	0.0	7.2	87.5	5.3	3.31	76.90
	인터넷/SNS	(422)	28.8	54.3	9.3	4.0	3.6	83.1	13.3	3.12	70.65
	주변사람	(8)	40.8	59.2	0.0	0.0	0.0	100.0	0.0	3.41	80.26
	모름/무응답	(15)	40.0	38.9	5.4	0.0	15.7	78.9	5.4	3.41	80.35

[통일 미래상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 (중복응답)] 통일 미래상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음 중 어떤 사항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노력	통일문제에 있어 정차권 모든 당파의 일치된 인식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	방송 및 언론의 보도 확대	기타	모름/ 무응답
◆ 전 체 ◆		(1000)	47.3	42.6	37.1	26.1	20.9	1.0	5.4
성 별	남성	(496)	46.6	43.9	39.8	24.6	21.0	1.8	4.1
	여성	(504)	48.0	41.3	34.4	27.6	20.9	0.2	6.7
연령별	19~29세	(179)	54.0	46.9	25.7	30.4	20.1	1.7	5.1
	30대	(185)	49.6	45.2	38.6	28.6	21.3	0.6	1.0
	40대	(212)	49.3	41.8	43.5	28.8	20.4	0.5	3.0
	50대	(198)	46.1	42.6	43.7	23.4	24.0	0.4	3.8
	60대이상	(226)	39.4	37.8	33.0	20.6	19.2	1.7	13.0
거주지별	서울	(203)	47.0	37.2	39.0	33.8	21.9	1.4	3.9
	인천/경기	(291)	49.4	42.5	39.3	26.9	15.6	0.0	5.5
	대전/충청	(102)	48.4	39.9	37.5	23.4	25.8	2.0	4.2
	광주/전라	(103)	47.0	48.4	29.6	28.1	26.1	0.8	5.6
	대구/경북	(102)	44.4	44.3	29.7	23.0	22.2	1.6	8.6
	부산/울산/경남	(158)	41.9	45.9	38.5	18.8	25.0	1.6	5.9
	강원/제주	(41)	60.9	45.5	42.1	20.3	9.8	0.0	4.9
출생지별	서울	(175)	50.3	42.0	37.2	27.3	20.0	2.0	2.2
	인천/경기	(132)	50.3	46.3	40.2	28.1	18.6	0.0	3.9
	대전/충청	(141)	44.5	41.4	37.1	28.9	19.6	1.3	6.5
	광주/전라	(183)	47.1	43.1	35.4	26.4	24.4	0.4	5.4
	대구/경북	(129)	46.3	42.0	39.4	23.2	17.2	1.2	6.9
	부산/울산/경남	(176)	43.6	40.6	36.3	24.0	26.5	1.3	6.9
	강원/제주	(49)	56.7	45.9	32.8	26.0	14.2	0.0	4.1
	북한	(6)	11.0	58.7	42.5	16.4	25.9	0.0	15.2
학력별	해외	(8)	58.9	25.9	20.0	13.0	0.0	0.0	28.1
	중졸이하	(144)	33.3	36.1	27.7	17.8	19.5	1.8	18.3
	고졸	(276)	49.2	38.2	37.5	24.0	23.4	0.9	6.5
	대재이상	(572)	49.9	46.5	38.9	29.4	20.3	0.7	1.6
	모름/무응답	(8)	47.5	31.6	59.8	12.1	9.1	7.3	8.7
이념성향	진보	(253)	47.2	50.3	38.6	30.6	21.5	0.6	2.0
	중도	(364)	49.1	40.4	40.2	28.2	19.6	0.8	2.8
	보수	(297)	46.4	41.7	37.0	24.8	24.4	1.3	5.1
	모름/무응답	(86)	43.5	32.2	19.6	9.2	12.9	1.7	27.3
직업별	농/임/어업	(29)	35.9	41.0	13.1	26.4	19.7	2.8	18.4
	자영업	(148)	43.4	42.2	46.6	24.9	24.9	0.5	2.7
	블루칼라	(141)	48.5	45.1	37.0	28.3	20.1	0.4	3.8
	화이트칼라	(251)	51.0	47.4	41.6	27.4	20.4	0.5	0.8
	학생	(101)	55.4	46.2	30.6	31.2	12.8	2.9	4.0
	가사	(244)	43.4	37.8	31.9	25.0	22.7	0.4	10.5
	직업군인	(1)	100.0	0.0	0.0	0.0	100.0	0.0	0.0
소득별	무직/기타	(85)	46.2	35.7	38.3	18.4	21.5	3.1	9.1
	200만원 이하	(218)	44.5	33.9	27.9	22.8	22.4	1.6	12.7
	201~300만원	(151)	43.0	38.2	41.4	31.0	23.9	1.1	4.8
	301~400만원	(172)	45.5	45.3	39.9	26.3	23.8	0.7	1.0
	401~500만원	(148)	55.3	44.6	42.0	29.3	18.5	0.7	0.7
	501만원 이상	(214)	48.8	51.6	39.9	27.3	18.2	0.6	1.2
	모름/무응답	(97)	48.5	41.2	32.2	18.3	18.0	1.3	14.3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43.5	39.8	34.8	23.3	24.0	0.6	8.4
	신문/잡지	(88)	56.7	32.9	43.1	27.8	20.0	4.3	2.7
	인터넷/SNS	(422)	50.3	47.2	38.5	29.2	17.8	0.4	2.6
	주변사람	(8)	39.0	23.6	38.8	17.8	26.4	15.2	12.0
	모름/무응답	(15)	32.5	67.2	33.9	21.8	16.6	0.0	5.9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인지 정도

우리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단위 : %		사례수	매우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별로 알지 못한다	전혀 모른다	무응답	인지	비인지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2.2	26.0	50.0	20.4	1.4	28.2	70.4	2.10	36.72
성 별	남성	(496)	3.8	34.1	43.1	17.8	1.1	37.9	61.0	2.24	41.37
	여성	(504)	0.6	18.1	56.7	22.9	1.7	18.7	79.6	1.96	32.11
연령별	19~29세	(179)	0.8	25.3	47.9	24.9	1.1	26.1	72.8	2.02	34.04
	30대	(185)	0.6	18.9	57.1	22.9	0.4	19.6	80.0	1.97	32.44
	40대	(212)	4.0	25.1	48.2	21.7	1.0	29.1	69.9	2.11	37.16
	50대	(198)	3.0	27.6	51.9	16.4	1.2	30.5	68.3	2.17	39.10
	60대이상	(226)	2.2	31.9	45.7	17.1	3.1	34.1	62.8	2.20	39.94
거주지별	서울	(203)	0.9	31.7	49.0	18.0	0.4	32.6	67.0	2.16	38.51
	인천/경기	(291)	3.2	24.8	49.4	21.4	1.2	28.0	70.8	2.10	36.62
	대전/충청	(102)	0.0	20.6	53.5	23.8	2.1	20.6	77.2	1.97	32.26
	광주/전라	(103)	4.5	18.3	55.5	18.9	2.9	22.7	74.4	2.09	36.17
	대구/경북	(102)	3.4	29.6	45.9	20.4	0.7	33.0	66.3	2.16	38.72
	부산/울산/경남	(158)	1.3	26.1	48.5	21.5	2.5	27.4	70.1	2.07	35.80
	강원/제주	(41)	1.8	30.1	52.1	16.0	0.0	32.0	68.0	2.18	39.27
출생지별	서울	(175)	2.2	28.2	49.6	20.1	0.0	30.4	69.6	2.12	37.49
	인천/경기	(132)	3.2	30.5	45.6	20.2	0.6	33.7	65.8	2.17	38.92
	대전/충청	(141)	1.2	29.9	47.4	19.9	1.5	31.1	67.3	2.13	37.54
	광주/전라	(183)	3.8	17.4	52.9	23.2	2.6	21.2	76.2	2.02	33.96
	대구/경북	(129)	2.8	31.1	46.0	19.5	0.6	33.9	65.5	2.17	39.10
	부산/울산/경남	(176)	0.4	22.3	53.1	21.0	3.2	22.7	74.1	2.02	34.05
	강원/제주	(49)	1.5	26.6	59.1	12.8	0.0	28.1	71.9	2.17	38.94
	북한	(6)	0.0	42.5	42.3	15.2	0.0	42.5	57.5	2.27	42.46
	해외	(8)	0.0	20.0	54.0	25.9	0.0	20.0	80.0	1.94	31.37
학력별	중졸이하	(144)	3.5	20.4	46.9	25.2	4.1	23.8	72.0	2.02	34.09
	고졸	(276)	1.7	23.5	54.2	19.7	0.9	25.2	73.9	2.07	35.75
	대재이상	(572)	2.0	28.7	48.7	19.7	1.0	30.6	68.4	2.13	37.69
	모름/무응답	(8)	9.4	27.8	54.7	8.1	0.0	37.2	62.8	2.39	46.18
이념성향	진보	(253)	2.7	30.4	50.3	15.7	0.9	33.1	66.0	2.20	40.08
	중도	(364)	2.0	23.4	53.1	19.7	1.8	25.4	72.8	2.08	35.97
	보수	(297)	2.3	30.5	46.7	19.7	0.8	32.8	66.4	2.16	38.52
	모름/무응답	(86)	1.0	8.9	47.4	39.5	3.3	9.8	86.9	1.70	23.44
직업별	농/임/어업	(29)	11.9	33.6	32.1	19.5	2.9	45.5	51.6	2.39	46.34
	자영업	(148)	3.9	28.9	50.4	16.3	0.5	32.8	66.7	2.21	40.19
	블루칼라	(141)	1.9	20.0	47.8	29.1	1.2	21.9	76.9	1.95	31.53
	화이트칼라	(251)	2.8	30.0	49.1	17.5	0.7	32.8	66.6	2.18	39.38
	학생	(101)	0.0	28.2	50.5	20.3	1.0	28.2	70.9	2.08	35.97
	가사	(244)	0.9	14.8	59.9	22.3	2.0	15.8	82.2	1.94	31.44
	직업군인	(1)	0.0	100.0	0.0	0.0	0.0	100.0	0.0	3.00	66.67
	무직/기타	(85)	0.9	45.6	33.0	16.7	3.8	46.5	49.7	2.32	43.95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2.3	24.7	48.4	21.1	3.5	27.0	69.5	2.08	36.12
	201~300만원	(151)	0.6	24.4	54.3	19.1	1.6	25.0	73.4	2.07	35.51
	301~400만원	(172)	1.4	20.0	55.5	23.0	0.0	21.4	78.6	2.00	33.26
	401~500만원	(148)	4.5	33.0	46.9	14.5	1.1	37.5	61.4	2.28	42.60
	501만원 이상	(214)	2.1	32.4	46.0	18.7	0.8	34.5	64.6	2.18	39.39
	모름/무응답	(97)	2.5	17.6	50.4	28.8	0.7	20.1	79.2	1.94	31.28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1.9	23.0	51.7	21.9	1.4	25.0	73.6	2.05	35.01
	신문/잡지	(88)	3.2	48.0	37.4	9.6	1.8	51.2	46.9	2.46	48.57
	인터넷/SNS	(422)	1.5	24.8	51.6	21.0	1.1	26.3	72.5	2.07	35.65
	주변사람	(8)	0.0	21.6	52.0	14.4	12.0	21.6	66.4	2.08	36.06
	모름/무응답	(15)	23.9	26.8	26.6	22.7	0.0	50.7	49.3	2.52	50.6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찬반

그렇다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적극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찬성	반대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282)	17.5	62.3	10.3	5.1	4.8	79.8	15.4	2.97	65.63
성 별	남성	(188)	19.4	58.1	11.6	5.8	5.0	77.5	17.4	2.96	65.34
	여성	(94)	13.6	70.8	7.6	3.6	4.4	84.3	11.2	2.99	66.21
연령별	19~29세	(47)	2.7	74.0	16.6	3.9	2.9	76.7	20.5	2.78	59.23
	30대	(36)	8.3	52.0	23.4	16.3	0.0	60.2	39.8	2.52	50.73
	40대	(62)	24.6	60.6	6.7	3.2	4.9	85.2	10.0	3.12	70.64
	50대	(60)	19.6	67.2	3.1	2.6	7.4	86.9	5.7	3.12	70.73
	60대이상	(77)	23.4	57.7	8.8	3.8	6.3	81.1	12.6	3.07	69.12
거주지별	서울	(66)	15.2	66.0	13.5	2.6	2.7	81.2	16.1	2.96	65.46
	인천/경기	(81)	14.1	62.6	11.6	7.1	4.6	76.8	18.7	2.88	62.62
	대전/충청	(21)	15.1	71.6	7.6	2.9	2.9	86.7	10.5	3.02	67.29
	광주/전라	(23)	33.4	61.3	2.1	3.2	0.0	94.7	5.3	3.25	74.95
	대구/경북	(34)	19.3	62.7	2.1	9.9	5.9	82.0	12.1	2.97	65.70
	부산/울산/경남	(43)	15.4	60.3	9.0	4.8	10.5	75.7	13.8	2.96	65.46
출생지별	강원/제주	(13)	27.1	34.7	30.5	0.0	7.6	61.8	30.5	2.96	65.43
	서울	(53)	20.1	53.1	18.1	3.8	4.9	73.2	21.9	2.94	64.70
	인천/경기	(45)	11.3	67.4	8.0	11.0	2.2	78.7	19.0	2.81	60.28
	대전/충청	(44)	13.2	69.6	6.4	3.1	7.8	82.8	9.4	3.01	66.94
	광주/전라	(39)	21.6	69.6	6.9	1.9	0.0	91.2	8.8	3.11	70.28
	대구/경북	(44)	20.8	59.4	7.0	8.3	4.6	80.2	15.2	2.97	65.71
	부산/울산/경남	(40)	15.4	61.8	8.4	4.0	10.3	77.2	12.4	2.99	66.29
	강원/제주	(14)	29.4	41.7	29.0	0.0	0.0	71.0	29.0	3.00	66.79
	북한	(3)	0.0	100.0	0.0	0.0	0.0	100.0	0.0	3.00	66.67
학력별	해외	(2)	0.0	64.7	0.0	0.0	35.3	64.7	0.0	3.00	66.67
	중졸이하	(34)	27.1	54.8	4.8	4.4	9.0	81.9	9.1	3.15	71.66
	고졸	(69)	31.1	55.7	3.6	0.0	9.6	86.8	3.6	3.30	76.79
	대재이상	(175)	10.0	66.2	14.2	7.3	2.2	76.3	21.5	2.81	60.28
	모름/무응답	(3)	25.3	74.7	0.0	0.0	0.0	100.0	0.0	3.25	75.11
이념성향	진보	(84)	20.7	64.1	6.9	2.4	5.9	84.9	9.3	3.10	69.88
	중도	(92)	15.3	68.5	13.3	0.9	2.1	83.7	14.2	3.00	66.73
	보수	(98)	16.6	55.2	10.3	10.9	7.0	71.8	21.2	2.83	61.08
	모름/무응답	(8)	19.2	60.1	11.8	8.9	0.0	79.3	20.7	2.90	63.23
직업별	농/임/어업	(13)	34.8	50.6	0.0	0.0	14.6	85.4	0.0	3.41	80.25
	자영업	(49)	24.9	60.1	4.5	3.3	7.3	84.9	7.8	3.15	71.62
	블루칼라	(31)	30.0	55.7	5.4	5.6	3.2	85.7	11.1	3.14	71.25
	화이트칼라	(82)	9.0	63.1	19.2	5.7	3.0	72.1	24.9	2.78	59.23
	학생	(29)	4.4	73.5	11.0	6.4	4.7	77.9	17.4	2.80	59.88
	가사	(39)	9.8	76.1	2.8	6.9	4.4	85.9	9.7	2.93	64.29
	직업군인	(1)	0.0	100.0	0.0	0.0	0.0	100.0	0.0	3.00	66.67
	무직/기타	(40)	27.8	50.3	13.2	4.3	4.4	78.1	17.5	3.06	68.74
소득별	200만원 이하	(59)	23.7	58.9	5.8	4.2	7.5	82.5	10.0	3.10	70.09
	201~300만원	(38)	17.4	61.2	4.4	2.6	14.4	78.5	7.0	3.09	69.66
	301~400만원	(37)	22.1	57.8	13.1	5.4	1.6	79.8	18.5	2.98	66.02
	401~500만원	(55)	15.6	68.5	10.1	4.2	1.6	84.1	14.3	2.97	65.69
	501만원 이상	(74)	10.7	62.4	17.0	6.7	3.2	73.1	23.7	2.80	59.90
	모름/무응답	(20)	21.0	65.9	5.1	8.0	0.0	86.9	13.1	3.00	66.61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116)	26.0	59.1	5.5	4.2	5.2	85.1	9.7	3.13	70.90
	신문/잡지	(45)	9.5	71.0	10.7	8.9	0.0	80.4	19.6	2.81	60.35
	인터넷/SNS	(111)	12.4	62.5	15.2	3.9	6.0	74.9	19.1	2.89	62.92
	주변사람	(2)	0.0	44.4	55.6	0.0	0.0	44.4	55.6	2.44	48.15
	모름/무응답	(8)	12.9	62.6	0.0	12.9	11.6	75.5	12.9	2.85	61.80

[정부의 「통일헌장」 제정 찬반]

정부가 「통일헌장」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사례수	적극 찬성한다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적극 반대한다	모름/무응답	찬성	반대	평균 (4점)	평균 (100점)
◆ 전 체 ◆		(1000)	15.1	52.2	15.6	3.7	13.4	67.3	19.3	2.91	63.64
성 별	남성	(496)	19.3	48.3	15.1	5.4	11.8	67.6	20.5	2.92	64.17
	여성	(504)	11.0	55.9	16.1	2.0	14.9	67.0	18.1	2.89	63.11
연령별	19~29세	(179)	6.7	55.3	21.7	4.1	12.2	62.0	25.8	2.74	57.90
	30대	(185)	10.6	53.3	17.8	5.4	12.9	63.9	23.1	2.79	59.81
	40대	(212)	14.0	50.9	18.3	4.5	12.4	64.8	22.8	2.85	61.60
	50대	(198)	18.0	53.9	14.2	3.5	10.4	71.9	17.7	2.96	65.48
	60대이상	(226)	24.2	48.4	7.7	1.5	18.2	72.6	9.2	3.16	72.16
거주지별	서울	(203)	10.5	60.3	10.9	5.1	13.2	70.9	15.9	2.88	62.65
	인천/경기	(291)	14.6	51.3	16.2	4.0	13.9	65.9	20.2	2.89	62.96
	대전/충청	(102)	16.7	44.9	18.5	4.1	15.8	61.6	22.6	2.88	62.71
	광주/전라	(103)	19.3	58.8	14.0	1.3	6.7	78.0	15.2	3.03	67.66
	대구/경북	(102)	14.0	47.9	15.7	5.7	16.8	61.9	21.3	2.84	61.47
	부산/울산/경남	(158)	16.4	49.1	18.3	1.3	14.8	65.6	19.7	2.95	64.90
	강원/제주	(41)	25.6	41.5	21.3	4.3	7.3	67.1	25.6	2.95	65.12
출생지별	서울	(175)	10.1	53.7	14.9	8.0	13.2	63.9	22.9	2.76	58.72
	인천/경기	(132)	12.9	52.8	16.8	3.4	14.0	65.7	20.3	2.87	62.48
	대전/충청	(141)	18.4	52.9	11.9	3.4	13.4	71.3	15.3	3.00	66.58
	광주/전라	(183)	16.0	55.4	16.1	1.8	10.7	71.4	17.9	2.96	65.28
	대구/경북	(129)	16.7	46.9	16.3	3.4	16.7	63.6	19.7	2.92	64.11
	부산/울산/경남	(176)	14.7	50.5	16.4	2.4	16.1	65.2	18.8	2.92	64.08
	강원/제주	(49)	23.1	49.9	21.5	3.6	1.9	73.0	25.1	2.94	64.79
	북한	(6)	32.9	52.0	0.0	0.0	15.2	84.8	0.0	3.39	79.58
	해외	(8)	7.1	55.3	13.0	0.0	24.6	62.4	13.0	2.92	64.06
학력별	중졸이하	(144)	23.6	43.7	8.4	1.8	22.5	67.3	10.2	3.15	71.68
	고졸	(276)	18.0	53.4	12.9	3.0	12.8	71.4	15.9	2.99	66.34
	대재이상	(572)	11.4	54.1	18.8	4.6	11.2	65.4	23.4	2.81	60.46
	모름/무응답	(8)	32.6	27.2	12.1	0.0	28.0	59.8	12.1	3.29	76.18
이념성향	진보	(253)	15.5	54.7	15.8	4.0	10.0	70.2	19.8	2.91	63.57
	중도	(364)	14.5	52.6	16.7	2.5	13.7	67.1	19.2	2.92	63.89
	보수	(297)	16.0	52.7	13.7	5.2	12.4	68.7	18.9	2.91	63.59
	모름/무응답	(86)	13.8	40.9	17.1	2.5	25.6	54.7	19.7	2.89	62.91
직업별	농/임/어업	(29)	27.4	40.9	13.1	3.0	15.6	68.3	16.1	3.10	69.93
	자영업	(148)	24.2	48.9	13.0	3.9	10.1	73.1	16.8	3.04	67.94
	블루칼라	(141)	17.9	51.9	13.9	4.0	12.2	69.8	18.0	2.95	65.12
	화이트칼라	(251)	10.1	50.9	21.9	5.1	12.0	61.0	27.0	2.75	58.30
	학생	(101)	4.5	57.3	21.5	2.3	14.4	61.8	23.7	2.75	58.28
	가사	(244)	12.4	56.9	11.5	2.6	16.5	69.3	14.1	2.95	64.95
	직업군인	(1)	0.0	100.0	0.0	0.0	0.0	100.0	0.0	3.00	66.67
	무직/기타	(85)	26.4	45.4	10.1	3.7	14.5	71.8	13.8	3.10	70.14
소득별	200만원 이하	(218)	21.5	47.1	9.1	3.1	19.3	68.6	12.2	3.08	69.23
	201~300만원	(151)	16.5	58.7	13.8	2.1	8.8	75.3	15.9	2.98	66.13
	301~400만원	(172)	12.0	56.5	15.7	2.0	13.8	68.5	17.7	2.91	63.65
	401~500만원	(148)	16.5	51.5	20.3	3.6	8.0	68.0	23.9	2.88	62.66
	501만원 이상	(214)	12.4	51.5	19.4	6.6	10.2	63.9	25.9	2.78	59.22
	모름/무응답	(97)	8.4	48.0	17.5	4.3	21.8	56.4	21.8	2.77	59.11
정보접촉 경로	TV/라디오	(466)	18.7	54.0	12.1	1.5	13.6	72.7	13.7	3.04	68.03
	신문/잡지	(88)	19.9	50.2	13.6	6.0	10.3	70.1	19.6	2.94	64.57
	인터넷/SNS	(422)	10.1	52.2	19.3	5.4	13.0	62.3	24.7	2.77	59.03
	주변사람	(8)	16.0	42.4	27.2	0.0	14.4	58.4	27.2	2.87	62.31
	모름/무응답	(15)	16.6	10.8	25.4	12.0	35.1	27.5	37.4	2.50	49.84

국민 통일여론조사 설문지

접근문

2015년 2분기 국민통일여론조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차) 2015. 5.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리서치 앤 리서치입니다. 금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문항이 몇 개 안되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OC. 거주지

-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 ⑮ 경남 | ⑯ 제주 | | | | | |

BIP. 출생지

- | | | | | | | |
|------|------|------|------|------|------|------|
| ① 서울 | ② 부산 | ③ 대구 | ④ 인천 | ⑤ 광주 | ⑥ 대전 | ⑦ 울산 |
| ⑧ 경기 | ⑨ 강원 | ⑩ 충북 | ⑪ 충남 | ⑫ 전북 | ⑬ 전남 | ⑭ 경북 |
| ⑮ 경남 | ⑯ 제주 | ⑰ 북한 | ⑱ 해외 | | | |

SEX.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

AGE. 선생님의 연령은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만 19세 미만 조사중단)

- ① 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 통일 인식 】

Q01. 선생님께서는 통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 ② 어느 정도 필요하다
- ③ 별로 필요하지 않다
- ④ 전혀 필요하지 않다
- ⑤ 모름/무응답

Q02. 선생님께서는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5년 이내
- ② 10년 이내
- ③ 20년 이내
- ④ 30년 이내
- ⑤ 30년 이상
- ⑥ 불가능하다
- ⑦ 모름/무응답

Q03.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지금보다 훨씬 발전되고, 잘 살게 될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 ① 매우 공감한다
- ② 대체로 공감한다
- ③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 ④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 ⑤ 모름/무응답

【 남북관계 인식 】

Q04. 선생님께서는 향후 남북관계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① 매우 좋아질 것이다
- ② 다소 좋아질 것이다
- ③ 변화 없을 것이다
- ④ 다소 나빠질 것이다
- ⑤ 매우 나빠질 것이다
- ⑥ 모름/무응답

【 북한인식 】

Q05. 선생님께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지원대상이다
- ② 협력대상이다
- ③ 별로 상관없는 대상이다
- ④ 경계대상이다
- ⑤ 적대대상이다
- ⑥ 모름/무응답

Q06. 선생님께서는 향후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다
- ② 약간 높다
- ③ 약간 낮다
- ④ 매우 낮다
- ⑤ 모름/무응답

【 국제관계 인식 】

Q07. 선생님께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중 우리나라의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칠 나라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미국
- ② 중국
- ③ 일본
- ④ 러시아
- ⑤ 기타 ()
- ⑥ 모름/무응답

【 안보의식 】

Q08. 선생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안정적이다
- ② 안정적인 편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불안정한 편이다
- ⑤ 매우 불안정하다
- ⑥ 모름/무응답

Q13. 선생님께서는 통일미래상에 대한 우리사회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다음 중 어떤 사항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2가지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가지 또는 2가지 응답 가능)

- ① 젊은 세대의 통일인식 제고
- ② 통일 문제에 있어 정치권 모든 당파의 일치된 인식
- ③ 시민사회의 역할 확대
- ④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 노력
- ⑤ 방송 및 언론의 보도 확대
- ⑥ 기타 ()
- ⑦ 모름/무응답

Q14. 선생님께서는 우리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 ① 매우 잘 알고 있다 ⇨ Q14-1번으로
-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 Q14-1번으로
- ③ 별로 알지 못한다 ⇨ Q15번으로
- ④ 전혀 모른다 ⇨ Q15번으로
- ⑤ 무응답 ⇨ Q15번으로

Q14-1. (Q14번에서 보기 ①, ②응답자만)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찬성한다
-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 ③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 ④ 적극 반대한다
- ⑤ 모름/무응답

Q15. 선생님께서는 정부가 「통일헌장」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극 찬성한다
- ② 대체로 찬성하는 편이다
- ③ 대체로 반대하는 편이다
- ④ 적극 반대한다
- ⑤ 모름/무응답

《 이제 끝으로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

EDU.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① 중졸 이하 ② 고졸 ③ 대재 이상 ④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IDE. 선생님의 이념적 성향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진보적이다 ② 다소 진보적이다 ③ 진보도 보수도 아닌 중도다
④ 다소 보수적이다 ⑤ 매우 보수적이다 ⑥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JOB. 선생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임/어업 종사자 (가족 종사자 포함)
② 자영업자 (소규모 장사 및 가족종사자, 개인택시운전사 등)
③ 입법공무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정부/기업 고위 임원, 일반관리자 등)
④ 전문가 (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교수, 작가, 예술가 등)
⑤ 기술공 및 준전문가
(컴퓨터 관련 준전문가, 경찰, 소방수, 철도기관사, 운동선수, 연예인, 종교인 등)
⑥ 사무종사자 (일반사무 종사자, 공무원, 교사 등)
⑦ 서비스종사자 (이미용사, 보안서비스 종사자, 음식서비스 종사자 등)
⑧ 판매종사자 (상점점원, 보험설계사, 나레이터 모델 및 홍보종사자 등)
⑨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광부, 전기/전자장비 설비 및 정비 종사자, 수공업 종사자 등)
⑩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건설 및 기타 이동장치 운전종사자, 자동차 운전 종사자 등)
⑪ 단순노무종사자 (배달, 운반, 세탁, 기사, 청소원, 경비원 등)
⑫ 학생 ⑬ 가사 ⑭ 직업군인
⑮ (☞불러주지 말 것!)무직 ⑯ (☞불러주지 말 것!)기타
⑰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MED. 선생님께서는 요즘 돌아가는 소식을 다음 중 무엇을 통해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십니까?

- ① TV ② 라디오 ③ 신문 ④ 잡지
⑤ 인터넷 포털, 블로그 ⑥ SNS/트위터 ⑦ 주변사람(가족, 친구 등) ⑧ 기타
⑨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INC. 선생님 댁 가족 전체의 보너스를 포함한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150만원 ③ 151~200만원
④ 201~250만원 ⑤ 251~300만원 ⑥ 301~400만원
⑦ 401~500만원 ⑧ 501~600만원 ⑨ 601만원 이상
⑩ (☞불러주지 말 것!)모름/무응답

메 모



메 모



메 모



발 간 위 원

김 영 수 위원장, 서강대 교수

김 병 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HK교수

김 용 현 동국대 교수

오 경 섭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황 지 환 서울시립대 교수

김 일 한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

2015 통일여론(2/4분기)

발 행 인 : 박 찬 봉

발 행 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여론분석과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84

전화번호 : 02) 2250-2291~5

팩 스 : 02-2236-2763

발 행 일 : 2015년 7월

디자인 · 인쇄 : 삼진기획(☎ 02-2277-1700)